

2024년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프로그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일 시 : 2024년 6월 15일(토), 12:30~18:10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 강연실 및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중동학회

공동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후 원 :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4S1A8A4A01042714)

이 발표논문집은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4S1A8A4A01042714)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

- 일시 : 6월 15일 토요일 12:30~18:1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 강연실 및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중동학회
- 공동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 후원 : 한국연구재단

Program

12:00~12:30 등록

12:30~12:45 개회식

[사회]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개회사

곽순례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 환영사

유달승 (중동연구소 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12:45~13:35 기조연설

▪ 1948~2024년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 시온주의자들의 원주민 축출 및 땅 몰수

발표자: 홍미정 (단국대학교)

토론자: 최영철 (성균관대학교)

13:35~13:45 휴식

13:45~16:15
(강연실)

제1부 1분과: 정치·경제·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 정치경제 질서 재편과 한국의 전략

[좌장]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군사적 측면

발표자: 김은비 (국방대학교)

토론자: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

발표자: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포스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구상

발표자: 마영삼 (고려대학교)

토론자: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 Realist Perspectives on the 2023 Israel-Hamas War:

Analyzing the Conflict through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발표자: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Robert Lawrence (동덕여자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걸프 국가 인식 차이 분석: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미디어 보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자: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자: 안희연 (단국대학교)

13:45~16:15
(세미나실)

제1부 2분과: 종교·역사·분과

역사적, 종교적 담론의 대립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좌장]

박재양 (부산외국어대학교)

▪ 탈무드(Talmud Bavli)에서 본 예루살렘과 수사(Susa)의 수학문화 전이

발표자: 박제남 (인하대학교)

토론자: 윤성덕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 중세 여행가들의 눈에 비친 서로 다른 모습의 예루살렘: 종교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김성환 (명지대학교)

-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의 함의

발표자: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자: 한새롬 (숙명여자대학교)

-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발표자: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김정명 (명지대학교)

16:15~16:30	휴식
16:30~18:00 (강연실)	제2부 1분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분과 중동 지역의 이주 현황과 수용국의 태도

[좌장]

김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중동발 난민 수용의 전환적 방법론 - 공여국 내 난민 ODA 확대와 그 함의

발표자: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토론자: 이은경 (명지대학교)

- 영화 속 팔레스타인 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재현

발표자: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토론자: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차별 양상

발표자: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토론자: 엄익란 (단국대학교)

16:30~18:00 (세미나실)	제2부 2분과: 언어·문학 분과 언어와 문학, 교육에 나타난 이-팔 분쟁에 대한 인식 차이와 대안 모색
-----------------------	--

[좌장]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발표자: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신양섭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발표자: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Salaheldin Elgebily (한국외국어대학교)

18:00~18:10

폐회식

[사회]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한국중동학회 임시 총회 및 폐회사

곽순례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기조연설

- 1948년~2024년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 시온주의자들의 원주민 축출 및 땅 몰수 11
홍미정 (단국대학교)

제1부 1분과: 정치·경제·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 정치경제 질서 재편과 한국의 전략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군사적 측면 27
김은비 (국방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 37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포스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구상 47
마영삼 (고려대학교)
- Realist Perspectives on the 2023 Israel-Hamas War: Analyzing the Conflict through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59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걸프 국가 인식 차이 분석: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미디어 보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67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1부 2분과: 종교·역사·분과

역사적, 종교적 담론의 대립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탈무드(Talmud Bavli)에서 본 예루살렘과 수사(Susa)의 수학문화 전이 81
박제남 (인하대학교)

- 중세 여행가들의 눈에 비친 서로 다른 모습의 예루살렘: 종교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93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의 함의 105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115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부 1분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분과
중동 지역의 이주 현황과 수용국의 태도**

- 중동발 난민 수용의 전환적 방법론 - 공여국 내 난민 ODA 확대와 그 함의 129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영화 속 팔레스타인 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재현 137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차별 양상 149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제2부 2분과: 언어·문학 분과
언어와 문학, 교육에 나타난 이-팔 분쟁에 대한 인식 차이와 대안 모색**

-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163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171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179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기조연설

[사회]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948년~2024년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 시온주의자들의 원주민 축출 및 땅 몰수
홍미정 (단국대학교)

1948년~2024년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 시온주의자들의 원주민 축출 및 땅 몰수

홍미정 (단국대학교)

중동학회 기초연설문

1948년~2024년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
: 시온주의자들의 원주민 축출 및 땅 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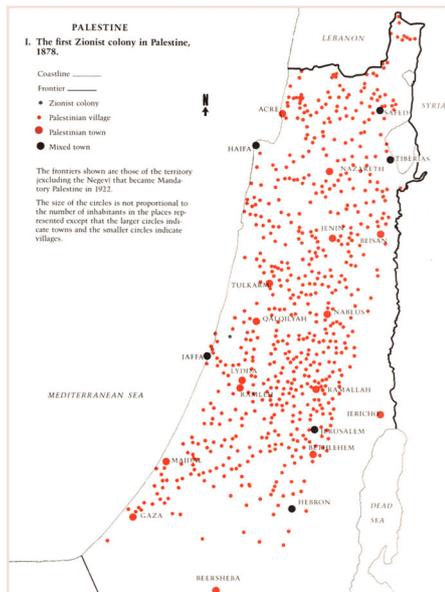
일시: 2024.06.15.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미정 (단국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

□ 앞서 드리는 말씀

- 우리 지역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진실과 정의, 보편성, 평등한 인권권리 향상을 지향해야 함.
-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고 축출하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음.
- 가자 주민의 80%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발생한 전쟁으로 축출된 난민.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967년 이후, 56년 동안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통제와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인종차별 체제아래에서 고통 받아 왔음. 특히 가자 지구는 2007년 이후 이스라엘 군의 봉쇄와 포위 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도 통제 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늘만 뚫린 감옥.
-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는 알 샤토티 난민촌 출신, 하마스 가자 지구 책임자 야히야 신와르 는 칸유니스 난민촌 출신, 이번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무함마드 데이프도 칸유니스 난민촌 출신. 이 주요 하마스 수뇌부 부모들은 1948년 전쟁으로 이스라엘 영역이 된 지역에서 축출된 난민임.
- 엄청난 인도주의적인 위기와 재앙을 초래하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종파•혈통•국적 같은 배타적인 정체성 규정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인권에 토대를 두어야 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기본구조는 내부동력을 무력화하는 영국, 미국의 정책 등 외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 창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것은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 분쟁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임. 결자해지 요구.

□ 팔레스타인 땅과 주민: 1878년 팔레스타인 인구 현황



1878년 오스만 제국 통치하의 팔레스타인 인구수	
총 주민수	440,850 (100%)
무슬림	386,320 (88%)
기독교인	40,588 (9%)
유대인	13,942 (3%)

- 유대교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도는 종교인이며, 통합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았음
- 시온주의자: 유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정치 운동 →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건설

□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나크바

▷ 1947~1949년 나크바

- 1948년 당시 약 팔레스타인 아랍인 140만 명이 1,300개의 마을과 도시에 거주. 이중 최소 75만 8천 명 서안, 가자 이웃 아랍국가 등지로 축출.
- 1947~1949년 나크바동안, 시온주의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군대가 774개의 도시와 마을들을 장악, 팔레스타인 아랍인 마을 531개 파괴, 51~70건 학살사건으로 15,000명 팔레스타인인들 살해.

▷ 팔레스타인 난민

- 1949년 UNRWA(1949년 12월 창설,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난민은 '1946년 6월 1일~ 1948년 5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일상적인 거주지가 팔레스타인이었고 1948년 전쟁의 결과로 집과 생계 수단을 모두 잃은 사람과 팔레스타인난민 남성의 후손과 입양된 아이들'.
- 1950년 UNRWA 운영 시작하면서 약 75만 명에게 서비스 제공. 2023년 8월에는 약 590만 명에게 서비스 제공.



HAARETZ.COM
Burying the Nakba: How Israel systematically hides evidence of 1948 expulsion of Ara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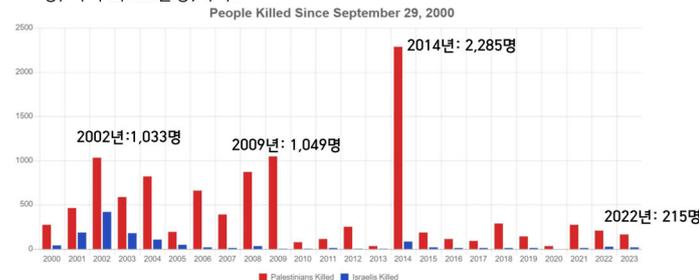


IMEC.ORG
Al-Mezan: "Nakba survivors in Gaza mark 75 years of ongoing refugeehood, settler-colonialism and apartheid..."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CBS) https://www.pcbs.gov.ps/portals/pcbs/PressRelease/Press_En_nakba05E.pdf
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2023). Nakba survivors in Gaza mark 75 years of ongoing refugeehood, settler-colonialism and apartheid amid Israel's renewed military assault on the Strip, 15 May 2023, <https://www.mezan.org/en/post/45998>

▷ 2024년 나크바

- 2023.10.07~2024.06.01.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가자 지역 사망자 36,899명, 부상자 87,407명.
- 2023.10.07~2024.05.16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서안지역 사망자 사망 502명, 부상 4,950명
-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의 전지역에 대한 유대인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귀환권을 훼손하는 유대 식민지 정착촌 건설 정책 및 인종차별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가자 지구 봉쇄 및 공격, 민간인 살해 정책, 서안에서의 토지 몰수, 합병 및 민간인 살해 등.
- 2022.08.30. 하이파대학, 지리&인구학 교수 아르논 소퍼는 이스라엘 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소수 지배 민족으로 전락할 인구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고 경고.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에 유대인의 비율은 47% 이하. 평균적으로 아랍인이 유대인보다 더 젊고 더 빠르게 증가.":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이스라엘과 서안 정착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9,444 천명(유대인 6,982천명, 아랍인 1,990천명, 기타 472천명)이고,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서안과 가자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5,220천명(서안 3,120천명, 가자 2,100천명)이다.



Haaretz(2003.11.13)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https://www.haaretz.com/2003-11-13/ty-article/maximum-jews-minimum-palestinians/0000017f-e437-d4ba-a37f-e77ef610000>
The Times of Israel(2022, Aug. 30). Jews now a 47% minority in Israel and the territories, demographer says, https://www.timesofisrael.com/jews-now-a-minority-in-israel-and-the-territories-demographer-says/7bcidhkwAR1mUWJnxG756Q4MiquzUR6dor_gfzq1TRJyhzr1wK1Z58U79WEVMyF5
<https://www.haaretz.com/2003-11-13/ty-article/maximum-jews-minimum-palestinians/0000017f-e437-d4ba-a37f-e77ef610000>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24.06.01). Israeli Occupation Aggression on Palestine since Oct.7th 2023, <https://pcbs.gov.ps/default.aspx>
The Human Cost of the Conflict, <https://israelpalestinetimeline.org/charts/>

□ **벤구리온의 유대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 계획**
: 달레트 계획(Plan D, 1948년 4월~5월)
 ▷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의 인증청소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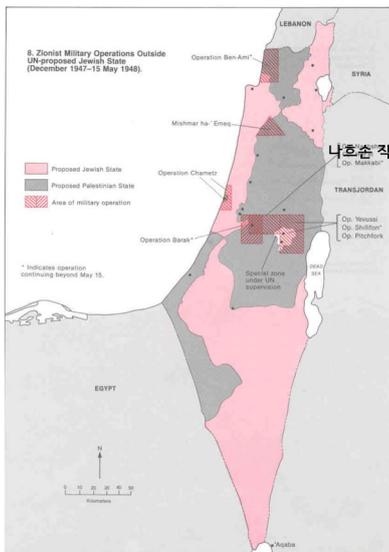
데이비드 벤 구리온

- 1937년 여름 유대기구(Jewish Agency for Palestine, 임시정부) 의장 데이비드 벤 구리온(David Ben-Gurion)은 텔아비브 하가나 사령관 엘리멜렉 슬리코위츠 (Elimelech Slikowitz, Avnir)에게 **“영국 철수 이후, 팔레스타인 전역 장악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 1937년 7월, 영국의 필 위원회 분할안: 유대국가, 할당된 팔레스타인+트랜스요르단->아랍국가, 예루살렘+베들레헴+자파->영국위임통치 분할안에 대한 대응).
- 하가나가 벤구리온의 지시를 발전시켜, 1948년 3월 10일 최종안, 달레트 계획을 내놓았음. **달레트 계획(1948년 4월~5월)은 1948년 위임통치팔레스타인 전역을 유대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시온주의자들의 군사 계획임.**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국가 초대총리로 하가나를 비롯한 다양한 유대 무장단체를 이스라엘 국가 방위군으로 통합시켜 1948년 전쟁을 주도함.
- 1947년 11월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분할하기로 투표하기 직전, 벤구리온은 팔레스타인 안팎의 유대인 단체들을 비밀리에 동원, 유럽에 파견하여 다음 단계를 위해 방대한 양의 무기 구입. 팔레스타인 마을 정복 및 주민 추방 계획
- 달레트 계획(PlanA-1945년 2월, PlanB-1947년 5월, PlanC-1947년 11월)은 아랍인 마을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추방하거나, 저항할 경우 살해하는 13개 작전들로 구성. 그 중 8개 작전은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가 유대국가로 할당한 범위 밖에서, 아랍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수행됨.
- 이스라엘 건국에 앞서 미래의 유대국가 영역에서 인증청소: 달레트 계획이 6주에 걸쳐 실시된 결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공동체 대다수가 붕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유대인은 1,253명(민간인 500여명), 유대인들에게 죽거나 내쫓긴 아랍인은 25만~30만 명.

Plan Dalet and The NAKBA, <https://www.1948.org.uk/plan-dalet-and-the-nakba/>

▷ **1948.04~05. 달레트 계획과 나크바, 시온주의 무장 단체 작전 지역**

: 달레트작전이 끝날 무렵, 하가나는 모든 아랍인의 재산을 이슈브(유대 공동체)가 처분하도록 위임 받은 '버려진 아랍 재산 위원회(The Committee For Abandoned Arab Property)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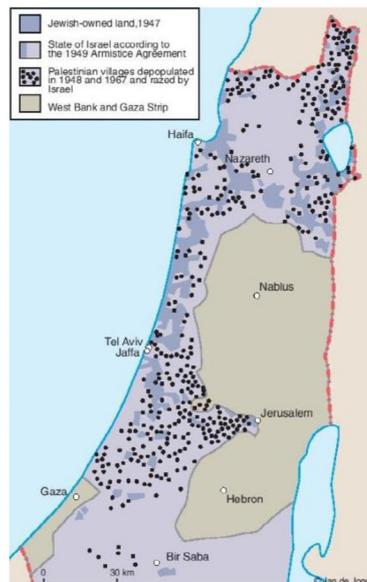


나호순 작전-데이브 야신 학살

Plan Dalet and The NAKBA, <https://www.1948.org.uk/plan-dalet-and-the-nakba/>

▷ **1947~1949년 시온주의 무장단체 및 이스라엘군대 작전**

: 774개의 아랍 도시와 마을 장악, 531개 파괴, 51~70건 학살사건으로 15,000명 아랍인들 살해



PASSIA. LAND OWNERSHIP IN PALESTINE AND THE UN PARTITION PLAN - PALESTINIAN DEPOPULATED AND DESTROYED VILLAGES, 1948-1949. [PASSIA - MAPS - Palestine - LAND OWNERSHIP IN PALESTINE AND THE UN PARTITION PLAN - PALESTINIAN DEPOPULATED AND DESTROYED VILLAGES, 1948-1949](https://www.passia.org.uk/maps/Palestine-LAND-OWNERSHIP-IN-PALESTINE-AND-THE-UN-PARTITION-PLAN-PALESTINIAN-DEPOPULATED-AND-DESTROYED-VILLAGES-1948-1949)

▷ 달레트 계획- 나흐손 작전(Operation Nachshon)

-> 4월 9일, 데이르 야신 학살

압드 알 카디르 알 후세이나: Holy War Army



- 1948년 4월 5일~16일 나흐손 작전은 달레트 계획의 첫 번째 단계. 1948년 3월 말경 압드 알 카디르 알 후세이나(Abd al-Qadir al-Husayni, 1907~1948.04.08.) 부대는 시온주의자 보급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막음. 데이비드 벵구리온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나흐손 작전 시작 (Morris 2008, 116).
- 4월 8일 압드 알 카디르 알 후세이나는 Qastal을 방어하던 중 전사함. 그의 전사로 그의 부대는 사기가 꺾였고, 대예루살렘 지역의 나머지 모든 마을들이 순식간에 유대 군대의 수중으로 넘어감.
- 나흐손 작전의 일부로 4월 9일 발생한 데이르 야신 사건은 250명 학살사건, 이르쿤, 레히, 하가나, 팔마흐가 협력한 이 학살은 데이르 야신 마을이 하가나와 불가침 협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됨.
- 팔레스타인 나크바의 핵심, 약 70명의 마을 주민 대부분은 채석장 노동자들, 이들은 하가나 (2만 1천명)와 불가침 협정을 맺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자비하게 학살됨. 팔레스타인 아랍 자치 지도자인 라시드 알 하지 이브라힘Rashid al-Haj Ibrahim은 "데이르 야신 학살은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커다란 공포를 유발하는 공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예루살렘 근처 데이르 야신 사건 이후, 난민들의 흐름은 홍수가 되었다.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전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자파, 하이파 등지에 있는 고향을 떠남(Eugene 2012, 330).
- 일란 파페에 따르면, 나흐손 작전은 다양한 유대 군사 조직이 하나의 군대로 함께 행동하기 위한 첫 번째 작전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군대(IDF)의 토대가 됨(Pappe 2006, 91).

WALID KHALIDI(1977). REVISITING THE UNGA PARTITION RESOLUTION,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XXVII, no. 1 (Autumn)https://www.palquest.org/sites/default/files/Revisiting_the_UNGA_Partition_Resolution-Walid_Khalidi.pdf 1997), p.7.
 Morris, Benny(2008). *1948: a history of the first Arab-Israeli war*. Yale University Press, 116
 Eugene Rogan (2012). *The Arabs: A History - Third Edition*, Penguin, p. 330
 Pappé, Ilan(2006). *The Ethnic Cleansing of Palestine*. Oneworld. p. 91.

□ 벵구리온의 유대국가건설 전쟁 계획: 달레트 계획 Plan Dalet (1948년 3월 10일)

▷ 목표

- 유엔 총회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 181호(1947.11.29, 미국 및 소련 주도)가 정한 경계 넘어 전쟁: 유대국가 외부 또는 유대국가 내부 기지에서 활동하는 정규, 준정규 및 소규모 병력에 맞서 유대국가 국경 밖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촌 및 유대인 집중 지역을 장악 목표

▷ 적

- 아랍연맹과 제휴한 해방군 Arab Liberation Army: 1947~1949, 다마스쿠스, 6천명, 아랍연맹이 Arab High Committee의 Holy War Army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
- 트랜스 요르단의 정규군: the Arab Legion, 1920~1956, 트랜스요르단, 요르단, 1949년에 12,000명 정도, 사령관: 1920~1939 프리데릭 피크; 1939~1956 존 글럼; 1948년 10월 3일, 요르단은 the Arab Legion에게 Holy War Army를 포위하고 강제 무장 해제 명령
- 팔레스타인 아랍인 Abd al-Qadir al-Husayni가 이끄는 Holy War Army: 1947~1948, 1949년 5월 해체; 팔레스타인, 1,300명 정도

▷ 작전목표

-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웃 국가에 있는지 관계없이. 적의 영토 중심부에 있는 적의 기지와 보급선에 대해 사전 계획된 반격. 다수의 주요 교통로에 있는 중요한 고지를 점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유대국가 국경 내와 국경 밖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군사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보.
- 적이 공격을 개시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의 영토 내에 위치한 최전선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음. 이것은 최전선 지역을 점령하고 통제함으로써 달성.
- 적국 내의 특정지역에서 적의 일부 활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적의 도시들을 포위 공격하여 적에게 경제적 압력. 제한된 작전을 수행하여 적의 능력을 억제한다. 즉, 적국의 국경 내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적의 기지를 점령하고 통제.

Jewish Virtual Library, *Israeli War of Independence: Plan Dalet(March 10, 1948)*,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plan-dalet-for-war-of-independence-march-1948>

UNITED NATIONS PALESTINE COMMISSION, 유엔 팔레스타인 위원회
 Communication Received from United Kingdom Delegation Concerning Jewish Attack
 on Arab Village of Deir Yassin, 20 April 1948, 데이르 야신 아랍 마을에 대한 유대인 공격과
 관련하여 유엔 주재 영국 대표단으로부터 받은 통신, 1948년 4월 20일.

- 데이르 야신 작전은 스텐 그룹 등의 연합 민족주의 무장단체가 하가나와 함께 수행.
- 약 250명의 아랍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죽음은 매우 잔학한 상황에서 발생
- 여성과 아이들은 옷을 벗기고, 줄을 서고, 사진을 찍었으며, 자동 사격에 의해 학살되었고, 생존자들은 믿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함.
-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야만적으로 다루어짐.
- 4월 11일 데이르 야신을 방문한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한 동굴에서 약 150명의 아랍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의 시체가 쌓여있는 것을 봤고, 다른 곳에서 50구의 시체가 추가로 발견됐음.

<https://www.un.org/unispal/document/auto-insert-211346/>

▷ 달레트 계획-하이파 전투(Battle of Haifa): 영국군과 협동 공격

- 1948년 4월 21~22일에 있었던 하이파 아랍지역에 대한 하가나의 총공격
- 하이파 전투는 1948년 4월 21~22일에 발발한 Moshe Carmel이 지휘하는 하가나의 작전이자 팔레스타인 내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요 사건이었으며, 1948년 이집트-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어짐. 하이파 전투 작전의 목적은 아랍 지역인 하이파를 점령. 이 작전으로 하이파 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되고 탈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약 1만 5천 명의 아랍 주민들이 실랑민이 되었고, 분쟁 이전에 6만 5천 명~7만 명이던 아랍 주민들이 5월 중순경에는 4천명만 도시에 남았다(Morris 2004, 86).
- 일란 파페에 따르면 1948년 4월 22일, 3인치(76mm) 박격포를 사용하여 옛 시장에 있던 팔레스타인 군중에 대한 공격으로 절정에 달함(Pappé 1992, 72; Pappé 2006, 96; Morris 2001, 37~59).
- 이 공격은 하가나 최고 사령부와 하이파에 본부를 둔 영국 최고 사령관인, 제6 공수 사단장 H.C. 스톡웰(Hugh Charles Stockwell) 소장 사이에서 밀접하게 조직(스톡웰은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영국군 철수를 책임졌음. 제6 공수 사단의 본부는 하이파 소재)
- Stockwell told the Arab leaders: “당신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당신들은 유대인의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그들은 충분히 공정하다. 생명이 분별없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오. 결국, 싸움을 시작한 것은 당신이었고, 유대인이 이겼다” You have made a foolish decision...Think it over, as you'll regret it afterward. You must accept the conditions of the Jews. They are fair enough. Don't permit life to be destroyed senselessly. after all, it was you who began the fighting and the Jews have won”(Karsh 2002, 47).

<https://www.palestine-studies.org/sites/default/files/attachments/jps-articles/haifa.pdf>

하이파 전투에 대한 재검토: 1948년 하이파의 아랍인 추방, *The Arab-Israeli Conflict: A History of the Problem Revisi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6.

Pappé, Ilan (1992). *The Making of the Arab-Israeli Conflict 1947-1951*. I.B Tauris, 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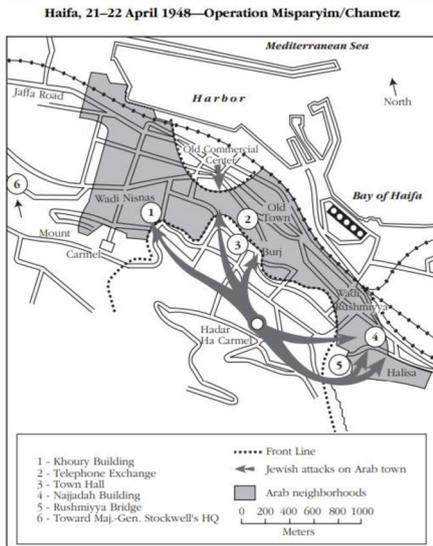
Pappé, Ilan (2006). *The Ethnic Cleansing of Palestine*. Oneworld, p.96

Morris, Benny (2001). "Revisiting the Palestinian exodus of 1948", in *The War for Palestine: Rewriting the History of 19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59.

Karsh, Efraim (2002). *The Arab-Israeli conflict : the Palestine War 1948*. Oxford: Osprey, p. 47

▷ 달레트 계획- 하이파 전투(Battle of Hai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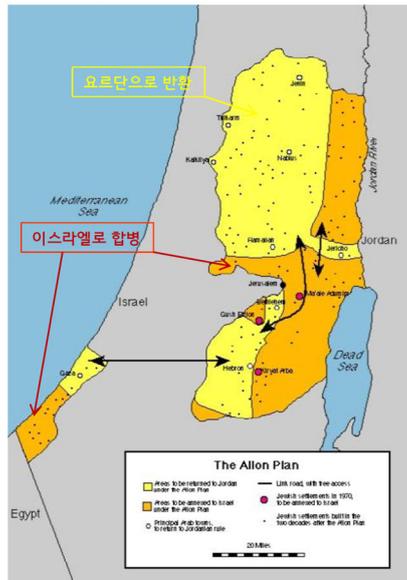
- 1948년 4월 21~22일, 하가나 작전,
- 1948년 아랍 전쟁으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내전의 마지막 단계



WALID KHALIDI(2008, spring). SPECIAL FEATURE THE FALL OF HAIFA REVISITED,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XXXVII, No. 3 (Spring 2008), p.45. <https://www.palestine-studies.org/sites/default/files/attachments/jps-articles/haifa.pdf>

□ 1967년 7월 알론 계획

- : 노동부 장관 이갈 알론에 의해 작성된 알론 계획: 1967년 7월 말에 내각에 제출된 계획
- : 인구적 측면 때문에, 서안과 가자를 이스라엘에 완전히 합병하는 것을 배제.



"The Allon Plan" put forth by Yigal Allon. Source: Dartmouth University.

Jewish News Syndicate(2020, July 01). *The Allon Plan: Then and now*, Hussein of Jordan on Sept. 27, 1967. Hussein rejected it out of hand as "insulting.", <https://www.ins.org/the-allon-plan-then-and-now/>
PASSIA, THE ALLON PLAN, JUNE 1967, [PASSIA - MAPS - Palestine - THE ALLON PLAN, JUNE 1967](https://www.passia.org/maps/Palestine-THE%20ALLON%20PLAN%20JUNE%201967)

□ 1979년, 1994년 이스라엘 국경 확정 협정

- 1979년 카터 중재,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확정 협정: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은 이집트와 **영국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의 경계**
- 1994년 클린턴 중재, 이스라엘-요르단 국경 확정 협정: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국경은 요르단과 **영국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경계.**

▷ 영국위임통치 팔레스타인(1922~1948)



□ 2023.09.22. One State, Israel: 네타냐후 78차 유엔 총회 연설, 새로운 중동-팔레스타인 없음

Netanyahu Shows Map of 'New Middle East'— Without Palestine—to UN General Assembly

By admin | September 23, 2023 | Uncategorized



□ 이스라엘 정치인들: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 및 추방 예고

- 1970. 총리 골다 메이어 “팔레스타인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 1921~1948년까지 나는 팔레스타인 여권을 갖고 다녔다. 내가 팔레스타인이다”
- 1982. 총리 메나헴 베긴 “팔레스타인인들은 두 다리로 걷는 짐승들”
- 2013. 이스라엘 랍비&의회의원 엘리 벤 다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동물과 같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 2019.02.25. 국가안보부 장관: 내무+공안+국경/서안지구 경비업무 총괄 벤 그비르,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추방되어야 함”
- 2023.03.19. 파리, 우파유대인단체모임에서 서안지구 행정업무 총괄 및 이스라엘재무장관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20세기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후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은 것은 없었다. 누가 팔레스타인인지 아느냐? 내가 팔레스타인이다” 그는 위임통치 팔레스타인, 요르단 및 시리아와 레바논 일부를 포함하는 소위 “Greater Israel”의 지도로 장식된 연단에서 연설.
- 2023.08.23. 이스라엘국가안보부장관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부 장관: 내무+공안+국경/서안지구 경비업무 총괄, 20세기 이라크 출신 이주민 후손) “**유대야와 사마리아(서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동 권리는 아랍인들의 이동 자유보다 더 중요**”



Prime Minister Golda Meir on British TV (1970)



2023.03.19. 베잘렐 스모트리치



ALJAZEERA.COM

Ben-Gvir says Israeli rights trump Palestinian freedom of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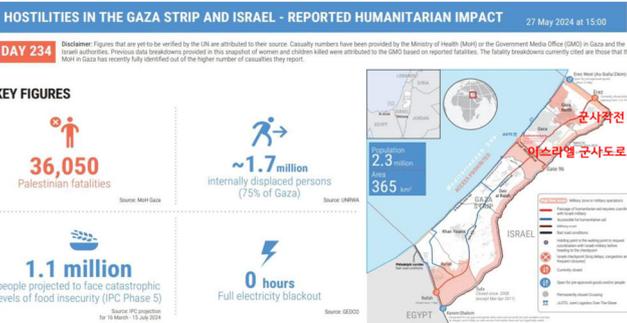
Minister's comments slammed online, seen as an open admittance of Israeli apar...

2023.08.23. 벤그비르

Prime Minister Golda Meir on British TV(1970). <https://www.instagram.com/p/CybCqOKLJUD/>
<https://mondoweiss.net/2023/03/in-paris-speech-israel-finance-minister-bezalel-smotrich-claims-palestinians-dont-exist/>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3/03/paris-israels-smotrich-says-palestinian-people-dont-exist-them-fictitious-fixz7wV8CSFIY>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0322-israel-officials-fear-smotrichs-palestine-statements-could-damage-ties-with-egypt-jordan>
<https://www.aljazeera.com/news/2023/8/24/ben-gvir-says-israeli-rights-trump-palestinian-freedom-of-movement?fbclid=IwAR20RnAccEgglLWwN0NB4VwuI7W05ThVXfWRNtH9P6gUK2j8Q5JMjYl8K5U>

□ 2024.05.27. UNOCHA 피해 보고서(234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기간)

▷ 가자 지역내 팔레스타인 측 피해



2023.10.07~2024.05.27. 팔레스타인 측 피해

- 가자 지역 확인 사망자: 36,050명(어린이 15,000명 이상, 여성 10,000명 이상, 구급대원 및 의료진 492명, 유엔직원 153명, 기자 200명 이상)
- 실종: 약 1만 명.
- 국내 실항민: 약 170만 명~190만 명(가자 주민의 75% 이상)
- 주거용 건물 60% 파괴(출처: World Bank, 2024.01)
- 상업시설 80% 파괴(출처: World Bank, 2024.01)
- 155개 보건시설 파괴(출처: MoH Gaza).
- 174개 UNRWA 시설 파괴(출처: UNRWA)
- 130대 구급차 파괴(출처: MoH Gaza).

▷ 이스라엘 측 피해



2023.10.07.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내 피해(외국인 포함)

- 사망자: 약 1,200명 이상 사망(보안대원 373명, 어린이 33명)
- 부상자: 5,400명 부상
- 인질: 252명

2023.10.27~2024.05.27 가자지구 내 지상작전

- 명분: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
- 군인: 287명 사망, 1,801명 부상
- 05.27. 현재 남아있는 인질: 125명

2023.11.10. 총리 네타냐후

가자점령계획 발표

- 가자 전쟁 종결 이후, 국제군 배치 거부,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통제할 것.

UNOCHA(2024, May 27). Hostilities in the Gaza Strip and Israel - reported impact | Day 234. <https://www.ochaopt.org/content/hostilities-gaza-strip-and-israel-reported-impact-day-234>
 CNN(2024, May 14). UN says total number of deaths in Gaza remains unchanged after controversy over revised data. <https://edition.cnn.com/2024/05/13/middleeast/death-toll-gaza-fatalities-un-intl-latan/index.html>
 Netanyahu says IDF will control Gaza after war, rejects notion of international force. 2023. 11. 10. <https://www.timesofisrael.com/status/172302296179523789> <https://www.timesofisrael.com/netanyahu-says-idf-will-control-gaza-after-war-rejects-notion-of-international-force/>

□ 2023.10.07.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작전(AI-Aqsa Flood)'

- 2007년 이후 완전히 봉쇄당한, 하늘만 뚫린 가자 지구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와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중, 지상, 해상공격을 실행. 하마스는 이번 작전이 "점령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 습격과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지속적인 봉쇄"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힘.

□ 2023.10.07. 이스라엘의 '철의 검 작전(Operation Swords of Iron)'

- 2023.10.07. 가자 지구 폭격 시작. 선언한 전쟁 목표: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
- 2023.10.08.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 피난 요구: 이스라엘총리 네타냐후는 가자주민들에게 "지금 떠나라,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다. 하마스와 관련된 장소를 폐허의 섬으로 만들 것이다."이스라엘군 대변인 리처드 헤르트 중령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가라. 라파 국경은 열려있다."

• 2023.10.09. 집단 학살 선언

: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가자 '완전 봉쇄' 발표: 전력, 식량, 연료 없음. 우리는 인간 동물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음" 명령



MEMO(2023, Oct. 12). Lessons from resistance history far and near: Hamas and the unthinkable.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1012-lessons-from-resistance-history-far-and-near-hamas-and-the-unthinkable/>
 AA(2023, Oct. 12). No electricity, water, fuel for Gaza until Israeli prisoners return home' Energy minister. <https://www.aa.com.tr/en/world/no-electricity-water-fuel-for-gaza-until-israeli-prisoners-return-home-energy-minister/>
 MEMO(2023, 10. 24). 'Human Animals': The sordid language behind Israel's genocide in Gaza.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1024-human-animals-the-sordid-language-behind-israels-genocide-in-gaza/>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foreign-minister-at-war-says-idf-will-control-gaza-after-war-rejects-notion-of-international-force/
 2023. 10. 15. <https://www.bbc.co.uk/news/world-middle-east-67114281>
 The Times of Israel(2023, 10. 09). Defense minister announces 'complete siege' of Gaza.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defense-minister-announces-complete-siege-of-gaza-no-power-food-or-fuel/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W0inBUq8>

- 2023.10.13. 이스라엘군, 유엔에게 24시간 안에 북부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110만 명 와디 가자 남부로 대피 요청 통보
- 2023.10.13. 요르단국왕 압둘라 2세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면 안 됨. 위기가 주변국 확산, 난민문제 악화"
- 2023.10.13. 팔레스타인수반 압바스 "가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제2의 나크바'"
- 2023.10.14. 전임 주미이스라엘 대사, 데니 아얄론 "이집트 시나이 사막에 가자 주민들을 위한 '끝없는 공간'이 있으며, 그들을 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함. 이스라엘은 가자주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인도주의 통로 설치 원함."
- 2023.10.18. 이스라엘 외무장관, 엘리 코헨은 군대라디오 인터뷰 :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자 지구의 영토는 줄어들 것.
- 2023.10.27. 전면적인 가자 지상전 시작



□ 2023.10.15. 이집트, 라파 건널목 무기한 폐쇄, 가자 국경 콘크리트 장벽 강화

2023.10.15. 이집트, 라파국경 무기한 폐쇄, 가자 국경 콘크리트 장벽 강화



Middle East Monitor 2h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1014-israeli-diplomat-theres-endless-space-in-egypts-sinai-desert-for-gazas-civilians/?fbclid=IwAR08P5-e0oE1Fa5wEb5a6csE1hrhtwV0207viEMBZTIX1dpB4176YUJNVk>
<https://www.newarab.com/news/stranded-palestinians-take-refuge-egypts-north-sinai>

▷ 2023.10.10. 이집트대통령 알 시시

: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시나이 지구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집트의 국가안보가 최고에 위치, 이집트의 안보를 희생시켜 팔레스타인 문제 청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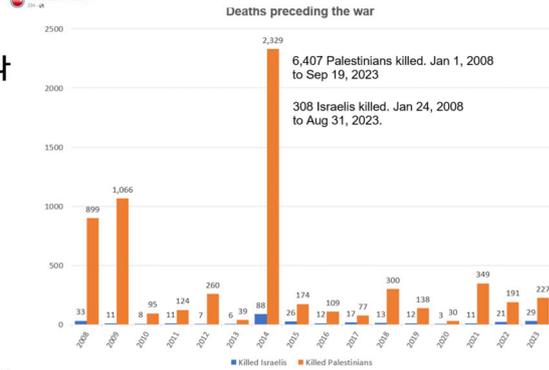
□ 2023.10.07~2024.05.16 서안 분쟁, 팔레스타인측 피해

- 사망 502명, 부상 4,950명, 실향민 3,985명, 체포 8,088명, 건물파괴 648채
- 2023.10.07.~19. 서안 C 지역 소재 13개 베두인 공동체에서 최소 74가구, 545명 추출



□ 2008~ 2023.09. 약 15년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사망자(서안+가자)

-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6,407명
- 이스라엘 사망자: 308명



<https://www.ochaopt.org/content/hostilities-gaza-strip-and-israel-flash-update-14>
 Israel-Palestine Timeline(2024). The Human Cost of the Conflict, <https://israelpalestinetimeline.org/>
 Al Jazeera(2024.May16). Israel kills more than 500Palestinians in the West Bank since October 7, <https://www.aljazeera.com/news/2024/5/16/israel-kills-more-than-500-palestinians-in-the-west-bank-since-october-7>
 zt8Yr9IeQHDmAD1NUH4uLCNPIH52NkWvj6Qe8C1TUyO6lNkdbY

□ 2024.05.30.(237일차). ‘필라델피 회랑’ 확보: 가자지구 완전 포위.

- 이스라엘 가자 필라델피 회랑(14km, 20~50개 터널) 완전 장악 :
-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국경협정 협정 때 안보상의 완충지대로 설정
- 2005년 이스라엘의 가자 철수 이후,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살라딘(필라델피 회랑)관리.
- 이집트 고위 관계자는 자국 국영 알카헤라 뉴스에 “필라델피 회랑 내 땅굴은 없다”며 땅굴의 존재를 부인한 뒤 “이스라엘은 라파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자 이러한 혐의(회랑 내 하마스 땅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 5월 30일 라파는 텅빈 도시: 120만 명 칸 유니스나 안전지대로 대피(이스라엘 라파 공격 3주 만에)
-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남부 국경을 장악하면 가자 지구 포위가 완료, 이는 분쟁 이후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



The New York Times(2024.05.30). What Is the Philadelphi Corridor, and Why Does It Matter, <https://www.nytimes.com/2024/05/30/world/middleeast/what-is-the-philadelphi-corridor.html>
 The Telegraph(2024.05.30). Egypt warns it is 'ready to respond' after Israel's seizure of Philadelphi corridor, https://www.yahoo.com/news/israel-seizes-philadelphi-corridor-buffer-09432425.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Y3R5Z2xkLnVudS8&guce_referrer_sig=AQAAADQSPdoDfYs15NuX_hdmPqHTRJNM9nEHZKHqppSsONG1c88Vt-79BaKz3e3d_jmHdJfBmktL5UPCC-G0TnMlUwGdJpGzQzR4drlwJz-byGf77M4ETGL9YZAE-WWUkSetJDbdsiVNDJqWZRz6Z5AaJ85PU-4
 Daily News(2024.05.30). Israel takes control of Philadelphi Corridor along Gaza-Egypt border, <https://www.dailynewsegypt.com/2024/05/30/israel-takes-control-of-philadelphia-corridor-along-gaza-egypt-border/>
 Jerusalem Center for Public Affairs(2023.Dec.28). Securing the “Philadelphi Corridor”: A Strategic Imperative for Israel, <https://jcpa.org/securing-the-philadelphi-corridor-a-strategic-imperative-for-israel/>
 MEMO(2024.01.25). Hamas: Egypt's position on the Philadelphi Corridor shows its support for Palestinians,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40125-hamas-egypts-position-on-the-philadelphia-corridor-shows-its-support-for-palestinians/>

□ : 시나이가 가자를 대체할 것인가?

- 2023.10.25. 1,6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이집트의 외채를 털고, 2030년까지 연장되는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확보 가능. 지난 10년 동안 the local branch of Daesh에 대한 전쟁을 명분으로 북부 시나이(Sheikh Zuweid, Egyptian Rafah)가 사실상 비어 있음. 이집트 라파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대안, 가자를 비우면서 가자 지구를 이집트로 확장. 2005년에 1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시나이로 건너갔었고, 2008년에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와 가자의 장벽을 넘어 시나이로 넘어와 식량과 연료를 얻어갔음, 이 경우 팔레스타인인들은 일주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음. 이스라엘군의 수석 대변인인 리차드 헤르트 중령은 "라파 횡단은 아직 열려 있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나가라고 조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계획을 솔직하게 발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걸프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이집트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 이집트 공식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the Mada Masr website), 북부 시나이 주지사가 이집트 Rafah and Sheikh Zuweid에 텐트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정치학자 Hamdi Al-Masry는 "이집트 국가와 기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 시시가 이 계획의 실행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강조**(MEMO 2023.10.25).
- 2017년 6월 24일 대통령 파타 알 시시가 홍해의 티란과 사나피르 섬이 보조금과 원조 패키지를 받는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 협정 승인, 관측통들은 이집트 관리들이 유사하게 재정착 거래에서 지불될 대가에 대해 침울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동의(Reuters 2017. Jun.25).
- 2020.01.20. 2019년 11월, 알 시시 대통령은 포트사이드와 북 시나이에서 많은 국가 프로젝트 발주, 2020.01.11. 포트사이드 동쪽 소재 '살람 시티Salam City'는 북부 시나이에 건설될 4개 도시 중 하나이며, 담수화 공장, 항구, 요트 시설, 호텔 리조트, 비즈니스 파크, 공항, 패션시티, 대학 및 연구 센터 등 포함 비즈니스 중심지로 계획, 시나이 최초의 백만 도시 계획(Egypt Today, 2020.01.11)
- 2024.04.17. 이집트, 북부 시나이 가자 경계에 '신 라파 도시' 개장 준비: '뉴라파New Rafah' 도시는 400채의 베두인 주택 이외에 1만 채 이상의 주택과 현대도시 설비 갖춘. 현재 비어 있음. 2018년 북부 시나이에 지역에 라파 신도시와 살람 도시 건설 계획을 밝힌 것은 주목할만한 일임(Northern Africa News, 2024.04.17).

MEMO(2023.10.25). Sinai as an alternative to Gaza: Who is funding this? Who is passing the deal,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1025-sinai-as-an-alternative-to-gaza-who-is-funding-this-who-is-passing-the-deal/>
 The Cradle(2024.02.26). Will Egypt accept Palestinian displacement in exchange for debt relief? <https://thecradle.com/articles/id23603>
 International Crisis Group(2024.05.16). Egypt's Gaza Dilemmas, <https://www.crisisgroup.org/middle-east-north-africa/israel-palestine/991-egypts-gaza-dilemmas>
 Reuters (2017. Jun.25). Egypt's Sisi ratifies deal ceding Red Sea islands to Saudi Arabia, <https://www.reuters.com/article/us-egypt-saudi-islands/egypts-sisi-ratifies-deal-ceding-red-sea-islands-to-saudi-arabia-idUSKRN19F0KE/710>
 Northern Africa News(2024.04.17). Egypt prepares to open 'New Rafah City' on the border with Gaza, <https://naa.medial/en/egypt-prepares-to-open-new-rafah-city-on-the-border-with-gaza/>
 Egypt Today(2020.01.11). What to know about Sinai's 1st million city 'Salam', <https://www.egypttoday.com/Article/1/79535/What-to-know-about-Sinai%E2%80%99s-1st-million-city-Salam>

□ 이집트는 이미 북부 시나이를 비워 놓았음

▷ 2019.05.28. 목숨이 두려우면, 시나이를 떠나라, 이집트 정부군과 ISIS연계 세력이 주민 공격!

- 2011년부터 이집트 군과 경찰은 북 시나이에서 ISIS와 연계된 무장 세력이 전투. 2013년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분쟁이 격화되면서, 2019년 5월까지 군대는 의심스러운 주민 수천 명 임의 체포, 수백 명이 실종. 임의 체포 및 실종된 주민들은 무장 세력이 가장 활동적이던 Rafah, Sheikh Zuwayed, al-Arish 및 그 주변 마을들 출신. 정부는 북부 시나이에서 수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고 중화기, 해군 함정, 군용기를 사용. 북시나이 대부분에 비상사태와 통행금지령. 군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들 체포.
- 2013년 이후 이스라엘은 조약 규정을 넘어 이 지역에 이집트 군대의 증강을 허용, 언론 보도와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군을 돕고 IS 계열 무장세력에 대한 공습에 참여.
- 2013년 7월 이후 최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 **이전에 50만 명 정도 거주했던 북 시나이 지역은 더 많은 ISIS연계 세력의 폭력을 두려워하거나 군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주민들로 유명 도시로 변했음**(HRW 2019. May 28).

- 시나이 반도 소재 주요 3개 구치소
 : Sheikh Zuwayed 소재 al-Zohor 수용소,
 : al-Arish 소재 101 대대 수용소,
 : 이스마일리아 소재 Al-Azoly 군교도소



- 2017년 11월 25일 이 사진: ISIS와 연계된 무장 괴한들이 수백 명의 예비자들을 공격하여 살해, 북부 시나이 Bir al-Abd 소재, Al-Rawda Mosque 밖에 버려진 희생자들의 신발. 이 무장 단체는 민간인들을 자주 공격.



HRW(2019. May 28). If You Are Afraid for Your Lives, Leave Sinai, <https://www.hrw.org/report/2019/05/28/if-you-are-afraid-your-lives-leave-sinai/egyptian-security-forces-and-isis>

▷ 이집트, 시나이 주택 철거 강화: 가자와 이집트 완충지대 주변 주택과 농지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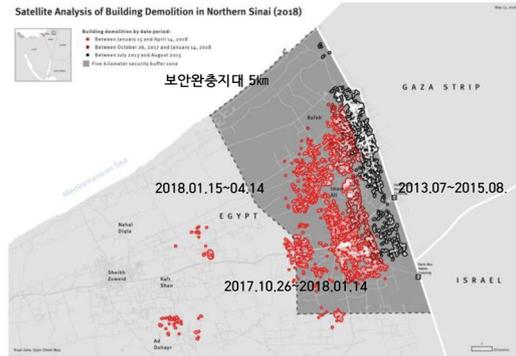
- 2018.05.22.이집트군은 2018년 2월 9일부터 IS 연계세력 소탕작전으로 북 시나이 소재 주택, 상업용 건물, 농장의 광범위한 파괴. 수백 헥타르의 농지와 최소 3,000채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과 1월에 파괴된 600채의 건물을 포함한 새로운 파괴는 2014년 군대가 공식적으로 퇴거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

이러한 파괴행위는 알 아리시와 라파시에 있는 정부가 지정한 안보 완충 지역 두 곳을 훨씬 넘어 확대. 군대는 알 아리시에 있는 몇몇 집들을 파괴, 이는 테러 용의자들, 정치적인 반체제 인사들과 그들의 친척들에 대한 보복.

2018.03. 이집트군이 용의자에 대한 '보복' 으로 엘 아리시 소재 주택 철거



2018년 가자-이집트 완충지대 파괴 위성 사진 분석
2013.07~2015.08.
2017.10.26~2018.01.14
2018.01.15~04.14



HRW(2018. 05. 22). Egypt: Army Intensifies Sinai Home Demolitions, Destroys Homes, Farmland Around 'Buffer Zones', <https://www.hrw.org/news/2018/05/22/egypt-army-intensifies-sinai-home-demolitions>
VOA(2018.05.22). Group: Egyptian Army Intensifies Home Demolitions in Sinai, <https://www.voanews.com/a/group-egyptian-army-intensifies-home-demolitions-in-sinai/4404618.html>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제1부 1분과: 정치·경제·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 정치경제 질서 재편과 한국의 전략

[좌장]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군사적 측면
김은비 (국방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포스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구상
마영삼 (고려대학교)
- Realist Perspectives on the 2023 Israel-Hamas War: Analyzing the Conflict through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걸프 국가 인식 차이 분석: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미디어 보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군사적 측면

김은비 (국방대학교)

한국중동학회 (24. 6. 1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군사적 관점

국방대학교 김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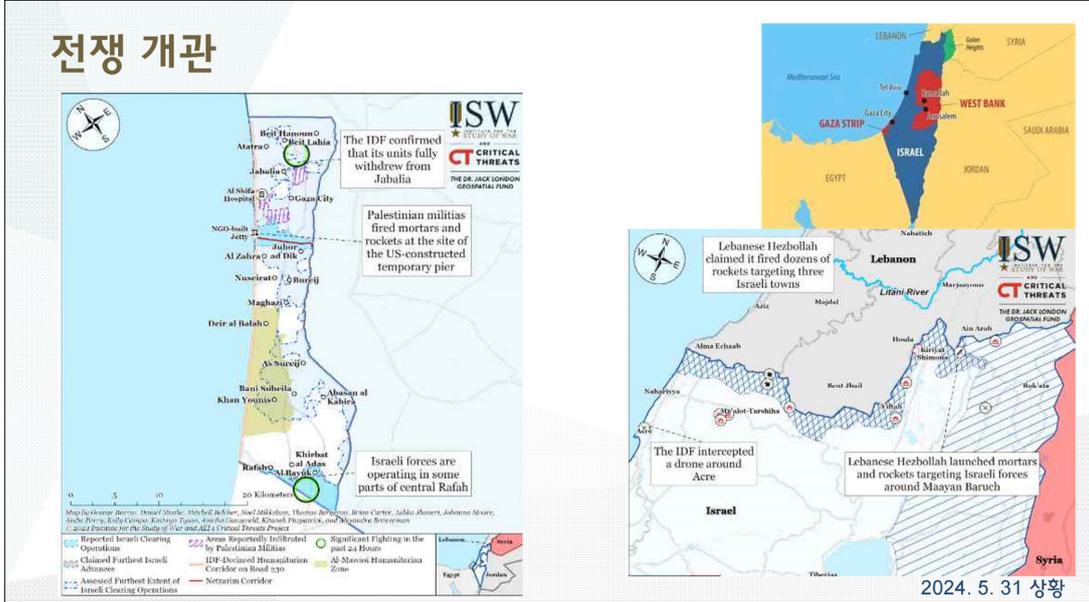


전쟁 개관

- ◆ 전쟁개시 8개월, 양측 사망 3.7만 명+
 - 기록적인 기간, 피해, 인질 130여명
- ◆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 심각
 - 1월까지 인프라 피해 185억달러(GDP 97%)
 - 가자 지구 전체 주택의 약 62% 파괴(World Bank, 2024. 3)
 - 불발탄 등 막대한 양의 잔해 제거에 약 14년 소요 예상(유엔 지뢰행동국)



전쟁 개관



전쟁 개관

- ◆ 2023. 10. 7. 하마스 기습
- ◆ 10. 27. IDF 지상전 시작 → 11. 24. ~ 2023. 12. 1. 휴전
- ◆ 12. 4. 가자 남부에서 첫 대규모 지상 공격 → 12. 12. 바이든, “무차별폭격” 우려 제기
- ◆ 12. 26. 가자 중앙지역 대대적 지상공격
- ◆ 2024. 1. 8 저강도 표적화 전투로 전환/북부지역 병력 전환
- ◆ 1. 27. 친이란 민병대, 타워22 공격으로 미군 3명 사망
- ◆ 4. 1. IDF, 駐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 ◆ 4. 1. WCK, 이스라엘 오폭으로 피해
- ◆ 4. 13. 이란, 드론/탄도미사일 이용 ‘제한적 보복’
- ◆ 4. 19. IDF, 이란 아스파한 내 군기지 공격



군사적 관점에서의 분석 방법

◆ 군사전략

-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할 목적에서 군사력의 건설, 배치 및 운용을 조정하는 술과 과학(Drew & Snow)
-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를 사용하는 것 (클라우제비츠)
- 평시 억제전략: 제재적 억제, 거부적 억제, 총합적 억제
- 억제실패시 방위전략: 전략태세, 방위선, 전쟁기간, 작전방식에 따라 다양
- 전평시 전략: 간접전략, 직접전략, 대칭/비대칭 전략 등 다양

◆ 전술

- 전투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클라우제비츠)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역사

- ◆ 1948 제1차 중동전쟁: 방어적 공세
- ◆ 1956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 선제공격
- ◆ 1967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선제공격
- ◆ 1973 제4차 중동전쟁(옴키푸르 전쟁): 방어적 공세
- ◆ 2006 제2차 레바논 전쟁: 과도한 무력을 통한 응징 보복(다히야 전략)
- ◆ 2008-2009 가자전쟁(캐스트 리드): 과도한 무력을 통한 응징 보복(다히야 전략)
- ◆ 2012 가자전쟁(방어 기둥): 제한적 군사작전
- ◆ 2014 가자전쟁(방어절벽): 과도한 무력을 통한 응징 보복(다히야 전략)
- ◆ 2021. 5. 7.~ 18 알아크사 모스크 충돌

이스라엘의 군사전략

◆ 억제, 선제공격, 최단시간 결정적 승리

- 작은 영토, 짧은 중심, 적에 둘러싸여 있는 안보환경에 기인
- 조기경보 필요

◆ 거부적 억제의 적용과 실패

-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 (양적 우위)
- 4차 중동전 발발로 억제력 실패 증명
→ 안보수정주의(알드보고서) 등장: (공군)화력 중심, 질적 우위
- 국방개혁 연구(2002~2006.4.)
 - “IDF 효과기반 작전” 발표
 - 이란 핵, 비국가조직과의 비대칭 위협 전제, 대량살상무기 대비 전략
 - 첨단 통합 지휘통제 시스템 운용, 정보전에 대한 전략 추구, 정밀화력 보유 제시

이스라엘의 군사전략

◆ 징벌적 억제로의 전환

-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 이후 위협의 변화
(아랍국가 → 하마스, 헤즈볼라 등)
-  헤즈볼라와의 지속적인 소규모 충돌 (IDF, 저항도 분쟁 대응 훈련 위주)
-  레바논 전쟁에서 ‘다히야 전략’(초토화) 적용, 효과중심 작전
→ 억제력 확보, but 헤즈볼라 전멸 실패 + 부수피해로 인한 정치적 비난

이스라엘의 군사전략

◆ 징벌적 억제제의 적용

- IDF, 2006~2008 군사혁신 달성 (위노그라드 위원회)
 - 작전적 측면에서의 변화 동반
 - 효과중심 작전 폐기
 - 부수피해 방지를 위해 정교한 정밀 유도탄 활용
 - 하이브리드전 대비, 사이버공간 활용 선전전
 - 육군+ 공군 합동군사훈련(고강도 대응훈련) 통해 육군 영역 확대
 - 2008 캐스트리드시 하마스 로켓공격 급감(48발/d → 17발/d)
 - 기갑부대에 '속도와 화력'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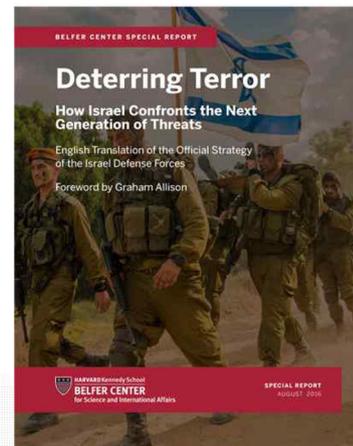
- 2008년 이후의 對 가자 전쟁에도 적용 (2012 방어기동작전 제외)

이스라엘의 군사전략

◆ 징벌적 억제제의 발전

- 2013 테우자 국방개혁안
 - 2011 아랍의 봄 계기
 - 평시-"비상상황"-전시 로 구분: 전쟁간 작전 개념 도입
 - 저강도 전쟁 지속 예상, 조직 슬림화, 더 스마트한 군 지향
 - 기술력 중심 강조, 기갑부대 중심의 대규모 지상군과 예비 병력 감축

- 2015 IDF 전략
 - 전통적 안보 3대 축 "억제, 조기경보, 결정적 승리"에 "방어" 추가
 -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위협 대응 주목
 - "공격적 방어" 능력 향상 천명



이스라엘의 군사전략

◆ 징벌적 억제외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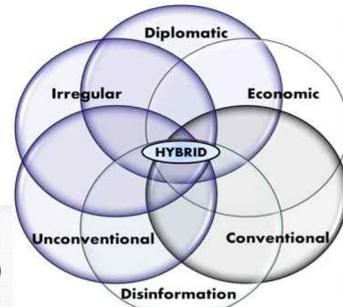
- 2016 기드온 국방개혁안
 - 테우자 계획 연장선, 군 조직개혁(축소) 통한 질적 능력 배가
 - 사이버부대 수립, 최신 해/공군 무기 도입, 무인드론 도입
 -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상정, 가자지구 점령 정당성 강조
 - 사이어영역 작전 범위/사이버 무기 사용범위 확대 ⇨ 'C4I 사이버 방위국' 신설

- 2019 트누파 계획
 - 도심전투, 사이버 전, 장거리 타격 등 다양한 차원의 전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약전장 상정
⇨ 하마스 로켓공격 + 도심테러 + 이란 도발 대비 필요 ⇨ 다차원 복합군으로 구조 개편
 - 아군 부대 사이의 네트워크화된 상황인식 체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원격으로 적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이 필수

2023 하마스 전쟁 수행

◆ 하이브리드 전쟁

- 정규군과 게릴라, 테러분자,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다양한 무기 사용
 - 도시지역과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 재래전, 비정규전, 테러, 범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전쟁
 - 반란/비재래전, 게릴라전/테러리즘, 제4세대 전쟁 등 비정규전의 일부
 - 전시와 평시의 구분 없이 '회색지대'의 공간에서,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국지전
- ※ 전쟁의 문턱 넘을 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효과성 상실 (지효근, 2024)



2023 하마스 전쟁 수행

◆ 하마스의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지효근, 2024)

-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다양한 무기 사용
 - 재래식 로켓, 불도저, 패러글라이딩, 오토바이, 휴대용 무전기, 핸드폰 등의 비첨단시스템 사용
- 복잡한 지형에서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수행
 -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공중침투, 모터보트를 이용한 해상침투, 지상에서는 불도저로 장벽 해체 후 오토바이 침투
 - 짧은 시간 동시다발적 공격 후 신속히 철수하는 벌떼전술 구현
- 군인 및 민간인 불문 공격
 - 전쟁의 문턱 넘는 공격, 국제적 비난 자초 ⇨ 하이브리드 전쟁의 효과성 상실 (지효근, 2024)

2023 하마스 전쟁 수행

◆ 하마스의 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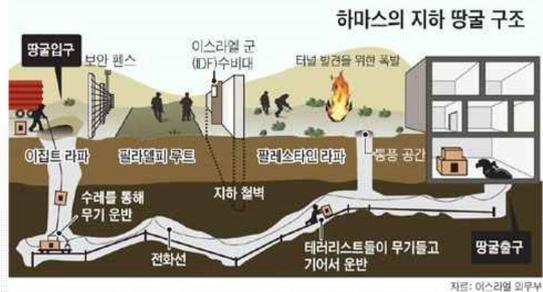
- 하마스, 2년 전부터 공격준비 / 예행연습 실시
- 시간, 방법의 기습 달성
 - 이스라엘의 명절(초막절) 종료 직후 안식일 새벽 06:30에 공격
 -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오토바이, 자동차, 불도저 등 일상적 장비를 이용, 지상, 공중, 해상으로 동시다발적 침투



2023 하마스 전쟁 수행

◆ 하마스의 작전 평가

- 적(IDF) 기만, 의도 은폐 전술
 - 전쟁불원 메시지 발송, 이스라엘 내 취업승인 수 증가 등으로 이스라엘 방심 유도
 - 전자기기 미사용 등 작전기도 은폐
- 치밀한 전쟁 준비
 - 5천발 이상의 로켓포 은폐하 비축
 - 500km 이상의 지하땅굴 네트워크 구축
- 반이스라엘 여론전 수행
 - 이스라엘의 대가자지구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



2023 하마스 전쟁 수행

◆ 하이브리드전쟁의 실패

- 기습의 성공 이후 전과 확대 전략 부재
- 전쟁의 문턱 넘는 공격으로 실패 자초
 - 비인도주의적 학살, 민간인 납치 등으로 국제사회 여론 악화
 - 병원 등 군사목적 사용 금지시설 활용으로 폭격 자초



2023 이스라엘 전쟁 수행

- ◆ 이스라엘의 안보전략 실패
 - 억제, 조기경보, 결정적 승리, 방어
- ◆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 하마스 테러 조직의 군사 및 행정 능력 해체와 인질 구출
- ◆ 이스라엘의 전략
 - 보복적 응징으로 적 전투력 파괴, IDF 피해 최소화
- ◆ 이스라엘의 전술
 - 대규모 공습 이후 지상군 투입
 - 공중, 해상, 포병 화력 지원 하 기갑, 보병, 전투공병 진입
 - 지하 터널 탐색 / 파괴
 - 가자지구 북부(가자시티) 포위/섬멸 → 가자지구 남부(칸유니스) 점령

2023 이스라엘 전쟁 수행 평가

- ◆ 억제의 실패
 - 억제는 이스라엘 전통적 안보 3대 축의 하나
 - 이스라엘 사법개혁에 따른 반정부 시위 등으로 사회적 갈등 고조
 - 레바논 국경, 서안지역 일대로 대비 병력 전환
 - '23. 4. 알아크사 모스크 일대 유대인 대 무슬림 충돌
 - 첨단장비 위주의 방어태세
 - 하마스의 비대칭적 재래식 우회 공격에 취약
 - 아이언 돔, 대량/집중 공격에 대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목차

1.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의 배경
2. 하마스 - 이란 관계
3. 이스라엘 - 이란 관계
4.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배경

-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 영토를 기습 공격하였음.
-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의 중재로 진행 중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협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배경

-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의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시도하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최대 정파인 파타와의 주도권 다툼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하마스가 행동에 나섬.
- 파타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며 급진파인 하마스와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2. 하마스-이란 관계

- 이스라엘의 절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하마스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란과 하마스 관계를 살펴보면 이란과 헤즈볼라 관계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남.
- 하마스는 이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임.

2. 하마스-이란 관계

- 시리아 내전에서 드러났던 이란과 하마스의 입장 차이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이란은 하마스에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지만 하마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시리아 반군을 지지함으로써 이란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反)이스라엘 기조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에게 하마스는 유용한 세력이며 하마스에게도 대(對)이스라엘 투쟁에 필요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란은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

3. 이스라엘-이란 관계



<https://www.aljazeera.com/news/2019/2/1/40-years-on-khomeinis-return-from-exile-and-the-iran-revolution>

-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간의 평화협정인 오슬로 협정(Oslo Accords)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7

3. 이스라엘-이란 관계

-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는 불행한 사람들을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음.
-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힘을 실어주었음.
-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선언하였고 테헤란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에게 제공되었음.

3. 이스라엘-이란 관계



[https://www.presstv.ir/Detail/2024/04/02/722948/Iran-consulate-Israel-attack-](https://www.presstv.ir/Detail/2024/04/02/722948/Iran-consulate-Israel-attack)

- 2024년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고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음.

3. 이스라엘-이란 관계

-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iterates its consistent position that it does not seek escalation or war in the region. While warning about any further military provocations by the Israeli regime,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affirms its unwavering determination to defend its people,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gainst any threat or acts of aggression and to respond to any such threat or aggressions vigorously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Permanent Miss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o the United Nations – April 15, 2024).

3. 이스라엘-이란 관계

- 이란이 확전을 꺼리는 배경에는 이란의 내부 문제가 있음.
- 2018년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현재 이란은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3. 이스라엘-이란 관계



<https://www.arabnews.com/node/2496131/middle-east>

-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재보복을 감행한 것에 대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음.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2

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

- Iran unwaveringly stands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ran is not involved in Palestine's response, as these actions are solely determined by the Palestinians themselves. Palestinians have the freedom to make choices that they believe serve their best interests and to exercise their own judgment in determining their course of action (Permanent Miss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o the United Nations – October 9, 2023).

Joo Ha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3

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

- Certain States must forsake their double standards. If these States genuinely wish to uphold their professed commitment to aiding victims in conflicts, then their assistance must unequivocally prioritize the actual victims rather than those perpetrating aggression, as is the case in other conflicts (Permanent Miss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o the United Nations – October 9, 2023).

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

-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란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내정이 불안한 상황임.
- 이란 정부의 우선순위는 내부 단속과 정권 유지라고 할 수 있음.
-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이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포스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구상

마영삼 (고려대학교)

포스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구상

마 영 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

양측 희생자 수

■ 이스라엘 측 희생자

- (2023.10.7 기습 당시) : 사망 약 1200명, 부상 약 3300명
인질 248명 (현재 약 125명)
- (2024.5.9 현재) 사망: 이스라엘 군인/보안요원 766명,
민간인 834명 (이스라엘 국방부 발표)

■ 팔레스타인 측 희생자

- Gaza: 사망 35,984명, 부상 80,643명(PA 보건부 발표 2024.5.26)
- West Bank: 사망 502명, 4,950명(AI Jazeera 2024.5.16)

가자/팔레스타인 내 피해 상황

- 주택: 370,000 units (out of total 439,000 = 84%) 파손
79,000 units 완전 파괴
학교: 85.8% 파손
- 산업시설: 90%+ 파손
- GDP: 51% 감소 (overall Palestine 26.9% 감소)
- 실업: 200,000 명 이상 실업자 발생(2023년 4분기)
- 빈곤선: 1.80M(=78%) (overall Palestine 58.4%)
- 잔해: 37M tonnes mixed with unexploded ordance.
잔해 제거에만 14년 소요 예상

출처: Assessment by UNDP(2024.5.2); Report by UNDP + ESCWA(2024.5.2); Reuters(2024.5.2),
The Guardian(2024.5.2); 한겨레신문(2024.5.3); YTN(2024.4.7)

국제기구의 역할

- 유엔총회(UNGA)
 - 휴전, 인질석방, 인도적 구호 촉구 결의안 두차례 통과
 - 팔레스타인 유엔회원국 자격부여 결의안 두차례 통과 ---> 구속력?
- 유엔안보리(UNSC)
 - 비상임이사국 주도 결의안 채택(2024.3.25) -- 14:0:1(美)
 - 즉각 휴전, 인질석방, 인도적 구호 --- 구속력(헌장25조), 강제수단?
- 국제사법재판소(ICJ)
 - "Rafah 공격중단" 명령(2024.5.24) --- 구속력, 강제수단?
- 국제형사재판소(ICC)
 - Karim Khan 검사장, 체포영장 청구(2024.5.24)
 - Israel 네탄야후, 갈란트 + Hamas 신와르, 데이프, 하니예
 -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ICC 검사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논란

- ICC 검사장의 논리
 - "no soldier, no commander, no civilian leader can act with impunity. not applied selectively
---> not creating conditions for its collapse"
- 이스라엘
 - " no equivalence
btwn Israel(democratic gov't) and Hamas(terrorists)"
"neo anti-semitism"
- 하마스
 - " equating the victim with the executioner"

출처: Jeremy Bowen, "What the ICC arrest warrants mean for Israel and Hamas", BBC 2024.5.22

- **국제사회 반응**
 - 비난(미, 영, 독, 이) vs. 지지(프, 벨)
 - 美의회 일각에서는 ICC 관계관을 제재하는 법안상정 가능성도 언급
- **체포영장 이행 가능성**
 - 절차: (1) 3명 재판관 결정 (2) 당사국 문제 (3) 강제 수단
 - 효용성: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로마협약 미가입
 - 국가원수에 대한 ICC 영장 발부 사례:
 - 러 푸틴(우크라이나 아동 불법이주), 수단 알바시르, 리비아 카다피
- **ICC에 대한 신뢰도**
 - 효용성: 미래 유사 사례 방지 효과
 - 권위: 판결에 대한 미집행 사례가 축적되는 경우 ICC 권위가 손상

II. Gaza지구의 미래를 위한 구상

I. 미국 입장

- 인질 석방, 인도적 구호를 위한 휴전
- 팔레스타인 주민 피신 없는 Rafah 전면적 공격 반대
- Gaza지구의 미래
 - 이스라엘에 의한 Gaza지구 재점령 반대
 - (전후 과도기를 거쳐) PA에 의한 통치체제 수립 ---> PA내각 사퇴
 - *무스타파 신총리 내각 출범 ---> EU와 개혁관련 협상(5.26)
 - 다국적 평화유지군

출처: Haaretz, "Israel at War"(2024.5.20), 파이낸셜타임즈(2024.5.17), 서울신문(2024.5.17), 머니투데이(2024.5.17)

II. 이스라엘 입장

*네타냐후 총리+연정 극우그룹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 내 균열조짐이 나타남

(네타냐후 + 연정 참여 극우정당)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보통제권 장악
- 하마스 완전 제거 없이 휴전 불가 ---> Rafah 공격 압박
- 이스라엘이 Gaza 지구 직접 통치 -- 팔레스타인 자치 불가
 - Gaza 내 유대인 정착촌 재건설
- Exit Plan 부재: “하마스 패배 전 Exit Plan 논의는 부적절”

(전시내각 내 온건파)

* Benny Gantz(Narional Union 대표)
+ Yoav Gallant 국방장관(리쿠드)

- 하마스 완전 제거
- 전후 Gaza, 이스라엘 통치 반대
 - > 하마스를 대신 할 통치세력 찾아야...
-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반대
 - “군사점령은 더많은 희생, 경제적 대가 치르게 될 것”

III. Wilson Center 보고서 “Plan for Postwar Gaza”(2024.5.7)

- 미래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 다국적통치기구(“A Multi-National Authority”)

- 조직: 고위대표(not 美), 핵심인력팀: 50-100명
- 임무: 재정, 안보, 교통, 부처간 조정, 홍보, 여론조사

= 국제지도그룹(“An International Contact Group”)

- G-7, Israel, Egypt, Australia, S. Korea, Saudi Arabia, UAE...

= 국제경찰군(“An International Policing Force”)

- 과거 사례와 유사한 치안조직 (보스니아, 코소보, 이라크, 아프간, 반ISIS연합군)
- 참가국: 美 + 여타 국가

출처: “Plan for Postwar Gaza”, Wilson Center, 2024.5.7

▪ 역할(Functions)

- 가자지구 임시 관할 (Temporarily administer Gaza)
- 안보체제 수립(Establish security)
- 하마스 통치권 박탈(Remove Hamas' control of civil governance)
- 파괴된 시설 재건축 착수(Start physical and social reconstruction)
- 가자주민의 생활여건 개선(provide for a better life for Gazans
to live in security, opportunity, dignity)
- 여건이 성숙 되면 팔레스타인 자치권 및 안보통제권을 이양(Transit to local Palestinian governance and security responsibility once conditions are met -- months or years)

IV. 전망

-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치기구: 하마스 배제, 다국적 기구? PA 관여? 어느 정도?
- 안보통제권: 국제경찰군? IDF -- 어디 주둔? 작전권 어느 정도 수용?

출처: “Plan for Postwar Gaza”, Wilson Center, 2024.5.7

III.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전망

- 궁극적 해결책은? Two- State Solution ?
 - “ 1967 이전의 국경선에 따라 두개 국가 수립”
- 당사자 및 국제사회 반응
 - 이스라엘 연립정부와 하마스 등 과격단체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 “적대적 이웃을 두고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 4대 난제(국경, 정착촌, 난민, 예루살렘) 해결과정에 큰 어려움 예상
 - 상호 신뢰 회복에 많은 시간 소요: “제5의 난제”
- 그렇다면 “Two-state Solution”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 적대적 국가가 국경을 마주한 사례는...

장기적 전망

- 비관적 상황
 -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
 - PA 정부의 통치력 약화 및 개혁 속도가 느림
 - 1948 이래 75년 역사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패배(defeat)’로 평가*
 - 해결책 부재에 대한 좌절감과 피로감
- 최근의 사태로 인해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과거에 제시한 이상의 양보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
- 팔 자치정부(PA)와 하마스 간 갈등 지속
 - > 설령 이스라엘과 국제사회/PA 간 딜이 이루어진다 해도
 - 하마스의 저항 요소가 계속 남아 있어 진정한 이-팔 평화과정이
 - 진척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출처:*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at 75: The domestic and regional landscape”, IISS, February 2023;

** Kali Robinson, What is US Policy o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12 July 2023)

-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문제가 다시 부상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우라늄 농축 허용 문제
가자지구의 평온,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확고한 전망
 - 수교가 성사될 경우, 여타 아랍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그런데 아랍국가들의 관심이 미래 준비를 위한 개혁개방 정책에 집중됨에 따라 戰後 외교는 실용적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IV. 이-팔 분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1. 그들 민족의 심정을 헤아려야

- 균형 잡힌 시각, 신중한 접근법 필요

2. 이/팔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는?
 - 명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미-이스라엘 간 불협화음 주시

3. 이상(가치외교)과 현실(실익추구외교)에서 균형점 찾기

-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주의, 민족자결 등의 기본원칙에 충실
--->정부성명, 유엔 발언, 결의안 투표 등에 있어 대의 추구
- “Two-state Solutuion
- G7 등 13개국 외교장관, Rafah 전면적 군사작전 반대 서한 발송
- 유엔 안보리 결의안(비상임이사국 주도) 찬성: 즉각 휴전 촉구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추천 결의안 2건 찬성

4. 한-팔레스타인 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

-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
- 실질적 역할 높이기:
 - 미래 팔 독립국가 창설 시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미리 개발협력 사업을 강화해야
- 우리 경제능력을 감안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도 고려해야
 - UNRWA에 대한 기여도 및 양자적 원조 규모가 미미
 - 대외원조 규모 확대해야 (유엔 권고 0.7%/GDP이나 우리는0.18%)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 대폭 증액 시켜야

<Gaza지구 재건에 필요한 예산>

- Mohammed Mustafa(Pal Investment Fund 회장, 현 PA 총리)
 - 주택재건: 한채 건설 약 \$100,000 소요(Davos Forum, 2024.1.17)
- UNDP 산정액
 - Gaza지구 내 주택재건: \$40B
 - 소요 기간: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 -- 2040 까지
파괴된 모든 주택을 재건축하기 까지에는 약 80년 소요
- 그렇다면, 파괴된 인프라, 산업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할까?

출처: Jason Burke and Lorenzo Tondo, "Rebuilding homes in Gaza will cost \$40bn and take 16 years, UN finds", The Guardian, 2024.5.2
출처:

<팔레스타인에 대한 개발협력 적극화>

- **USA (USAID)**

1994 - 2024 \$ 5.0-5.2 billion

최근에는 매년 \$600 million을 집행함

- **EU**

2014-2024 Euro 3.4 billion

- **UN Agencies**

2014-2020 \$4.5 billion

to UNRWA (2022)

- **Japan**

1993-2024 \$ 2.3 billion

\$ 30,152,202

- **Korea**

1991-2018 \$ 65 million

\$ 2,182,037

출처: Hope O'Dell, "How much financial assistance has the US give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4.4.5; European Parliament Think Tank, // 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 wikipedia;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https://www.kica.or.kr> > file > download; <https://www.jica.go.jp/Resource/palestine/english/c8h0vm0000hs1vw2-att/palestine.pdf>; <https://www.mofa.go.jp/files/000042388.pdf>

5. 주요 파트너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심화

- 안보확보 및 기술개발 면에서 이스라엘과 적극 협력해야
 - 이스라엘은 첨단 과학기술, 의학, 방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
특히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우수
- 과학, 경제, 방산분야 협력 확대
 - KO-IL Fund의 대폭 확대 필요
- 아브라함 협정에 따른 협정 新파트너십 구상
 - 양자간 협력 강화 + 다자간 협력 방안 검토
창조적 아이디어 필요

6. 한류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이-팔 간 교류 유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도 한류 확산이 인상적
- 한국 이미지 개선, 공공외교 활용
- 한국어 교실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교류의 접점이 마련
---> 한류를 이-팔 주민 간 교류와 친선의 매개체로 활용 // **끝**

Realist Perspectives on the 2023 Israel-Hamas War: Analyzing the Conflict through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Realist Perspectives on the 2023 Israel-Hamas War

Analyzing the Conflict through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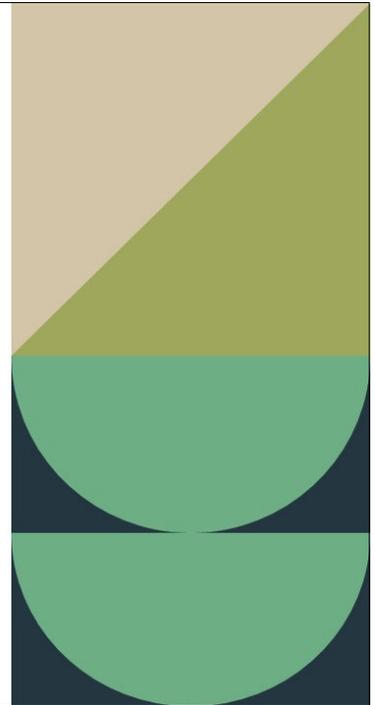
Presented by: Geon Hassan

Date: June 15, 2024



Contents

- Analysis of the 2023 Israel-Hamas conflict using Realist theory
- Focus on state behavior, power dynamics, security imperatives
- Role of external actors like the United States and Iran
- Insights into conflict drivers and strategies for peace



Introduction

- Conflict erupted on October 7, 2023, with Hamas's coordinated attack
- Israel's military response included extensive bombing campaigns and ground offensive
- Realism highlights security, power, and survival, applicable to state and non-state actors



Causes of the Conflict

- Hamas's strategic calculations aimed to disrupt power balance and gain support
- Israel's response driven by need to restore deterrence and ensure national security
- Significant security threats included abduction of civilians and rocket attacks

■ Israeli ground operations
 ■ Claimed Israeli advances



Military Engagements

- Hamas launched rocket barrages demonstrating offensive capabilities
- Israel conducted airstrikes and ground operations to degrade Hamas's infrastructure
- The conflict resulted in over 35,000 casualties in Gaza and widespread destruction





Broader Geopolitical Context

- United States provided military aid and diplomatic support to Israel
- Iran offered financial and military support to Hamas
- Regional power struggle and proxy warfare influenced conflict dynamics

Realist Analysis Questions

-  What caused the 2023 conflict?
-  How did military strategies reflect power dynamics and deterrence?
-  What roles did external actors play?
-  What are the pathways for resolution based on Realist principles?

Results - Immediate Causes

- Hamas aimed to disrupt power balance and gain regional support
- Israel responded to restore deterrence and neutralize the threat
- Security imperatives included preventing future abductions and rocket atta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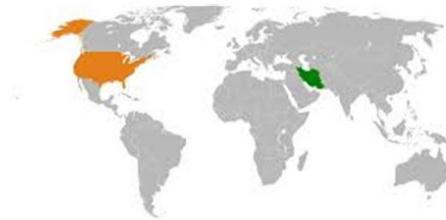
Results - Military Engagements

- Hamas's rocket attacks targeted major Israeli cities to maximize impact
- Israel's airstrikes and ground offensive aimed to degrade Hamas's capabilities
- High civilian casualties and infrastructure damage resulted in a severe humanitarian crisis



Results - Geopolitical Context

- US support included diplomatic backing and military aid to Israel
- Iran's support for Hamas exemplified regional power struggles
- Proxy warfare dynamics influenced the conflict's traje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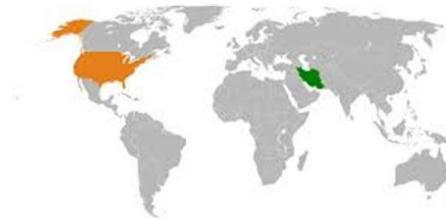
Hezbollah's Role

- Supported by Iran,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Israel from the north.
- Potential involvement created a two-front threat, complicating Israel's military strategy.
- The presence in Lebanon with extensive military capabilities added security concerns for Israel.
- Reinforced Realist emphasis on power balancing and deterrence.



Saudi Arabia's Role

- Traditionally supportive of Palestinian causes; recent diplomatic engagements with Israel added complexity.
- Cautious approach aimed at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while navigating the evolving relationship with Israel.
- The complex balance of power dynamics in the Middle East.



Egypt's Role

- Role as a mediator, leveraging geographical proximity and historical ties with Israel and Palestinians.
- Efforts to broker ceasefires and facilitate negotiations.
- Strategic interest in maintaining stability in Gaza, preventing spillover into the Sinai Peninsula.
- Realist principles of securing borders and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Potential Pathways for Resolution

- Establish robust security guarantees mediated by international actors
- Maintain a stable balance of power through deterrence and diplomatic efforts
- Provide international aid for Gaza's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onclusion

- The importance of security, power dynamics, and external influences
- Resolving the conflict requires compromises, security guarantees,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 Realist theory emphasizes the role of power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걸프 국가 인식 차이 분석: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미디어 보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걸프 국가 별 인식 차이: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보도 양상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안소연

들어가며

1.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배경 중 하나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걸프 국가들의 이-팔 분쟁에 대한 태도가 최근 몇년간 주목을 받기 시작함
2. 중동 지역의 연대의 기반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지지는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걸프 국가들의 이-팔 분쟁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
3. 특히, 걸프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이-팔 분쟁에 대한 정치적 인식과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걸프 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의 주요 범아랍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도 양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팔 분쟁에 대한 변화된 걸프 국가들의 시각을 고찰하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로 판단

주요 질문

1. 이-팔 분쟁에 대한 걸프 국가의 상이한 입장이 언론 보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 어떠한 내용에 대한 보도에서 걸프 국가의 상이한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이-팔 분쟁에서 걸프 국가들의 태도 변화 추이



걸프 국가들의 대 이-팔 분쟁 태도 차이

사우디아라비아

- 1) 이스라엘과 무력 분쟁에는 소극적
- 2) 이스라엘에 1967년 국경선 이전으로 회복을 주장
- 3) 동시에 이스라엘과 공존을 인정
- 4)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및 이란 프록시 단체에 대한 공동의 위기감 공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함

카타르

- 1) 오슬로 협정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무역관계를 유지해옴
- 2) 소국(Small State)라는 특성상 어느 한 진영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 전략을 고수해옴
- 3)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및 이스라엘과도 관계 유지하고자 함
- 4)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 역할에 나서면서 전략적 입지를 차지

아랍에미리트

- 1)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과 UAE는 비공개적으로 경제적 협력 지속
- 2) 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
- 3) 이후 이스라엘과 FTA, 인도-이스라엘-UAE-미국 간 소다 자주의 협의체인 I2U2 등을 결성하면서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음

걸프 국가들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 변화 추이

사우디아라비아

- 1) 하마스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 2) 동시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카타르

- 1) 아랍의 봄 이후 하마스,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카타르에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
- 2) 카타르는 하마스를 가자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 인식

아랍에미리트

- 1) 아브라함 협정의 당사자로서 이번 전쟁 발발에 대한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2)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동정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하마스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를 높임

이론적 배경

프로파간다란?

3. The systematic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esp. in a biased or misleading way, in order to promote a particular cause or point of view, often a political agenda. Also: information disseminated in this way; the means or media by which such ideas are disseminated. Cf. **black propaganda** *n.*

정치적 견해나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편향되거나 잘못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질, 정보 등으로 정의

이론적 배경

허만과 촘스키의 프로파간다 모델 이론



미디어는 중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미디어가 예측되어 있는 지배적 이념을 강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활성화

정부의 권력이 일방적으로 발휘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대중 매체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며 정부의 독점적 언론 통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국영 미디어는 프로파간다 전달의 핵심 역할

이론적 배경

국제적인 프로파간다 경쟁



국영 미디어는 국내 대중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제 정치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의 RT, 중국의 CGTN 방송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고 국제 정치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영 채널의 국제 방송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보도하고자 함

왜 알자지라와 아라비아 인가?



1. 알자지라는 1996년 개설 이래 아랍 대중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언론으로 자리 잡았음
2. 특히, 알자지라는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반정부 시위 및 걸프 왕정 비판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여과없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함
3. 이와 함께, 알자지라는 이란, 무슬림형제단 등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내면서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의 원인을 제공



왜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인가?

العربية
Al Arabiya News Channel

1. 알아라비아는 2003년 알자지라의 부상에 대응하며 사우디 정부의 주도로 개설됨
2. 과거 사우디 정부는 아랍의 주요 언론을 소유하며 아랍의 언론을 주도하였으나 알자지라의 등장으로 이러한 구도가 무너짐
3. 알자지라와는 반대로 무슬림형제단, 이란 등에 대해 강한 비판적 어조를 내보내고 있음



왜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인가?



1. 두 미디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두 미디어 보도 양상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 두 정부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

연구방법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

이번 전쟁에서의 주요 행위자 및 사건에 대한 카타르와 사우디의 차별화된 입장 차이를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 아랍어 뉴스 보도 내용을 분석

1. 하마스에 대한 시각

2. 하마스와 시아파 프록시 연계에 대한 시각

3.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가자 지구 공격

4.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대한 시각

하마스에 대한 시각



حركة إسلامية معتدلة منفتحة
حركة تحرر وطني
مواجهة إرهاب الصهاينة وبيانهاء الاحتلال
نجحت هذه الحركة ديمقراطيا
فازت في انتخابات حرة ونزيهة بالأغلبية
المطلقة

하마스의 정체성에 대해 알자지라는 온건한 이슬람 운동, 민족 해방 운동, 시온주의 테러에 저항하고 점령을 종식하려는 운동,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단체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하마스에 대한 시각

العربية
Al Arabiya News Channel

أضرت أهل غزة
كل من يدعم حماس بدعم الإرهاب
الهجوم الشنيع والإرهابي
قائمة الإرهاب
حركة الجهاد

하마스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라비아는 테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집단, 지하드 운동, 하마스를 돕는 자는 테러를 돕는 것, 테러 공격, 가자 지역 민족을 해치고 있다 등의 비난적 표현을 지속

하마스와의 이란 연계

ALJAZEERA

لن يدخل في الحرب مباشر
حماس تقاتل وحيدة الآن ضد إسرائيل
كمشروع الأمة الإسلامية وليس لطائفة
"الشيعية"
طبيعة العلاقة التنافسية بين إسرائيل وإيران

이란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한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하마스는 이슬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경쟁 구도가 이란의 하마스 지원 배경이라고 강조

하마스와의 이란 연계

العربية
Al Arabiya News Channel

أضرم معظم الأموال التي تذهب إلى حماس تأتي
من إيران
صلة وصل بين حماس وحزب الله
التواصل السياسي بين الحركة وإيران وحزب
الله.

하마스의 금융 자원이 이란에서 온다, 하마스
와 헤즈볼라 간 연계, 하마스, 이란, 헤즈
볼라 간 정치적 교섭 등의 표현을 사용하
면서 **하마스**와 **이란** 및 **시아파 프록시**와의
연계성을 주장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ALJAZEERA

إبادة جماعية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غزة
المجزرة
جرائم الحرب
نظام الفصل العنصري الإسرائيلي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팔레스타
인 공격에 대하여 **집단 학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 전쟁 범죄, 이
스라엘 apartheid 체제** 등의 비판적 표현을
지속함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العربية
Al Arabiya News Channel

فقد ظلت حماس تقدم الدعم لنتنياهو واليمين المتطرف لتهويد كامل فلسطين.
طالب مجلس الوزراء السعودي المجتمع الدولي مجدداً باتخاذ موقف حازم بالزام القوات الإسرائيلية باحترام القانون الدولي الإنساني

알아라비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비난보다는 오히려 하마스가 **이스라엘 극우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유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하마스에 대한 비난에 집중

이스라엘-이란 갈등

ALJAZEERA

"إيران لا تنوي اليوم زعزعة الأوضاع السياسية والأمنية بمنطقتنا، وكلما تمكنا من معاقبة العدو فإن ذلك سيقربنا من الهدف الأولي"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뒤 이것은 선을 넘는 것이나 **이란은 확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치중

이스라엘-이란 갈등

العربية
Al Arabiya News Channel

المجتمع الدولي يبقى موحدًا لمقاومة
هذا العدوان الإيراني الذي يهدد السلام
العالمي".
القتال في غزة جزء من مواجهة تهديد أكبر
تمثله إيران

알아라비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단결해야 한다, 이란이 보여주는 가장 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 지구에서 전투가 지속된다는 등 **이란을 위협적인 존재로 서술**하는데 중점을 둠

결론

1. 이번 전쟁에서도 걸프 국가별로 상이한 정치적 태도가 아랍의 주요 국영 미디어인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2. 카타르의 경우 하마스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알자지라 보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음
3.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하마스와의 이란, 이란 프록시 단체에 대한 반감이 알아라비아 보도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알자지라와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려는 태도가 목도됨, 이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염두한 정치적 입장으로 판단
4. 즉,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언론 보도에서도 각 국가별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반영된 보도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제1부 2분과: 종교·역사·분과 역사적, 종교적 담론의 대립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좌장]

박재양 (부산외국어대학교)

- 탈무드(Talmud Bavli)에서 본 예루살렘과 수사(Susa)의 수학문화 전이
박제남 (인하대학교)
- 중세 여행가들의 눈에 비친 서로 다른 모습의 예루살렘: 종교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의 함의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탈무드(Talmud Bavli)에서 본 예루살렘과 수사(Susa)의 수학문화 전이

박제남 (인하대학교)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 기하학은, 수사(Susa)에서 출토된 점토판에서 보듯이, “원주가 60, 지름이 20, 또는 원주가 360, 지름이 120” 등으로 원을 기술한다. 한편, 출애굽 이전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 12왕조나 힉소스 왕조에서 고대 이집트인은 지름이 9 또는 10이 주어지고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는 실용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한편, 원에 대한 예루살렘적 표현은,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지름이 10, 원주가 30”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적 표현은 고대 이집트의 영향보다는 수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적어도 기원후 3~5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를 탈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랍비들이 기원전 250년경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된 원에 대한 표현 “(원주)/(지름)의 값 $3\frac{1}{7}$ ”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에 대한 표현을 수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솔로몬의 청동 대야와 원의 표현

대략 기원전 965년경 왕이 된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상황을 아동문학가 M. 일리인(Ilyin)과 E. 세갈(Sega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Ilyin and Segal 1999, p.19).

팔레스티나에서 솔로몬 왕이 배를 만들고 이웃 나라의 벗인 페니키아 (Phoenician)의 왕 ‘히람’에게 숙련된 선원을 제공받아 유대인과 페니키아인은 홍해(紅海)를 지나 페르시아에서 궁전과 신전을 장식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에서 사용된 원에 대한 표현 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열왕기상(7:23-26)과 역대하(4:2-5)이다. 열왕기에서 사용된 단위길이 1큐빗은 대략 45.72cm이다.

(I Kings 7:23 열왕기상 7장 23절, The King James Version) 그리고 솔로몬은 청동 대야를 만들었고 그 지름이 10큐빗이고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큐빗이다. 둘레는 30큐빗 줄을 두를 만하다.

(I Kings 7:26 열왕기상 7장 26절, King James Version) 그 두께는 한 손바닥만 하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로 장식하여 컵의 가장자리와 같이 만들었고, 그 안에는 2000밧(baths¹⁾)이 담겨 있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내려진 지침 중에는 성막(聖幕) 문과 번제단(the altar of burnt offering) 사이에 놓을 청동대야(bronze laver)를 만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론(Aaron)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세숫대야이다.



그림 1. 청동 세숫대야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65781371>

기원전 600년경 바빌론의 영토는 지중해 연안의 유다와 실리시아로부터 자그로스 산맥에 이르렀다. 기원전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은 점령당했다(Radner 2023, p.186). 성서 주석가들은 열왕기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원전 539년 이후 <에스라>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유다 포로의 본국 귀환을 허락한다(Radner 2023, p.236).

정복 전쟁의 여파로 바빌로니아의 수학문화 전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적인 사건으로도 가능하다. 개인적인 역량에 의하여 바빌론에서 그리스로의 수학이 전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피타고라스(572-497 BCE)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암블리코스²에 따르면, 기원전 525년 아케메데스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프삼티크 3세)를 차지한 후, 이집트에 체류 중이던 피타고라스는 캄비세스의 군대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압송된다. 피타고라스가 바빌론에서 머문 12년은 주로 다리우스 1세가 다스리던 시기였다. 그는 수론, 음악, 수리과학을 배워 지식이 최고점에 도달한 56세에 사모스로 돌아가 학파를 설립한다(Iamblichus 1991, 45).

1) 밧(bath)은 17.034리터에서 37.854리터 사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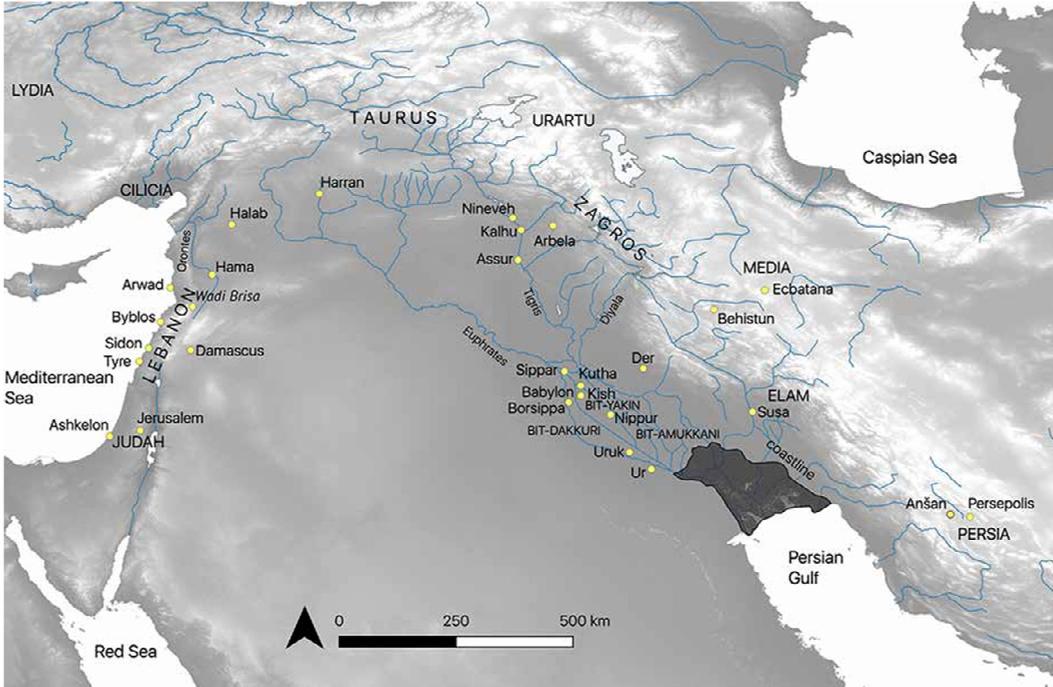


그림 3. 기원전 1000년 전반부의 중동

수학사에서 원주율 3은 열왕기가 쓰인 시기인 대략 기원전 550년에 위치한다(Arndt and Haenel 2000; Beckmann 1971). 그러나 H. 셰플러(Schepler, 1950)는 성경에서의 원주율 3을 기원전 950년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솔로몬 왕궁의 청동 대야의 모양을 G. 바톤(Barton 1913)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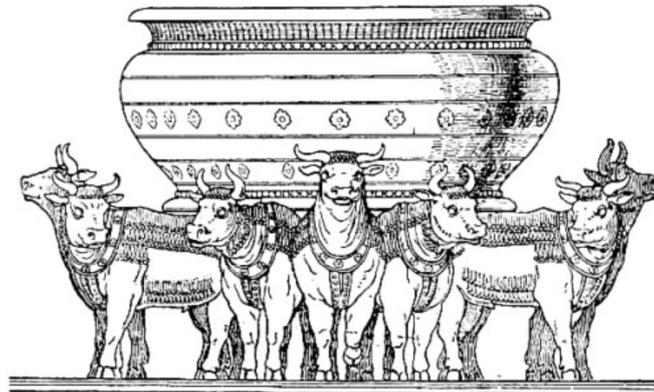


그림 4. 솔로몬 왕궁의 Molten Sea 추정 그림(G. Barton)

한편, 다양한 시각으로 $\pi_{Bible} = 3$ 보다 더 정확한 근삿값을 제시하기도 한다(Simoson 2009; Arndt and Haenel 2000, p.169). 그 이유는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에서 원주율이 3.16, 또는 $3\frac{1}{8}$ 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의 1500년이 지난 이후 기원전 550년경의 원주율이 3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사(Susa) 기하학과 원의 표현

1933년 프랑스 고고학자 팀이 이란 서부에 있는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인 수사(Susa)에서 수학 점토판들을 발견했다. 1961년에 E. 브루인스(Bruins)와 M. 뤼탕(Rutten)은 <수사의 수학 텍스트 Textes mathematiques de Suse, TMS>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여기에는 후기 고바빌로니아 시대(기원전 16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26개의 서판에 아카드(Akkadian)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정다각형 둘레와 외접원의 둘레를 근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사인은 정육각형의 둘레와 외접원의 둘레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들의 비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사인은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작도에서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정육각형과 원주의 길이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했다. 수사인은 점토판 TMS 3에

$$\frac{\text{정6각형 둘레}}{\text{외접원 둘레}} = 0;57,36 = \frac{57}{60} + \frac{36}{60^2} = \frac{24}{25}$$

를 기록하였다(EVes 1990, p.59). 정육각형의 성질에서 둘레는 지름의 3배이므로

$$\frac{\text{정6각형 둘레}}{\text{외접원 둘레}} = \frac{3 \times \text{지름}}{\text{외접원 둘레}}$$

이고 이로부터

$$\frac{\text{원둘레}}{\text{지름}} = \frac{25}{8} = 3 \frac{1}{8}$$

수학사에서는 이를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 원주율로 사용한다.



그림 4. 수사 원주율 측정(촬영: 저자)

이란 수사지역 학교 교실에서 얻은 비율 24/25를 우리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그림 4 참고). 24를 만들기 위하여 4cm를 반지름으로 정육각형을 작도하면 정육각형의 둘레는 24이다. 이제 그림 5에서처럼 끈을 파인 곳에 적절히 넣어 원주를 측정하면 수사인이 얻었던 것처럼 쉽게 25cm 정도를 근사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정육각형의 성질에 의하여 지름은 8cm이다. 즉, 수사인이 정육각형을 선택한 이유는 지름이 원 내부에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두 변 길이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인은 정육각형의 작도를 통하여

$$\frac{\text{원둘레}}{\text{지름}} = \frac{25}{8} = 3 \frac{1}{8}$$

또는 3.125를 얻은 것이다. 즉,

$$\pi_{\text{Babylonia}} = 3 \frac{1}{8} = 3.125 = \pi - 0.0165\dots$$

수사인은 왜 원주율 $3 \frac{1}{8}$ 대신 3을 기하학에 일괄적으로 사용했을까? 고바빌로니아인은 원의 내접하는 다각

형의 둘레를 원주로 근사하면서 원주율은 $3\frac{1}{8}$ 보다 적어야하며 가능한 간편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수사인은 원주율을 3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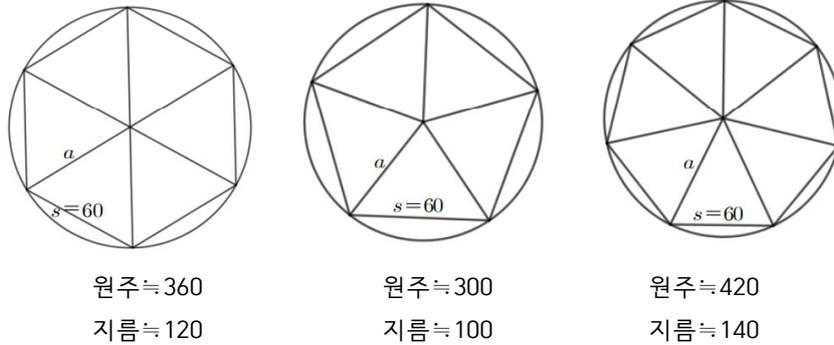


그림 5 표준화된 정다각형



그림 6. 수사인의 정칠각형 작도(TMS 2, rev) (루브르 박물관, 촬영: 저자)

이를 TMS 2에서 추측할 수 있다. 수사인은 TMS 2(그림 6 참고)의 앞면에는 정육각형, 뒷면에는 정칠각형을 그려 넣었는데, 한 변의 길이를 모두 30이다. 그림 3의 표준화된 정다각형을 이용하면 닳은 도형의 넓이는 “변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를 적용하여 넓이를 구하기 쉽다. 예를 들면, 표준화된 정육각형의 넓이는 9450이고 한변의 길이가 30인 정육각형의 넓이는 $\left(\frac{1}{2}\right)^2 9450 = 2362.5$ 가 된다(Friberg 2007, pp.161-163). 결과적으로 수사인이 사용한 원주율 3은 원의 내접하는 도형의 넓이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문제를 학교수학에서 사용하는데 복잡하지 않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점토판 MS 3051에서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한다. 이때, 원주를 60, 지름을 20으로 하면 밑변과 빗변이 각각 5와 10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때, 높이는 $\sqrt{100-25} = \sqrt{75}$ 이다.

탈무드와 원의 표현

바빌로니아 탈무드(Talmud Bavli)는 그러한 고대 지식을 전달하는 또 다른 채널을 제공한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제2성전을 파괴한 후,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학자들은 이전에는 구두로만 전달되었던 지식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함으로써 종교적, 법적 중심지가 상실된 것에 대응했다. 라드너에 따르면 바빌론 탈무드는 서기 3~5세기에 이라크 남부와 사산제국(기원후 224-651) 지역에서 유대교 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다.

성경에는 주목할 만한 수학적 문장은 없다. 탈무드에서 수학적 추론은 비록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로 결코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할라크 문제(halakhic problems)에 대한 논의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Encyclopaedia 1974, pp.1121-1122). 랍비의 수학적 지식은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적 전통이나 그리스·로마로부터 이어받았다. 또한, 바빌론 탈무드는 고대 바빌론의 정조, 의학 및 주술 지식도 보존하고 있다(Radner 2020, pp.250-251).

탈무드(Eruvin 14a)는 "원의 둘레가 세 손 폭, 지름은 한 손 폭(Every circle whose circumference is three handbreadths, is one handbreadth wide)"이라고 기술하고 있다(Beckmann 1971, p.15; Tsaban and Garber 1998).

또 다른 기하적 성질이 탈무드(Eruvin 56b, 76a)에 나와 있다. 원과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율 3/4으로 비교한다. "How much is the square greater than the inscribed circle? A quarter,"(Tsaban and Garber 1998). 즉,

$$\frac{\text{원의 넓이}}{\text{정사각형의 넓이}} = \frac{3}{4}$$

우리는 고바빌로니아(YBC 7302)와 고대 이집트 힉소스 왕조(Chace 1979)에서 이 뿌리를 확인할 것이다.

미슈나타-미드닷(Mishnat ha-Middot)과 이집트 수학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 원주율 $3\frac{1}{7}$ 이 알려져 있었다(Encyclopedia p.1122). S. 간즈(Gandz 1929)에 따르면 최초의 히브리 기하학 미슈나타-미드닷은 서기 150년경 제작된 것으로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평면과 공간기하를 증명이나 구체적 계산 없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루는데, 여기서 원주율 $3\frac{1}{7}$, 그리고 피라미드의 부피 공식 $\frac{1}{3}Ah$ (여기서 A 는 밑면 정사각형의 넓이, h 는 높이) 등을 언급한다. 원주율 $3\frac{1}{7}$ 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아르키메데스(287-212 BCE)가 기원전 250년경에 구한 것이고 피라미드 부피는 기원전 1850년경에 저작된 <모스크바 파피루스> 14번 문제이다(Gillings 1972, pp.187-191).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370년경에 Eudoxus가 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YBC 7302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302에는 원주 $C=3$ 과 $C^2=9$, 그리고 원의 넓이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0.75$ 가 60진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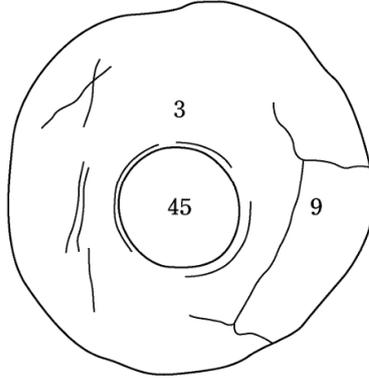


그림 8. YBC 7302 (그림: 저자)

현대 수학에서 보면 $A = \pi r^2$, $C = 2\pi r$ 에서 $A = C^2/4\pi$ 이다. YBC 7302와 비교하면 $A = C^2/12$ 이고 이로부터 $\pi_{Babylonia} = 3$ 이다. 또는

$$A = 0.75 = \pi_{Babylonia} r^2 = \frac{3}{4} d^2$$

한편, d^2 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이므로 이제 원의 넓이와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면

$$\frac{A(\text{원의 넓이})}{d^2(\text{외접 정사각형의 넓이})} = \frac{3}{4}$$

으로 고바빌로니아 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바빌로니아인은 어떤 이유로 비율 $3/4$ 을 얻었을까?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16×16 조각으로 나누었을 때, 원 밖에 위치하는 각 모서리를 작은 정사각형 16개로 추정하였고 따라서

$$\frac{A(\text{원의 넓이})}{d^2(\text{외접 정사각형의 넓이})} = \frac{16^2 - 4 \times 16}{16^2} = \frac{3}{4}$$

로 추정한다(Rudman 2010, pp.12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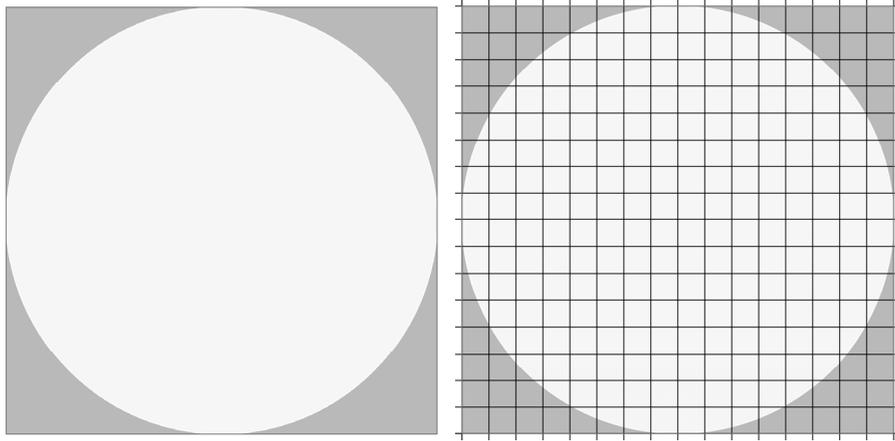


그림 9. 고바빌로니아의 외접사각형(그림: 저자)

우리는 YBC 7302와 유사한 계산을 YBC 1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Neugebauer and Sachs 1986, p44)

한편,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 33년에 서기 아메스가 제12왕조(기원전 1900~1780년 무렵) 아메넴하드 3세 (BCE)때 사용된 고문서를 바탕으로 저술한 87개의 수학문제 중 문제 48번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은

$$\frac{A(\text{원의 넓이})}{d^2(\text{외접 정사각형의 넓이})} = \frac{64}{81}$$

를 사용하였다. 고대 이집트와 고바빌로니아인의 차이는 0.04정도로 매우 가깝다(Chace 1979).

Sukkha(8a)와 YBC 7289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289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다룬다. 점토판에 기록된 육십진법의 두 수 1; 24, 51, 10과 42; 23, 25를 십진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1; 24, 51, 10 = 1 + \frac{24}{60} + \frac{51}{60^2} + \frac{10}{60^3} = 1.41421296296\dots$$

$$42; 23, 25 = 42 + \frac{23}{60} + \frac{25}{60^2} = \frac{30547}{720} = 42.426388889\dots$$

따라서 1; 24, 51, 10은 $\sqrt{2}$ 의 근삿값이고 42; 23, 25는 대각선의 길이 $\sqrt{30^2 + 30^2} = 30\sqrt{2}$ 에 해당한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이집트인 프톨레마이오스(Ptolemy, 대략 90-168)는 그의 저서 알마게스트(Almagest)에서 출처를 언급하지 않고 고바빌로니아의 근삿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 24, 51, 10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널리 알려진 $\sqrt{2}$ 의 근삿값으로 여겨진다. $\sqrt{2}$ 의 근삿값을 Sukkha 8a(<https://www.sefaria.org>)에서 찾을 수 있다. 원에 내접하는 정십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대각선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이다. 이때, 대각선의 길이 $4\sqrt{2} = 5.6$, 그리고 원주를 16.8로 계산한다. 즉, $\sqrt{2} = 1.4$ 로 탈무드는 사용한다.

결론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 기하학은, 수사(Susa)에서 출토된 점토판에서 보듯이, (원주)/(지름) 값이 $3\frac{1}{8}$ 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주가 60, 지름이 20, 또는 원주가 360, 지름이 120 등으로 원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5, 6, 7각형 등)의 넓이를 표준화하거나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소위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 12왕조 아메넴하트 3세(1844-1797 BCE)와 히소스 왕조에서는 지름이 9 또는 10이 주어지고 둘레도 다루지만 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룬다(Chace 1979). 그 이유는 원기둥 곡물통의 부피를 구하거나 원형 모양의 토지 넓이를 구하는 실용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원에 대한 예루살렘적 표현은,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지름이 10, 원주가 30”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적 표현은 수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수사(Susa)적 표현은 기원후 3~5세기에도 존속하는데 우리는 이를 탈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랍비들이 기원전 25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된 원에 대한 표현 “(원주)/(지름)의 값 $3\frac{1}{7}$ ”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에 대한 표현을 수사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논의사항

청동 대야의 두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열왕기상 7장 26절에서 청동 대야의 두께를 알 수 있다. 즉, 두께로 언급한 “한 손 폭”을 큐빗으로 설정해 보고 두께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원주율이 3보다 정교한 근삿값을 갖기 위해서는 바깥지름이 10이고 안쪽 내부 원주가 30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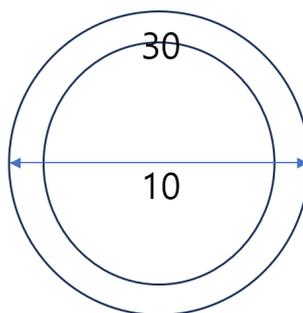


그림 9. 두께를 고려한 솔로몬의 청동 대야

한편, 1큐빗은 대략 45.72cm이고 7장 26절에서 말한 한 손 폭만 한 길이를 0.2큐빗으로 가정하면 다음을 얻는다.

$$\pi = \frac{30}{10 - 2 \times 0.2} = \frac{30}{9.6} = 3\frac{1}{8}$$

따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택한 ‘한 손 폭’의 길이 0.2큐빗은 수사(Susa)인이 정육각형에서 구한 원주율 $3\frac{1}{8}$ 과 일치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추론은 학문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3보다 정교한 원주율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주장도 있지만, 수학사에서는 기원전 550년경의 원주율을 성경을 출처로 하여 $\pi_{Baible} = 3$ 으로 사용한다.



그림 10. 레반트 지역 돌꽃병(촬영: 자자)

그림 10은 레반트에서 기원전 7세기~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돌꽃병이다. 크기를 고려하면 솔로몬 왕궁의 청동대야의 크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각선의 길이 $\sqrt{2}$ 의 근삿값을 다루는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289는 기원후 1~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정확히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탈무드에서는 단순한 근삿값 1.4로 사용된다. 이는 기원전 25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원주율 $3\frac{1}{7}$ 을 랍비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원주율 3을 사용한 것과 같이 랍비들은 정교한 근삿값 1.4142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근삿값(extent approximations)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랍비 수학은 부분적으로 탈무드 랍비들의 추상적인 수학적 추론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 단계 이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rndt, J and Haenel, C. (2000). Pi-Unleashed. New York: Springer.
- Barton, G. (1913). Archaeology and the Bible. Philadelphia: American Sunday-School Union.
- Beckmann, P. (1971). A History of Pi.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ace, A. (1979). Rhind Mathematical Papyrus. Virginia: NCTM.
- Encyclopedia. (1973). Judacia. Vol. 11.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 Eves, H. (1990).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athematics. New York: The Saunders Series.
- Friberg, J. (2007). Amazing Traces of a Babylonian Origin in Greek Mathematics. New Jersey: World Scientific.
- Gandz, S. (1929). The Mishnat Ha-Middot or the first Hebrew geometry written about 150 C.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6: 263-276.
- Gillings, R. (1975). Mathematics in the Time of the Pharaoh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Iamblichus. (Tr. J. Dillon and J. Hershbell). (1991). On the Pythagorean way of life. Georgia: Scholars Press.
- Ilyin, M. and Segal, E. (동완 율김). (1999), 인간의 역사 II. 서울: 연구사.
- Neugebauer, O. and Sachs, A. (1986). Mathematical cuneiform texts. Connecticut: Americal Oriental Society.
- Radner, K. (서경의 율김). (2023). 바빌론의 역사. 서울: 더숲.
- Rudman, P. (2010). The Babylonian Theorem. New York: Prometheus Books.
- Simoson, A. (2009). "Solomon's Sea and π ." The College Mathematics Journal 40(1): 22-32.
- Tsaban, B., and Garber, D. (1998). "On the Rabbinical Approximation of π ." Historia Mathematica 25: 75-84.
-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65781371> (2024년 5월 17일)
- <https://www.sefaria.org/Sukkah.8a?lang=bi> (2024년 5월 17일)

중세 여행가들의 눈에 비친 서로 다른 모습의 예루살렘: 종교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세 여행가들의 눈에 비친 서로 다른 모습의 예루살렘: 종교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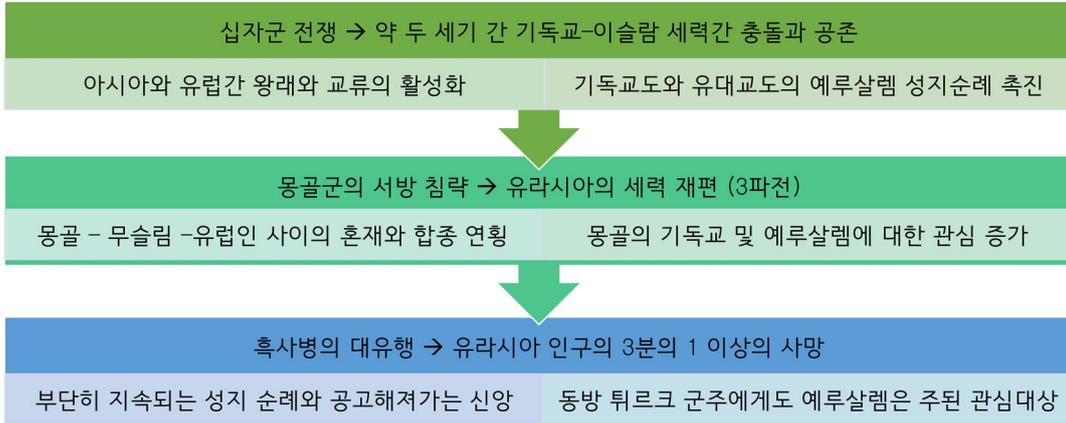


2024. 6.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한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십자군 전쟁 말기 유대인의 예루살렘 방문기: 사무엘 벤 삼손
- III. 몽골 제국 치세기 기독교인의 예루살렘 방문기: 마르코 폴로
- IV. 흑사병 유행 전후기 무슬림의 예루살렘 방문기: 이븐 바투타
- V. 결론

I. 중세 예루살렘이 겪은 변화



II. 십자군 전쟁 말기 유대인의 예루살렘 방문기:

사무엘 벤 삼손 (12세기)

12-13세기 유대인들의 성지순례 잔존 기록

	이름	출신지	대략적 이스라엘 방문시기
1	Jacob	독일(로 추정)	1153-1187
2	Benjamin of Tudela	스페인, 툴레다	1169-1171
3	Petahyah of Rosenburg	독일, 로젠버그	1175-1187
4	Samuel ben rabbi Samson	프랑스, 프로방스	1210
5	Jacob (The Emissary)	프랑스, 미상	1258-1270
6	Disciple of Nahmanides	미상	1270-1291

표 출처: Oettinger, A. (2007). Making the Myth Real: The Genre of Hebrew Itineraries to the Holy Land in the 12th-13th Century. Folklore: Electronic Journal of Folklore, (36), 41-66.

사무엘 벤 삼손

- 12세기 프랑스 유대인 여행가, 기록의 부재로 여행과 관련 사항을 제외한 가계와 생애는 미상
- 십자군의 점령 20년 후인 1210년 겨울(유대력 4551년) 네 동료들과 동방으로 순례를 떠남:
 ...→ 고센 → 사막 → **예루살렘** → 헤브론 → 예루살렘 → 상·하 갈릴리 → 다마스쿠스 → 니네베 →...
- 여행기 출간: 역사와 지리적 관점에서 중세 이스라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연구 사료 →
 백명 이상의 유럽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여행과 그 중 일부의 현지 정착에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 장 드 브리엔의 인장과 압바스조 칼리프 알-나시르의 허가를 취득
 → 이교도의 접근이 제한된 곳을 출입

예루살렘 방문

- “우리는 도시의 서쪽 끝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곳을 바라보자마자 옷을 찢었다. 이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를 그대로 행한 것이었다. 그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우리는 [루넬의 위대한 제사장] 요나단 랍비와 함께 크게 울었다. 우리는 [서쪽] 문을 통해 들어가서 [---] 다윗의 탑에 이르렀다. 여기는 성전으로 접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던 곳이었다. 우리는 세겜 문(Shechem Gate, 즉 북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거기서 우리는 옛날에 붉은 암송아지가 불태워졌던 감람산(올리브 산)으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명의 성인 남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산을 올랐다. 안식일에 우리는 오후 기도를 올렸다 [---].”

출처: Ya'ari, Avraham & Neumark, Ephraim (1946). Masa' be-erets ha-àedem: Suryah, Kurdistan Aram Naharayim Paras úe-Asyah ha-merkazit. Sifriyat Leúí ha-Leúí, sefer 2. Jerusalem: ha-AÛim Leúin-Epshtayn (Hebrew), Oettinger, A. (2007):48의 번역을 발표자가 재번역.

사무엘의 순례기의 특징

- 중세 유대인들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유배지에서 옛 영광을 잃은 시온에 관해 탄식 했음
→ 성지에 도착해 실제로 그 파괴를 마주했을 때 역시 깊은 탄식을 내뿜는 것이 자연스러움
- 탈무드는 랍비들이 성지를 처음 방문할 때는 특정 구절을 낭송하고, 망자들을 위한 애도 의식을 행한 후,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하지만,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시기 유대 순례자들의 여행기에는 기쁨의 탄성이나 땅에 입 맞추기, 기도, 양 뿔 나팔 연주, 감사의 기도 등과 같은 전형적인 관습에 관한 묘사나 성지를 빼앗긴 현실에 대한 슬픔, 울음, 애도에 대한 언급이 극히 적음
- 유일한 예외로 사무엘의 예루살렘 방문기는 해당 행위를 상술

Oettinger, A. (2007): 47-48

결론

- 십자군 전쟁 이전에 발간된 유대인들의 성지 순례 기록 중 잔존한 것은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음:
원인에 관한 주류 학설 역시 부재
- 십자군 전쟁은 유럽 내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순례에 직간접적 도움이 되었음: 전문가이드도 활동
 - 최소 일부 유대인들의 성지순례는 기독교 군주와 이슬람 군주 모두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음
- 십자군 전쟁 이후 유대인들의 순례 활동과의 비교 분석 및 동시대 아시아·아프리카 유대인의 성지순례 사례와 사료의 발굴 및 비교 분석이 필요

III. 몽골 제국 치세기 기독교인의 예루살렘 방문기:

마르코 폴로 (대략 1254-1324)

마르코 폴로

- 13세기 베네치아 기독교 상인이자 여행가,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제국 정부의 관리
- 십자군 전쟁 말기이자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 재위기에 상인인 부친과 숙부와 동방 여행에 동행:
베니스→아크레→ **예루살렘** →아크레→서·중앙아시아→중국→동남·동·남아시아→서아시아→베니스
- 여행기를 출간: 쿠빌라이 칸 재위기 몽골제국의 세계 교류 연구에 관한 독보적 연구 사료
 - 당대와 후대 유럽인들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과 영감을 자극해 동방 진출에 막대한 기여 →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신허로와 신대륙 개척, 세계일주와 동방 기행 장르라는 문학의 유행에도 기여
- 몽골 황제의 칙령 수행, 중국에서의 관료 생활 등에 관한 사실성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계기

- 베니스 → 아크레 → 예루살렘 → 아크레 → 이야스 → 카이세리아
- … 라이아스를 출발해 아크레로 떠난 (마르코 폴로의 부친과 숙부인) 그들(니콜로와 마페오)은 1260년 4월 그곳에 도착했으나 교황의 서거를 듣고 이집트 전역에서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특사였던 어느 학식 높은 성직자(플라첸차의 테오발드, Teald of Piacenza)를 찾아갔다. … 2년 동안 기다려도 새 교황이 선출되지 않자 두 형제는 대카안(몽골 제국의 황제)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 너무 오래 지체했다고 생각하여 그의 아들 마르코를 데리고 베니스를 출발하여 곧장 아크레로 가서 앞서 상술한 그 특사를 만나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관해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대카안이 요청한 그리스도의 등잔 기름을 가져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특사는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2000)』, 김호동 역주에서 발췌

예루살렘 방문

- 그래서 두 형제는 아크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 그리스도의 성묘에 있는 등잔의 기름을 조금 받았다. 그리고는 다시 아크레에 있는 특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각하, 교황이 선출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저희는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대군주(대카안)에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방) 로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인 그 특사께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대군주(대카안)에게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면 나도 기쁘오” 라고 말한 뒤 니콜로님과 마페오님이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왔는지, 또 교황에게 유고가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서한을 대카안에게 보내도록 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2000)』, 김호동 역주에서 발췌

결론

- 상인 출신이지만 마르코 폴로 일행은 종교와 외교적 임무 수행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
-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의 부친과 숙부인 1260년 교황의 서거로 예루살렘 방문 일정이 늦어졌다고 전하지만, 김호동의 지적처럼 이를 실제 교황의 서거와 연대를 맞추려면 1269년이 되어야함 → 이는 마르코 폴로 일행이 예루살렘에 원나라 황제와 훗날 교황 그레고리 10세(재위 1271-1276)로 등극하는 플라젠체의 테오발드 교황 특사를 만나 그들의 특명을 전달했는지에 관한 논란을 야기
- 예루살렘에서의 일화는 오로지 그리스도 성묘 교회에서 등잔 기름을 받았다는 것만을 기록
- 그 밖의 기독교도들과 무슬림들이 공존하는 지역들에 관한 묘사는 명확하게 기독교인들을 무슬림들보다 우월하게 묘사: 기독교 국가들과 몽골 제국 간의 비교와 대조적

결론

-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을 순례한 여타 기독교 여행가들과의 비교 분석이 유용
- 또한, 원나라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의 성지 순례를 시도했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출신의 랍반 빈 사우마 (약1220-1294, Rabban Bar Sauma 拉賓掃務瑪)가 외교 마찰로 인해 예루살렘 입성에 실패한 것은 큰 손실: 동방 출신 동방기독교도와 서방 출신 서방기독교인 사이의 시각차와 역학관계 인식 등에 대한 비교분석기회 상실



지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Rabban_Bar_Sauma#/media/File:VoyagesOfRabbanBarSauma.jpg

IV. 흑사병 유행 전후기 무슬림의 예루살렘 방문기:

이븐 바투타 (1304-1368/1369)

이븐 바투타

- 14세기 모로코 명문가 출생의 무슬림 여행가이자 법관
- 십자군 전쟁의 종료 직후, 동부 이슬람 세계를 정복 후 분열된 몽골 제국의 일부에서 이슬람으로 점진적인 개종이 진행되던 시기에 메카로 성지 순례길에 오름 → 이후 인도·동남아시아·유럽·사하라 이남의 동서 아프리카 등 이교도 지역을 순방 → 여행 중 흑사병의 대유행으로 지인과 가족 상당수를 상실
- 전쟁 후유증의 참상, 수피즘을 비롯한 외래 문화들의 혼종과 유행, 흑사병의 유행을 목도
- 여행기: 역사와 지리적 관점에서 중세 이스라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 → 다수의 유럽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서의 여행해서 현지에서 정착하는 것에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모로코→북아프리카→나일강→ **예루살렘** →지중해 동안→서아시아·동아프리카→동유럽·중앙아시아→인도→중국→동남아시아→서아시아→ **예루살렘** →북아프리카→안달루스→서아프리카→모로코

예루살렘 가는 길, 세 종교의 성인 묘지를 참배

- 사해에서 꾸드스(**예루살렘**)로 향하는 여정 도중 유니스(요나)-그에게 평화를-이 묘소를 참배하였는데, 거기에는 큰 건물과 사원이 함께 있었다.

https://islamicart.museumwnf.org/database_item.php?id=monument;ISL;pa;Mon01;12;en

- 그리고 예수-그에게 평화를-의 탄생지인 베들레헴도 방문하였다. 여기에는 야자수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고 건물도 많다. 기독교인들은 이곳을 최대한 숭앙하며 내객도 반가이 맞이한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2001)』, 정수일 역주에서 발췌



이미지 출처: https://www.palestineremembered.com/GeoPoints/Halhul_1162/Picture_72966.html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지와 기독교인 성지순례

“드디어 우리 일행은 공덕으로 보아 세번째 성사가 있는 꾸드스(예루살렘)-알라께서 영광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라술 알라(사도 무함마드)-그에게 평화를-가 야행승천한 곳이다. 도시는 꽤 큰데, 돌 조각으로 장식하여 사뭇 화려하다. 성군인 살라흐 알-딘 본 아우브 왕(통칭 살라딘)-이슬람을 위해 그에게 알라의 축복을-이 이 도시를 정복할 때, 일부 성벽이 파괴되었다.…이 도시에는 강 이라곤 없다… 성 꾸드스의 축복받은 명소로는 시 동쪽에 예수-그에게 평화를-의 승천소라는 한 건물이 있다.…이 계곡 속에는 기독교도들이 숭앙하는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마르얌(마리아)-그녀에게 평화를-의 묘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또한 기독교도들이 순례하는 큰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예수-그에게 평화를-의 묘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순례자들은 무슬림들에게 일정 양의 세금을 물다보니, 비록 자의는 아니지만, 순례를 좀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거기에는 예수-그에게 평화를-의 요람지가 있어…”

이븐 바투타, 『여행기(2001)』, 정수일 역주에서 발췌

예루살렘 답사와 페스트 대유행

“749년 3월 우리가 알레포에 있을 때 가자에 페스트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즐룬을 지나 바이트 알-무깃다스(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다행히 페스트는 지나갔다. 나는 거기서 … 설교사 앗즈 알-딘 본 자마야를 만났는데, 그는 인자한 이맘으로 월 설교 보수는 1천 디르함이다. 어느 날 그는 향연을 베풀어 … 내가 그에게 향연을 베푸는 까닭을 물었더니, 그는 페스트가 한창일때 페스트가 걸어서 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없게 되면 꼭 한번 향연을 베풀겠다고 발원한 바 있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어제는 망자를 위해 기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원한 대로 이 향연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나 빈 세이크들-그들에게 알라의 자비를-은 대부분 이미 지고한 알라의 결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남은 분들은 극소수인데, 예컨데… 등 몇 분 뿐이다… 나는 샴이나 이집트에서 아담-그에게 평화를-의 발자국 참배를 왔던 사람들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2001)』, 정수일 역주에서 발췌

예루살렘에 대한 동부 이슬람 세계의 관심

“우리는 부하라를 떠나 청렴한 성군인 알라 알-딘 타르마쉬린의 야차(지방 순회 동안 사용하는 임시 숙소)를 향해 출발했다. … 그 술탄은 권세가 대단하고 많은 군사를 소유 중이며 영토가 광활하고 국력도 막강하다. 게다가 치세도 공정하다. 그는 세계의 4웅 반열에 끼여 있다. 4웅은 중국 왕과 인도 왕, 이라크 왕, 우즈베크 왕이다. 이들 모두는 그와 예물을 교환하고 그를 존경하며 존대한다. … 술탄은 터키어로 “무고하신지요? 당신의 왕림은 경사입니다.”고 내게 했다. 그때 그는 푸른색 **예루살렘 산(産)**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같은 색상의 작은 모자(샤쉬야)를 쓰고 있었다. 내가 술탄에게 인사를 드리자, 그는 메카와 메디나, **예루살렘**-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에 관해, 칼릴-그에게 평화를-시에 관해, 다마스쿠스와 이집트 및 나쉬르 왕에 관해, 두 이라크와 그 왕들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 관해 두루 물었다. 통역관이 우리의 대화를 통역하였다. 이때 무앗진이 정오 예배를 알림으로 우리는 자리를 뒀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2001)』, 정수일 역주에서 발췌

결론

- 무슬림들은 노정 상에 있는 유대교·기독교·이슬람의 성인들과 관련된 유적지를 방문해 참배
- 이븐 바투타는 예수와 마리아 등을 성인으로 존경하지만 그들과 관련한 성지 중에서 기독교인들만이 성지로 모시고 무슬림들은 인정하지 않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음
-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 시 지불하는 세금이 성지 순례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미안해 함
- 무슬림들은 흑사병의 대유행을 하나님에 대한 참회와 자선, 기도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함
- 이제 막 이슬람으로 개종한 투르크 군주 역시 예루살렘을 여타 이슬람의 성지와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이들 지역들의 이모저모와 현재 상황에 관해 얼마전에 이곳을 다녀온 이븐 바투타에게 질의함

V. 결론

종교와 문명간의 충돌 속 안정과 교류

- 11~14세기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세 대륙의 기독교, 이슬람, 텡그리 교가 충돌한 대 격동의 시기
- 동아시아의 몽골과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당시 중앙아시아-서아시아-북아프리카를 차지했던 이슬람 권으로 군사 원정을 단행 → 물리적 충돌과 현지 정착 과정에서 세 세력의 직간접 교류의 폭증
- 십자군 전쟁은 유럽 유대인들의 순례와 정착을 촉진하고 여행기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
- 몽골군의 서방 정벌은 유라시아 전체의 직접 교류를 활성화 → 그 중간 지대와 주변지역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여행도 촉진 → 실크로와 실크로드 개척의 기폭제가 되어 글로벌 시대를 선도
- 각지의 무슬림들은 흑사병으로 인해 신앙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각 성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남
- 무슬림들은 기독교 성지를 관리하되 인정하지 않았고, 이 곳을 출입하는 이교도들에게 세금을 부과
- 불교·힌두교 등 아브라함 계통 이외의 종교 신봉자들의 예루살렘 방문 사례 발굴과 비교 연구를 기대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의 함의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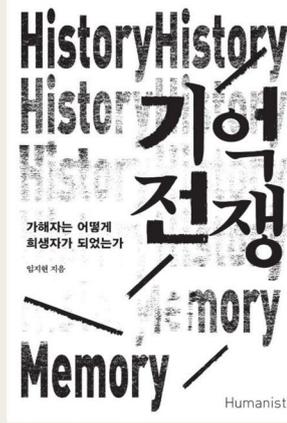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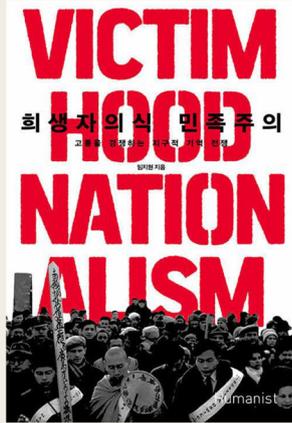
1940년대 유대인 이주와 이스라엘 우파의 피해자인식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목차

1. 경쟁하는 피해자의식
2.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과 이주의 흐름
3. 유대인 난민의 발생
4. 이스라엘 우파의 유대인 난민 인식과 피해자의식
5. 결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의 함의

1. 경쟁하는 피해자의식



피해자의식(희생자의식)에 토대를 둔 민족주의의 대립으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

1. 경쟁하는 피해자의식

- 한 집단의 주장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피해자의식과 상대방에 의한 피해의 기억
- “지구적 기억 공간은 누가 더 큰 희생자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한쪽의 희생을 인정하면 다른 한쪽의 희생은 부정되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민족주의적 인정투쟁이…자기 민족이야말로 집단적 희생자라고 읊소해 도덕적 공감을 얻어내려는 투쟁으로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115-1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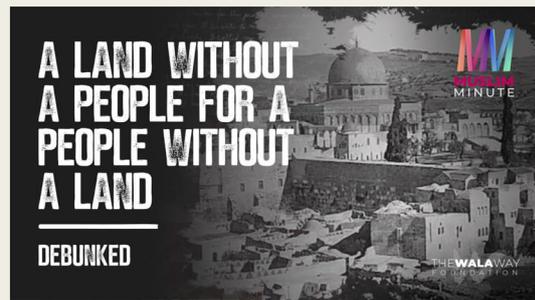
임지현, 『기억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2019.

1. 경쟁하는 피해자의식

- “누가 더 큰 희생자였는가를 가리는 민족주의적 경쟁과 전유”(기억전쟁, 169쪽)
-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담론의 토대로 이용된다는 지적
- 아랍인과 무슬림에 의한 유대인의 박해의 기억은 팔레스타인 난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아랍 무슬림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능

2.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과 이주의 흐름

- 19세기 말에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으로 유럽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 시작
- “땅 없는 민족”인 유대 민족의 고토 회복, 팔레스타인의 적법한 소유 민족으로서 “민족 없는 땅”에 대한 선점 주장 - 아랍인의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정체성 부정
- 팔레스타인은 “민족 없는 땅”이었는가? - 역사적 기억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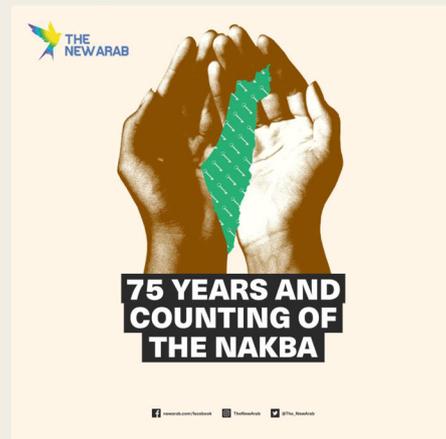
2.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과 이주의 흐름

-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와
난민화: 75~90만 명이 강제 이주
-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중심에
있는 나크바의 기억 - “돌아갈 권리”
-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도덕적 우위 근거



2.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과 이주의 흐름

- 나크바로 대표되는 팔레스타인의
서사는 이스라엘에 의한 피해자로서
팔레스타인의 위치를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스라엘의 존립 정당성을
위협
- 현재 팔레스타인이 겪는 핍박과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나크바



2.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과 이주의 흐름

- 나크바로 대표되는 팔레스타인의 서사는 이스라엘에 의한 피해자로서 위치를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스라엘의 존립 정당성을 위협
- 이스라엘, 난민 발생의 책임은 선제 공격한 아랍과 팔레스타인에게 있다는 대응 서사
- 팔레스타인인들은 강제가 아닌 아랍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는 주장과 팔레스타인인의 정착 흔적을 지우기 위한 '공간 학살(spacio-cide)' 비판

2.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과 이주의 흐름

- 공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경쟁은 지명을 둘러싼 경쟁의 형태로 발현
- 알쿠드스(القدس) 또는 우르슬라임(أورشليم) - 지명의 유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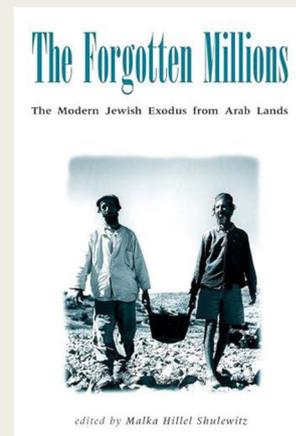
3. 유대인 난민의 발생

-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으로 - 아랍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제3의 이주의 흐름
-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 각지에서 성장한 반유대주의, 이집트, 이라크, 예멘, 북아프리카 등 아랍 지역의 유대인(미즈라히 Mizrahi)들 60만~85만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



3. 유대인 난민의 발생

- 아랍에 의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피해자의식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억으로써 팔레스타인의 피해의식과 역사적 기억에 대응
- 유대인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보다 더 많았으나 부당하게 망각되었으며, 팔레스타인 난민이 누리는 “특혜”도 받지 못한 존재



3. 유대인 난민의 발생

-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의 “인구 교환” –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일어난 인구 교환이라는 용어를 통해 난민 문제의 민감성 희석
- 무슬림으로부터 받은 탄압을 강조하는 역사적 기억, 타 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이슬람에 비판적인 여론 자극
- 스페인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 “700년의 이슬람 지배 역사를 공부해라”

3. 유대인 난민의 발생

- “유대인 이주에 관한 열린 논쟁은 팔레스타인의 ‘귀환할 권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기원에 관한 신화를 더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로 이어진다”

Avi Baker, “The Forgotten Narrative_ Jewish Refugees from Arab Countrie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7, no. 3/4, 2005.

- “60년이나 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실제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하기 위해 사용할 뿐이다...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강제로 떠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난민보다 50% 더 많으며 재산 피해도 더 컸다.”

Sidney Zabudoff, “The Palestinian Refugee Issue: Rhetoric vs. Reality,”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20, no.1/2, 2008.

4. 이스라엘 우파의 유대인 난민 인식과 피해자의식

“Tragedy of Mizrahi Jewish refugees emerges from the shadows”, JNS, 2014. 11. 25.

“Don’t forget the Jewish refugees from Arab and Muslim lands”, JNS, 2019. 12. 02.

- 여전히 정착을 거부하고 캠프에 머무르며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팔레스타인 난민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주류로 통합되는 것을 선택한 유대인 난민 대비 - 세계가 망각한 유대인의 고통
- 무슬림에 의한 차별과 박해의 역사의 연속선에 있는 유대인 난민 발생
-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적인 ‘아파트헤이트’ 국가라는 비난에 대응하여 아랍 유대인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의 유대인을 받아들인 역사 강조

4. 이스라엘 우파의 유대인 난민 인식과 피해자의식

“Are Jewish and Arab refugees created equal?”, JNS, 2024.01.31.

- 유대인 난민과 달리 팔레스타인 난민의 ‘특권’ - 정착을 거부한 채 난민으로서 국제사회의 장기적 지원을 받으며 난민 지위의 세습
- 아랍 국가에서 쫓겨난 유대인 난민에게는 난민 지위 인정이나 재정적 지원 등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4. 이스라엘 우파의 유대인 난민 인식과 피해자의식

- UNRWA와 국제사회의 난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 - 팔레스타인 난민만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UNRWA의 편향성
- UNRWA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판적 시각



4. 이스라엘 우파의 유대인 난민 인식과 피해자의식

“‘Deal of the century’ must address Jewish refugee issue”, JNS, 2019.06.02.

“Why the Trump peace deal must not ignore Jewish refugees”, JNS, 2018. 10. 30.

- 반유대인 감정을 선동한 팔레스타인의 지도부와 유대인을 박해한 아랍 각국 정부, 유대인 난민 발생에 책임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유대인 난민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보상 필요

5. 결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의 함의

- 20세기 초 유대인 정착의 정당성, 1948년과 1967년 전쟁의 책임, 테러리즘 또는 강제 점령 등의 쟁점과 함께 유대인 난민 문제 또한 상대에 의한 탄압의 역사를 강조하는 피해자의식,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 기억의 경쟁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한 측면
- 난민 문제를 둘러싼 경쟁하는 역사적 기억과 피해자의식의 갈등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아랍 유대인 문제는 우파 이스라엘인/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서사를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

5. 결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의 함의

- 유대인 난민에 대한 강조 -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핵심에 있는 나크바의 기억에 대한 대항 서사 역할
- 나크바에 토대를 둔 팔레스타인의 피해자 주장과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이스라엘을 '아랍의 탄압과 국제사회의 망각의 피해자'로 규정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정치적 배경에 더해 양측의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 분석 필요성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신성윤*

1. 들어가는 말

지난 가을에 일어났던 사태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분쟁 가운데 다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소박한 개인의 꿈과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온 몸으로 겪으며 그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이란인들의 아픔에 동시대를 사는 지구촌의 한 시민으로서 안타까움과 마음 깊은 위로를 표현하고 싶다. 모두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발했고 하마스가 예상하지 못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은 현대에 들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군사적 충돌이었다. 두 경우 다 중동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특이한 사태로 보이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찰과 분석이 요청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40년이 되지 못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도 45년 만에 발생한 직접적인 대치이다. 하마스와의 갈등은 1987년 웨스트뱅크에서 시작된 1차 인티파다가 그 시작이었고 이란과의 대립은 1979년 이란 팔레비 왕조가 혁명으로 축출되면서 촉발되었다. 국제적인 성격의 지역 분쟁으로는 둘 다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 헤즈볼라의 배후가 되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치를 다룬 관찰과 연구는 일상적 시사 보도에서부터 학자들의 심층적인 분석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중동 지역 정치의 관점에 기반하거나, 이 지역에 이권을 두고 다투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과 역학을 살피는 국제 정치학적 접근으로 이해된다.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은 아니지만 예멘 내전의 한 배후 세력이 되면서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 아라비아를 생각하면 작금의 이 충돌에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 주지하는 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싸움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 주도하는 대리전이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한 것은 당연히 이란의 지시 내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동 지역의 이 충돌은 작게는 수니파 이슬람과 시아파 이슬람 간의 다툼이고 크게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 충돌로 볼 수 있는 이해도 가능해진다.¹

본 발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영토 획정이나 자원 확보나 이데올로기 전파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넘어서는 듯이 보이는 이 지역 분쟁의 이면에서 충돌하는 세계관과 논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미 수십 년째 이어지는 하마스와의 갈등과 대 이스라엘 적대 정책의 끝에 터진 직접적인 충돌을 그 시초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지난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응전 그리고 4월 13일 이란의 공습과 이스라엘의 대응을 단편적으로 살펴면서 하마스와 이란의 대 이스라엘 공격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 유대 국가를 천명하는 이스라엘의 대응 논리를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란 표현이 어색하고 불편한 연구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이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강의교수, 구약성서학 박사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¹ 현지 아랍 언론에 공개된 한 하마스 지도자의 공언이 이를 반영한다.

어지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응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부연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날의 보편적인 정의는 한 주권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선전포고와 함께 군사력을 동원하는 국가적 무력 행위일 것이다. ‘전쟁’을 언급할 때 상기되는 국제적인 약속이 있다. 국제사회는 1864년에서 1949년까지 네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제네바 협약’을 완성했고 196개국에 이에 가입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기본적으로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 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² 테러는 전쟁과 다르다. 고전적 의미의 ‘테러’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 억압과 폭력의 정책”이었다.³ 하지만 오늘날의 테러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테러를 정의하는 가장 큰 요소는 ‘민간인’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의 국가기관과 법 조항은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을 테러로 규정한다. 테러에 대한 UN의 정의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 행위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조슈아 골드스타인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으로 테러를 정의한다.⁴

근 8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본 사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야기되었다. 하마스의 기습은 육상과 해상과 공중을 통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마스가 선전포고 없이 실행한 무력 행사였고 그 대상은 가자지구 국경을 경비하던 이스라엘 군에 제한되지 않았다. 당일 벌어진 하마스의 공격은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을 향한 의도적인 살상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자신들과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같은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아랍인들도 하마스의 학살 행위를 피하지 못했다. 10월 7일 사태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마스의 군사작전 곧 전쟁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민들을 향한 테러 행위였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حركة المقاومة الإسلامية [하르카트 알무카와마 알이슬라미야]의 두문자어(頭文字語)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무장 정파이다. 하마스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를 받아오던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점령 20년 만이었던 1987년에 대 이스라엘 무장봉기(제1차 인티파다)를 일으키면서 세이크 아흐마드 야신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초기 하마스는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가자지구 및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⁵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선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공존(‘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하던 기존의 집권여당 파타를 누르고 승리했다. 하마스의 총선 승리는 파타와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무력 충돌 끝에 파타는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그리고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었다.⁶

² https://ko.wikipedia.org/wiki/제네바_협약 (검색일: 2024. 4. 19).

³ [https://en.wikipedia.org/wiki/Terror_\(politics\)](https://en.wikipedia.org/wiki/Terror_(politics)) (검색일: 2024.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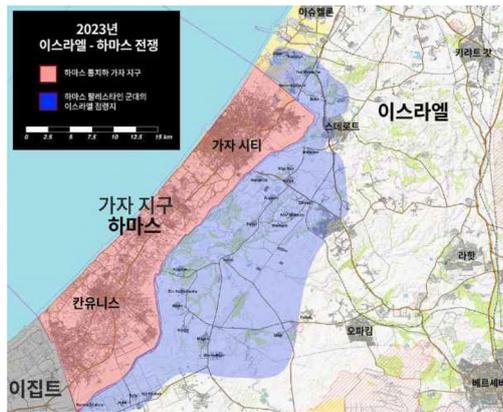
⁴ <https://namu.wiki/w/테러> (검색일: 2024. 4. 19).

⁵ 2009년 7월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마살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이스라엘 귀환 권리와 동예루살렘 수도가 보장된다면 하마스는 1967년 국경을 기초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결의안을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하마스> (검색일: 2024. 5. 2).

⁶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하여 미국의 주도로 1993년 시작된 오슬로 협정은 성공적인 결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일련의 협상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합의 도출의 마지막 기회로 보였던 클링턴 대통령의 주도의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도 실패로 돌아갔고 독립 국가를 기대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좌절은 깊어 갔다. 그 해 9월 이스라엘의 강성 우파 정치인 아리엘 샤론 리쿠드당 당수가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방문하면서 소요를 야기했고 그 소요는 제2차 인티파다로 이어졌다. 근 5년 간 이어진 제2차 인티파다로 이스라엘 측에서 천여명, 팔레스타인 측에서 삼천여명이 테러와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사망했고 양측 모두에서 수 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측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이스라엘 본토를 분리시키는 장벽 건설을 시작했고 2005년에는 일방적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가자지구 내의 21개 이스라엘 정착촌을 해체하고 약 8천

가자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영토 쪽으로의 공격은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2006년 이전부터 있었다. 2001년부터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이 날아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인근 지역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폭 넓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민의 일상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⁷ 2005년부터는 미사일 외에 박격포 공격이 시작되었고 2017년까지 가자지구로부터의 공격은 총 18,928 회 일어났고 이로 인해 72명이 죽고 4,440명이 부상을 입었다.⁸

가자지구로부터의 공격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이 달랐던 것은 그 방식과 피해 규모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50년 만의 충격이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으로 시작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은 국가의 운명을 백척간두로 내몰았고 그 사태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전쟁이 발발한 지 딱 50년 만에 그와 유사한 전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형태의 국토를 가진 이스라엘은 ‘전쟁의 중심’이 없는 편이서 영토 안에 전장이 형성되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어려워진다.⁹ 그런데 하마스가 가자 인근 이스라엘 남부지역의 상당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점령한 것이다.



22개의 소도시와 키부츠와 마을이 점령당한 가운데 약 1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250여명이 납치되어 가자지구 안으로 끌려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건국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태의 테러 공격이었다.

3. 이스라엘의 하마스 응징과 유대교 율법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는 군사작전을 벌인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 이후 가자지구의 하마스 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적어도 세 차례의 큰 군사작전을 벌였다: Operation Cast Lead (2008-9), Operation Pillar of Defense (2012), Operation Protective Edge (2014). 하지만 10월 7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그 방식과

명의 민간 정착민 그리고 군인을 가자지구 바깥으로 퇴거시켰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해인 2006년부터였다.

⁷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7818022.stm (검색일: 2024. 5. 2)

⁸ https://he.wikipedia.org/wiki/עזה_לישראל_מרועות_רקטות_שיגורי_רקטות_מרועות_של-סיקור_ההתקפות_של-ב_2009-1 (검색일: 2024. 5.2.)

⁹ 1982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18년간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도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이스라엘 영토 안이 아니라 레바논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규모에서 이전의 경우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차원의 도전에 대해 다른 차원의 응전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응징은 심각한 국제 여론의 악화를 야기했고 그 여파는 친 팔레스타인 내지 반 이스라엘 거리 시위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러 대학의 캠퍼스 시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규모 하마스 응징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 여론도 폭 넓게 형성되었다.

네타냐후 수상 중심의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판단과 결정은 심각한 질문들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세계 여론과 미국 내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한 반유대적 정서는 회복 불능의 수준에 이른 느낌마저 준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국민들도 전시 내각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응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으며, 국민 절반 이상은 전쟁을 야기한 상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지지한다.¹⁰

일부 언론과 논평가들은 부패와 비리 혐의 재판으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이스라엘 수상 개인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력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그 이전 시절부터 공언해왔던 것과 본인과 그 가정의 국가를 위한 봉사 경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스라엘 수상으로서 그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지도력은 개인적인 차원 이상의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제반 결정들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정한 원칙과 논리를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원칙과 논리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임을 천명한다는 부분이다.¹¹ 1948년 5월 14일 공포된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 (הגלילת העצמאות)는 영국의 지배가 끝난 팔레스타인 지역을 새로운 유대인의 영토이자 고대의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선포한다.¹² 독립 선언서는 1948년 10월 1일까지 제헌의 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단일한 성문 헌법 없이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조직, 권력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¹³

11 기본법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חוק אדם וחירות)는 “이스라엘에서의 인간의 기본권은 인간의 가치, 생명의 신성함, 자유인 됨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독립 선언의 원칙에 따라 존중될 것”으로 기본 원리를 규정한다.¹⁴ 이 기본법의 목적은 1a조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이 기본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대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가치를 기본법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¹⁵

이 조문에서 언급하는 ‘유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기본법의 서두에 등장하는 “인간의 가치”, “생명의 신성함”, “자유인” 등의 어휘에 암시된다.

¹⁰ <https://www.timesofisrael.com/over-half-of-israelis-say-theyre-let-down-by-war-cabinets-handling-of-hamas-conflict/> (검색일: 2024. 5. 7)

¹¹ 1985년 11 기본법 중 “국회”의 개정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이 더해졌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유대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Jewish_and_democratic_state (검색일: 2024. 5. 7).

¹²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의 첫 단락은 아래와 같다: “에레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탄생지였다. 이곳에서 그들의 영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국가적 지위를 이루었으며, 국가적 또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값진 문화를 만들었고 세상에 성경을 주었다.”

¹³ https://overseas.mofa.go.kr/il-ko/brd/m_11471/view.do?seq=662572&srchFr=&srchTo=&srchWor (검색일: 2024. 5. 7)

¹⁴ זכויות היסוד של האדם בישראל מושתתות על ההכרה בערך האדם, בקדושת חייו ובהיותו בן-חורין, והן יסודו ברוח העקרונות שבהכרזה על הקמת מדינת ישראל.

¹⁵ https://www.nevo.co.il/law_html/law00/70320.htm (검색일: 2024. 5. 7)

¹⁶ חוק-יסוד זה, מטרתו להגן על כבוד האדם וחירותו, כדי לעגן בחוק יסוד את ערכיה של מדינת ישראל כמדינה יהודית ודמוקרטית.

이 용어들은 근본적으로 유대종교적 표현들로 미쉬나 탈무드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유대교’와 ‘유대성’과 분리될 수 없다. 헌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기본법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유대인의’, ‘유대교의’, ‘유대적’ 사상이다. 그 핵심은 ‘토라’로 불리는 유대 율법과 그 정신이다. 실제로 현 전시 내각 안보회의에는 네타냐후 수상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최대 종교 정당 ‘샤스’의 당수 ‘아리에 데리’가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

즉히 수백 가지가 더 되는 율법 조항 또는 율법 사상 또는 율법적 원리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이번 전쟁에 입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1. 피의 보수(οτ πληα κε울라트 담)

과도하게 강력하고 무자비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일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다. 건국 이후 이스라엘은 MENA 지역에서 절대적인 절대적 다수에 둘러싸인 소국이었고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요르단과 수교를 이루었지만 그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변화되지 못했다. 한 명으로 백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전략은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도발에 대해서 매번 빠짐없이 강력하게 보복하는 것이다. 고통을 주는 대응으로 상대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이 방식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상황에 대한 율법적 대응 논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대교 율법에서 무죄한 민간인의 피살과 납치는 특이한 상황과 사건이 된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구약성서는 분명한 원리와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6)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οτν λακ 고엘 하담)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λακ οτν 고엘 하담)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17-21).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흘림의 대가는 피 흘림이었고 사람을 죽인 자의 피는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을 통해서 흘려져야 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피의 보수자는 죽음을 야기한 당사자를 죽일 수 있었다. 당사자가 요르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여섯 개의 도피성 중 하나로 들어가면 ‘고엘 하담’의 직접적인 보복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행위 율법이 ‘게울라트 담’(피의 보수)이다. 피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 및 유대 종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자의 친척에게 그를 죽인 자나 살해자를 죽임으로써 그 죽은 자 또는 살해당한 자의 피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¹⁶

피의 보수 원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 율법의 정신에 따라 무죄한 자국민의 피를 보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유대인들을 향한 크고 작은 테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 테러로 인한 자국민의 희생에 대해 이스라엘

¹⁶ [https://www.hamichlol.org.il/הלכה\(דםגאולת](https://www.hamichlol.org.il/הלכה(דםגאולת) (검색일: 2024. 5. 7).

은 일관된 대처를 해왔다. 그것은 테러 책임자를 찾아 현장에서 응징하거나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은 그 규모와 행태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미래에도 계속될 하마스 공격의 규모와 잔혹성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스라엘의 피의 보수는 발생한 피 흘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피 흘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규모와 방식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하마스를 뿌리 뽑는 것이고 문학적 수사나 아니라 실제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군사작전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 목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타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온 세계가 반대하고 가장 우방인 미국이 반대해도 이스라엘은 라파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무죄한 자국민 희생자들의 피를 보수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해야만 한다.

3.2. 포로 해방(פְּדוּיַת שְׂבוּיִים) 피디온 שבויים)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도적으로 보이는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또 다른 율법적 원리는 피디온 שבויים(포로 해방)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이 613 가지임을 정리했던 중세 유대 랍비 람밤은 포로 해방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했다. 포로가 된 동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가난한 동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우선이며, 포로 해방을 간과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닫지 말라’는 계명(신명기 15:7), ‘네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라’ 또는 ‘네 이웃이 위협에 처했을 때 보고만 있지 말라’는 계명(레위기 19:16; 이 구절에 대한 라쉬와 이븐 에즈라의 해석),¹⁷ ‘중으로 팔린 동료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계명(레위기 25:53)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가난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라’는 계명(신명기 15:11), ‘가난한 형제로 너와 함께 살게 하라’는 계명(레위기 25:36),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레위기 19:18)을 취소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포로 해방보다 더 위대한 계명은 없다고 람밤은 재차 언급한다.¹⁸

포로 해방의 계명과 관련하여 랍비들은 두 경우를 언급한다. 동족 유대인이 포로로 잡힌 것이 범죄의 문책이라면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과도한 몸값을 지불하지 말 것, 2) 무력을 동원하여 구출하지 말 것. 첫 번째는 과도한 몸값이 지불될 경우 유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염려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번 무력으로 구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포로에 대한 결박과 감시가 더 심해져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 포로의 경우는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테러로 납치당하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여겨지며 전시 상황에서 포로로 붙들리는 것과 동일시된다. 전시의 포로 구출은 구출작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가가 제한되지 않으며 무력의 사용에도 제한이 없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납치했다. 유대 국가 이스라엘은 납치된 자국민들을 구출해야 하는 율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살아 있는 자는 해방시켜야 하고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묻히도록(קבורה בישראל) 크부라 베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장례)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마지막 한 사람을 해방하거나 찾아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는 이유가 된다.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한 포로는 맥 여명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 30여명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로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한 편으로는 과도한 요구에도 응하게 되겠지만 한 편으로는 마지막 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의 실례가 이를 보여준다.

가자 지역 근무 중에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사병 길아드 살리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¹⁷ <https://www.sefaria.org/sheets/172297?lang=bi> (검색일: 2024. 5. 8).

¹⁸ <https://www.toraland.org.il/אמרים/כלכלה-ומשפט/מקוטואליה-במשפט-פדיון-שבויים> (검색일: 2024. 5. 8)

1027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하는 결단을 했다.¹⁹ 레바논 상공에서 피격되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공군 항해사 론 아라드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그의 생사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다. 지금이라도 그의 생사가 확인된다면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대 하마스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두 개의 율법적 원리 게울라트 담과 피디온 셰부임 간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피의 보수가 포로 해방의 장애가 되고 포로 해방의 논리가 피의 보수를 제한하게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긴장을 해소하는 나름의 원칙이 존재한다.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평시에는 개개인 생명의 가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전시나 위기의 때에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운명이 우선으로 여겨진다.²⁰ 이스라엘이 납치된 포로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포로의 석방이 공동체의 운명 곧 국가 안보를 우선할 수는 없다.

4. 4월 13일 이란의 공습

레바논과 접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지난 40 여년간 헤즈볼라 적대 행위의 영향을 받아왔다. 헤즈볼라(حزب الله 히즈부 알라)는 1982년 제1차 레바논 전쟁에서 호메이니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레바논 민병대가 그 출발이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에 의해 창설된 헤즈볼라는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조직으로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알라의 당’을 뜻한다. 2006년 2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하면서 헤즈볼라는 한 달에 걸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7월 전쟁; 제2차 레바논 전쟁).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튀르키예에 이어 중동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국가였다.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고 엘알 이스라엘 항공사는 테헤란-텔아비브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양국은 외교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교류했다. 그러나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그 모든 것은 뒤집어졌다. 이스라엘과 단교했고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은 PLO의 대사관으로 넘어갔다.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여긴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거부하는 레바논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이어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3일 지리적으로 2,000 킬로나 떨어진 이란이 수 백발의 무인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로 직접적인 이스라엘 공습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무인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은 대부분 도중에 격추당했지만 130발의 탄도 미사일 중 약 7기는 이스라엘 영토를 타격했다.

5. 이스라엘의 이란 응전과 유대교 율법

한번도 없었던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란의 핵무장 노력에 대해서 항의해왔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시설을 타격한 바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동의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

4월 13일 이란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은 4월 18일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그것이 미사일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폭격기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¹⁹ https://he.wikipedia.org/wiki/רונ_אראד (검색일: 2024. 6. 9)

²⁰ 이 사상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 50 절을 보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규모의 대응이었다. 상당히 절제되어 보이는 이 조치가 단회적 보복이었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공격에 앞선 탐색전이었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공습은 이란 공격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공습이 없었더라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고 여긴다. 그것은 이란 정권이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대 이스라엘 적대정책에 기인한다. 이란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지구 상에서 지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식화된 대 이스라엘 적대 노선 하에서의 이란 핵무장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다.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편적인 안보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의 절대적인 의무로 만드는 것은 유대 율법 조항과 사상이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는 남의 집을 침입한 도둑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문맥이 설명하는 것은 낮 시간에 물건을 훔치려고 집 안에 도둑이 들어온 경우 그를 내쫓는 것을 넘어 그를 처서 죽이게 되면 그것은 유죄가 된다. 하지만 밤에 도둑이 들어왔고 제대로分辨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집 주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대를 쳤는데 그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무죄라는 뜻이다. 이 구절을 해석한 중세 유대 랍비 라쉬(Rabbi Shlomo Yitzchaki, 1040-1105)는 탈무드 산헤드린의 구절을 인용한다: ‘당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은 당신이 먼저 죽이라’고 말한다(산헤드린 72A).²¹ “유대교에서 ‘당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은 당신이 먼저 죽이라’는 것은 자기방어로서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의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르게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도덕적 원리이다.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볼 때 실제로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²²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존엄한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의무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다. 살인을 금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후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버전의 속담이 회자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당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은 당신이 먼저 죽이라”
“당신을 죽이러 일어나는 사람은 당신이 먼저 죽이라”²³

두 번째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이유 없이 당신을 죽이러 다가오는 사람을 먼저 제압하는 것은 물론 당신을 죽이러 일어나는 사람 곧 그것을 의도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먼저 제압하라는 뜻이다.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의 이 율법적 원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최근 이스라엘 수상의 언론 발표는 정확히 이 입장을 반영한다:

²¹ הבא להרגך השכם להרגו (סנהדרין ע"ב ע"א)

²² https://he.wikipedia.org/wiki/הבא_להורגך_השכם_להורגו (검색일: 2024. 5. 9)

²³ הקם להרגך השכם להרגו



그리고 이 원리는 민족이나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에 대한 선제 공격을 허용한다. 이란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공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전망된다.

6. 대 이스라엘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의 본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하마스의 목표는 그들의 정강을 따른 것이다. 셰이크 아흐마드 야신(1936-2004) 중심의 하마스 설립자들이 1988년 8월에 발표한 하마스 헌장은 장기적인 무력 투쟁 전략을 통한 이스라엘 제거를 천명한다. 2017년 하마스는 헌장 일부를 수정하는 정책 노선을 발표했다. 하마스는 “강에서 바다까지” 즉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최우선적 의무로 제시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전체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안에 동의할 의향이 있음을 비쳤다.²⁴ 하지만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1967년 국경선에 의거하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입장은 양립될 수 없어 보인다. 1967년 국경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요구는 정당해 보이지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목표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자신들이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투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 이 지역 아랍인들은 한번도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국가나 그것에 상응하는 정치적 실체를 가진 적이 없었다. 16세기 초반 이후 팔레스타인은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오스만의 통치가 끝난 1917년부터는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점령 지역이었다. 영국의 신탁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 무슬림들과 아랍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해오던 땅이었다.²⁵ 오스만 터키 통치 기간 동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400년 기간 내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는 대략 수십만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현재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대략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랫동안 세 유일신 종교의 성지라는 것을 빼놓고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변방이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 증가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²⁶ 하마스가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권리는 귀환하

²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진일보한 입장을 하마스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태도를 고려한 기만적 행위로 이해했다. https://he.wikipedia.org/wiki/אמנת_אחמד (검색일: 2024. 5. 10).

²⁵ 이스라엘 건국 이전 시기에 출간된 브리테니커 사전의 “Palestinians” 항목이 이를 설명한다.

²⁶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19세기 말 시온니즘 운동 이전에도 주요 4개도시(예루살렘, 헤브론, 세겜, 사페드)에서 유대인들이 거주했다(소수의 유대인들이 악고와 티베리아에서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음).

반유대주의에는 일말의 탈출구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유대인이 유대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는 더 이상 종교적 반유대주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종적 반유대주의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를 표현한다.

하마스와 이란의 이스라엘 적대 정책은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정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³⁰ 하마스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이스라엘 축출이 의미하는 바는 10월 7일 테러 공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유대인 학살이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란 지도자들이 외친 이스라엘 지우기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망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자는 의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실례는 그들의 고대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고대 제국 페르시아의 통치 시기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 곧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공식적인 시도가 있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칙령이 1년의 시간을 두고 미리 공포되었다. 자신이 유대인 신분을 숨겼던 왕후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대 민족은 25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³¹

7. 나가는 말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본래는 북부지역에 대한 헤즈볼라와 공격과 동시에 진행되기로 계획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 남북에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남북으로 동시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을 받았던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욘 키푸르 전쟁)은 건국 이후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였다. 두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은 초기 남부에 전력을 집중하여 먼저 이집트 군을 제압하고 난 후에 북쪽으로 전력을 이동시켜 시리아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다. 왜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더불어 동시에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사안이다.³²

이스라엘이 수천 년 이어진 극심한 반유대주의를 극복해 왔다면 앞으로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속적 생존이 어느 민족에게나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생존 본능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랬더라면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했던 다른 민족들의 경우들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보인다. 오늘날까지 유지된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생존이 그들이 가진 독특한 선민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 역사를 망각하지 말 것을 강조해온 그들의 교육에 기인하는 것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표현처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왔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안식일이 없어지는 역사적 변화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하마스와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유대 율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제是大 이스라엘 적대 노선 가운데 이번 충돌에 개입한 하마스나 이란의 입장이나 관점, 그 이면에 있는 논리도 연구되어 제시되어야 할 듯하다. 양측의 관점과 논리를 비교해보면 작금의 중동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평가는 좀더 분명해질 것이다.

³⁰ 역사적으로 유대교에 대해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둘 다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교가 아브라함 종교의 시조가 되는 유대교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는 종교적 반유대주의가 되지 못한다.

³¹ 구약성서 에스더서의 내용을 참고하라.

³² 한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가자지구로 끌려가는 상황을 알고도 이스라엘 군이 그 쪽으로 긴급 동원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확도가 높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북쪽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비하여 주요 예비군 병력을 북쪽 국경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제2부 1분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분과 중동 지역의 이주 현황과 수용국의 태도

[좌장]

김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중동발 난민 수용의 전환적 방법론 - 공여국 내 난민 ODA 확대와 그 함의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영화 속 팔레스타인 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재현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차별 양상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중동발 난민 수용의 전환적 방법론

- 공여국 내 난민 ODA 확대와 그 함의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유형 중 하나인 ‘공여국 내 난민(Refuges in donor countries)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내적 맥락에서 적용 및 확대 가능성의 유무를 판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의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해결에 난망을 보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우리는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수용 등 최근 5년 동안 중동발 난민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앞으로 중동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난민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역대 정부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ODA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임기가 시작된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 운영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ODA를 통해 선도적인 협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1).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인권, 자유 등이 분쟁,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의 ODA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2).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에는 국내 난민 신청이 11,539건을 기록하여 2017년 9,942건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난민인권센터, 검색: 2024.02.19.). 이를 토대로 볼 때 향후 국내 유입 난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꾸어 생각하면 국내 유입 난민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방대학 붕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론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의 사업유형 중 하나인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의 국내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공여국 내 난민 ODA

1.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ODA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집행되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구성되는 자금이라고 1969년에 정의했으며,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KOICA 오픈데이터 포털 a, 검색일: 2024.02.01.).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의 기여가 주목적일 것.

셋째, 차관일 경우, 양허적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넷째, DAC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 및 그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a, 검색일: 2024.02.01.)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DAC는 ODA 효과 증진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는 ODA에 대해 통계 지침을 마련하여 ODA의 사업유형과 원조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라는 원조유형은 ‘기타 공여국 내 지출(Other in-donor expenditures)’에 포함되어 있다.

<표1> ODA 원조유형 및 사업유형

	원조유형	사업유형
1	일반 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예산지원 (Budget support)
2	국내/국제 NGO, PPP, 연구소 등에 대한 비지정 기여 (Core support to NGOs, other private bodies, PPPs and research institute)	비지정 기여,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Core contribution and pooled programs and funds)
3		다자기구 비지정 기여 (Core contribution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4		국제기구 (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Contributions to specific-purpose programs and funds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5		합동기금 지원 (Basket funds/pooled funding)
6	프로젝트 원조 (Project-type interventions)	프로젝트 원조 (Project-type interventions)
7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Donor country personnel)	전문가 및 기타기술원조 (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8	기타 기술원조 (Other technical assistance)	
9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Scholarships/training in donor)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country)	
10	연수생 교육기관업 지원 간접비용 (Imputed student costs)	
11	채무구제 (Debt relief)	채무구제 (Debt relief)
12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13	개발에 대한 인식확산 (Development awareness)	기타 공여국 내 지출 (Other in-donor expenditures)
14	공여국 내 난민 지원 (Refuges in donor countries)	

(출처: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b, 검색일: 2024.02.01.)

일반적으로 ODA는 수혜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공여국의 지원으로 인식된다. 그런 점에서 ‘기타 공여국 내 지출’ 항목의 존재는 다소 낮설 수 있다. 그러나 공여국으로의 난민 유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전쟁 포로 가운데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제3국으로 향한 인원도 일부 존재한다(허동운 2022, 검색일: 2024.02.10.). 아울러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기준으로 정치적 난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여국으로 유입된 난민의 처우와 그 지원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DAC는 선진공여국으로 유입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ODA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 1988년에 가이드 라인을 처음 수립했다(조영희, 김성규 2019, 17). 이후 DAC에서는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난민 인구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ODA로 계상할 수 있도록 5가지 명확한 지침(five clarifications)을 2017년에 마련하기에 이른다(OECD a, 검색일: 2024.02.18.). 이는 선진공여국이 국내 난민 지원 ODA를 과도하게 계상하여 전체 ODA 예산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표2> 공여국 난민 지원 비용에 대한 ODA 계상의 5가지 명확한 지침

	항목	내용
1	공여국 비용의 ODA 계산 근거	난민 보호는 법적 의무이며, 난민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함
2	적격한 난민의 범주	그 범주는 국제법적 정의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는 망명 신청자와 인정 난민도 포함됨
3	12개월 법칙	12개월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국제 원조 자금 흐름의 통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재확인함
4	특정 비용 항목의 적격성	음식, 쉼터, 훈련 등 임시 생계비용은 적격하지만, 난민을 공여국 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비용은 적격하지 않음
5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론	보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출처: OECD a, 검색일: 2024.02.18.)

2. 선진공여국 및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현황

DAC 회원국, 이른바 선진공여국은 공여국 내 난민 ODA를 활용하여 자국 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조영희, 김성규 2019, 25).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DAC에서는 2017년에 이르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표2>에 상술되어 있듯이 난민 보호는 법적 의무이며, 난민에 대한 지원이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지침에 기초하여 선진공여국이 자국 내 난민 지원 ODA를 더욱 활발히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공여국이 자국 내 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ODA의 내수화’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 난민보호협약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난민 보호인데,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ODA로 충당하고 만다는 것이다(최원근, 권재범 2023, 3-4). 하지만 선진공여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랍의 봄 이후 일련의 내전으로 인한 중동발 난민,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난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발 난민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경향성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선진공여국이 자국에 유입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ODA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간단히 말해, ODA의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이 기존에 견지하던 ODA에 대한 관점은 난민 발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이를테면 인권침해, 자연재해, 내전, 소수자 박해 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해당 국가의 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기존 ODA의 방향성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규모 난민 발생은 기존의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ODA 정책 차원에서 자국으로 유입된 대규모 난민에 대해 ODA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Knoll et al. 2017, 80-8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이러한 움직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까지는 국내에 유입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ODA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DAC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을 위해 ODA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마저도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OECD b, 검색일: 2024. 02. 15.).

<표3> G7 및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금액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DAC 총합	11,568	10,602	9,350	12,840	31,758
미국	1,747	1,990	1,574	4,745	7,281
영국	552	698	867	1,447	4,842
캐나다	578	549	729	463	886
이탈리아	1,162	480	239	556	1,612
독일	4,157	3,365	2,814	2,732	5,116
프랑스	847	1,331	1,287	1,156	1,683
일본	0.3	0.3	0.3	0.3	64
한국	1.8	1.5	1.4	0.5	11

(출처: OECD b, 검색일: 2024.02.15.)

III 한국 정부의 ODA 방향 및 공여국 내 난민 ODA의 효용성

2008년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당대의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ODA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겨 왔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개발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ODA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과학·기술 ODA, 녹색 ODA, 문화 ODA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앞선 두 정부의 기초에 더해 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ODA 전략을 세밀히 추진하였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1).

윤석열 정부는 앞선 세 정부의 ODA 정책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그간의 국제 및 국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생태계가 조성된 전략적이고 선진화된 OD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1).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전환된 경험을 살려 한국형 ODA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3). 이러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에 있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4).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주된 ODA 방향성 역시 <표1>에 제시된 ODA 사업유형 가운데 ‘비지정 기여,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국제기구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원조’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에 유입된 난민을 지원하는 OD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지난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전면 시행하여 인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난민 문제를 화두에 올릴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국적 시장 조사 기업인 입소스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나 박해로 나라는 떠나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37%가 반대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기존) 난민의 체류는 괜찮으나, 더 이상의 수용은 안 된다’는 입장 역시 54%로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입소스 2023, 검색일: 2024.02.15.). 특히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국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은 난민이라는 단어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단어로 400명이 채 안 되는 국내 입국 아프가니스탄인을 소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ODA 기초에서 국내 정착 난민에 대한 ODA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여국 내 난민 OD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붕괴 위기의 지방대학에 대한 새로운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와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가 협력하여 22세에서 39세 사이의 시리아 난민 150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ODA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3년간 유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선발된 이들은 미래에 시리아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학, 경영, 정치, 행정, 농업, 일본학 등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ODA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하면서 DAC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ODA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조영희, 김성규 2019, 34-35).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제주에 정착한 예멘 난민,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서도 JICA-UNHCR 협력 프로그램과 비슷한 사업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면 지방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저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난민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압력으로 이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 학력 등이 자발적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상대적

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난민은 정착지의 부족한 저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보완 또는 완화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박복영 2018, 92). 따라서 난민이 고국의 상황이 호전되어 귀국하는 경우 고국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ODA로 마련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저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에 따른 난민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 국내적 맥락에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정치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글로벌 책무에 걸맞은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에도 이어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ODA 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해외 난민은 물론 국내 유입 난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제외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현 정부 역시 해외 수원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ODA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국내 난민에 대한 ODA는 다소 그 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여국 내 난민 ODA는 선진공여국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으로 인해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이후로는 적은 비중이나마 공여국 내 난민 ODA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비록 해당 예산은 ‘임시적’인 지원에만 국한하여 계상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일본의 선례를 보았을 때 그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지원책임이 틀림없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우회할 수 있을뿐더러 지방대학 활용 모색, 저숙련 노동자 부족 보완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여국 내 난민 ODA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제42-1호)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Retrieved from https://www.odakorea.g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5731c73499614aef8d56bb707b6e1441&convType=img&convLocale=en_US&contextPath=/SynapDocViewServer(검색: 2024.01.30.).
- 난민인권센터 (2023).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Retrieved from <https://nancen.org/2344>(검색: 2024.02.19.).
- 박복영 (2018).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6), 86-94.
- 입소스 (2023). 난민 수용에 따른 변화와 지원 정책, 한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Retrieved from <https://www.ipsos.com/ko-kr/%EB%82%9C%EB%AF%BC-%EC%88%98%EC%9A%A9-%EB%B3%80%ED%99%94-%EC%A7%80%EC%9B%90%EC%A0%95%EC%B1%85-%ED%95%9C%EA%B5%AD%EC%9D%B8%EB%93%A4-%EC%9D%B8%EC%8B%9D>(검색: 2024.02.15.).
- 조영희, 김성규 (2019). (2019-07)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연계.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시리즈. 서울:이민정책연구원.
- 최원근, 권재범 (2023). 난민정책과 공여국 내 난민 ODA 연구: 이탈리아 및 캐나다 사례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함의. 국제개발협력연구, 15(2), 1-19.
- 허동운 (2022). [공적개발원조, 광주형 ODA를] (6)난민으로 인한 갈등. 광주드림. Retrieved from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450>(검색: 2024.02.10.).
-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a. ODA 정의. KOICA. Retrieved from https://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1000S01(검색: 2022.02.01.).
- b. ODA 지원형태 및 최근추이. KOICA. Retrieved from https://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검색: 2022.02.01.).

■ 영문자료

- OECD a. In-donor refugee cost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refugee-costs-oda.htm>(검색: 2022.02.18.).
- b. 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ECD.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qwids/#?x=1&y=6&f=4:36,2:1,3:51,5:3,7:2&q=4:1,36+2:1+3:51+5:3+7:1,2+1:2,63,7,58,23,17,6,20,12,75,19,3,15,14,5,18,13,22,172,4,16,21,8,190,62,10,11,60,61,24,9,59,36,G2+6: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검색: 2022.02.15.).
- Knoll, A. and Sherriff, A. (2017). Making Waves: Implications of the irregular migration and refugee situation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pending and practices in Europe. ECDPM. Retrieved from <https://ecdpm.org/application/files/2416/5546/8808/ECDPM-EBA-Making-Waves-Migration-Refugee-ODA-Europe-2017.pdf>(검색: 2024.02.15.).

영화 속 팔레스타인 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재현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영화에 드러난 팔레스타인 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재현

2024 한국중동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김은지(한국외대 중동연구소)



01 팔레스타인 영화

팔레스타인 투쟁을 위한 자기 표현의 도구이자 정의를 위한 수단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탈피하려는 움직임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국적의 팔레스타인 사람의 제작 영화

Michel Khlefi: 팔레스타인 영화의 미학에 대해 언급

01 팔레스타인 영화

1세대: 1935-1948년의 태동기

2세대: 1948-1967년의 침묵기

3세대: 1968-1982년의 망명기

4세대: 1980-현재의 귀환기

02 선행연구: 팔레스타인 영화

김종남·안정국(2020):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 영화의 주제의식 연구

임소연(2024): 엘리아 술레이만 감독 영화의 묘사 분석

박의경(2013): 영화 <레몬트리>에 드러난 이-팔 분쟁의 해결 시도

팔레스타인 영화에 대한 국내 연구와 분석은 미미함.

02 선행연구: 정체성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공존과 동화, 경계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확립

분쟁 시대 속 팔레스타인의 존재

03 팔레스타인 두 감독

하니 아부 아사드

엘리아 솔레이만

1960년대생, 나사렛 출신의 팔레스타인 영화 감독

03 하니 아부 아사드



Hany Abu-Assad(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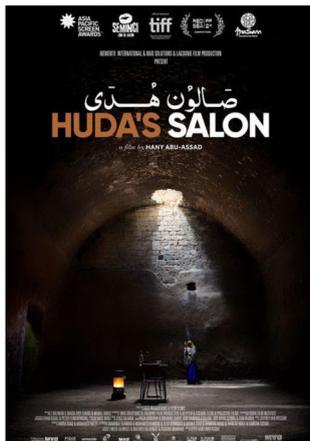
네덜란드계 팔레스타인 영화감독
1981년 네덜란드로 이주

<수상내역>

- 2013 제66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심사위원상
- 2006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 외국 영화상
- 2006 제6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 2005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UIP베를린상
- 2005 제18회 유럽영화상 유러피안 각본상
- 2003 제3회 광주국제영화제 인권상

03 하니 아부 아사드의 작품

후다의 미용실(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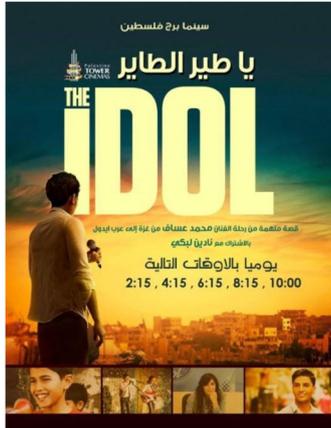


<내용>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치열한 정보 전쟁에 이용당한 여자들의 숨 가쁜 생존 투쟁을 그리고 있다. 나디아는 머리를 자르러 후다의 미용실에 들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다. 후다는 나디아에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꼬나풀이 되라는 협박을 한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집에 돌아온 나디아는 후다가 팔레스타인 레지스탕스에게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후다의 미용실에 자신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협력자임을 증명하는 사진이 있기에 나디아는 안절부절한다. 한편 후다는 팔레스타인 레지스탕스에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나디아의 사진을 숨기려 한다. 두 여자는 적대하는 두 조직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03 하니 아부 아사드의 작품

노래로 쏘아올린 기적(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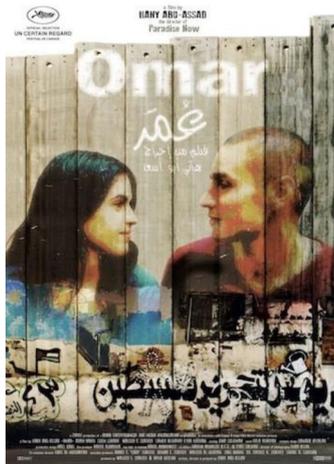


<내용>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 팔레스타인 가자 난민 지구에 살고 있는 소년 아사프 노래를 좋아하는 그의 꿈은 누나와 함께 카이로의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약기 하나 구하기 힘든 현실, 갑자기 불어 닥친 불행은 소년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 어느 날, 전 세계 오디션 열풍을 몰고 온 '아랍 아이돌' 예선 소식이 들리고, 아사프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한다. 삼엄한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의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아사프. 생방송 무대에 오른 그의 노래는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데...

03 하니 아부 아사드의 작품

오마르(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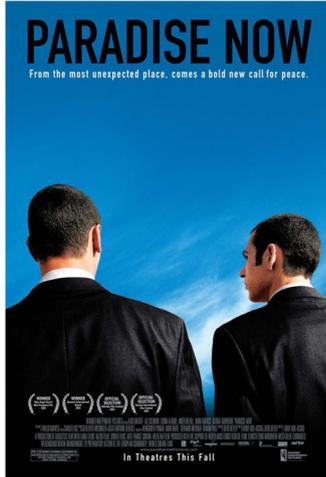


<내용>

팔레스타인 제빵사 '오마르'는 여자친구 '나디아'를 만나기 위해 총알이 빗발치는 장벽을 수시로 넘나든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타렉', '암자드'와 이스라엘 군부대를 습격하는 일에 가담하기로 한 '오마르'. 하지만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그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이중첩자가 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된다. 비밀경찰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는 '오마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정, 사랑 그리고 평범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중첩자의 멧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장벽 앞에 선 '오마르'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밀과 거짓말에 부딪치게 된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03 하니 아부 아사드의 작품

천국을 향하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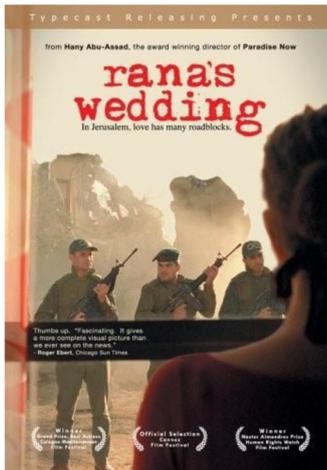


<내용>

이스라엘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들의 암재와 차별정책, 절대적 빈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의 젊은 청년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는 자신의 온몸을 산화시켜, 이스라엘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뿐이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라온 자이드와 할레드도 어느날 저항군 조직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순교자의 소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막상 가슴에 폭탄 띠를 두르고 이스라엘로 향하던 두 청년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것 보다는 영웅적인 죽음을 택해 천국으로 가고자 했던 그들. 그러나 과연 끊임없이 죽이고 죽고,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는 이 저항방식이 그들이 원하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

03 하니 아부 아사드의 작품

라나의 결혼(2002)



<내용>

라나는 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최후 통첩을 받는다. 이미 골라진 신랑 후보들 중에서 남편을 고르지 못하면 아버지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다. <라나의 결혼식>은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여성의 힘겨운 하루를 그리고 있다. 점령된 예루살렘에서 그녀는 10시간 내에 숨겨놓은 남자친구 칼릴을 찾아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식을 올려야만 한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전쟁의 상처들 속에서 라나는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Elia Suleiman(1960)

팔레스타인 감독, 배우

<수상내역>

2009 제3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심사위원상
2002 제15회 유럽영화상 유럽영화아카데미 비유럽영화상
2002 제38회 시카고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2002 제55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여기가 천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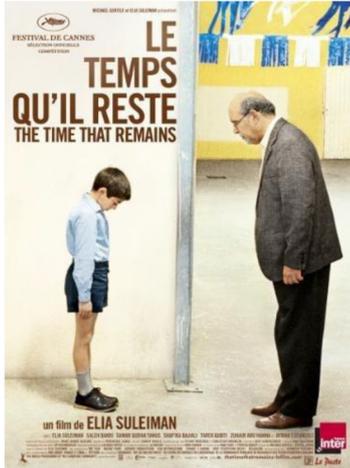


<내용>

감독이자 배우인 엘리아 슐레이만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새로운 고향을 찾고자 한다. 나자렛을 떠난 슐레이만은 파리, 뉴욕 등 세계적인 대도시를 거닐고, 많은 지인들, 제작자, 작가, 배우 등을 만나 자신의 영화를 알리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슐레이만은 어느 곳을 가나 자신에게서 이방인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음을 알게 된다. 기발하고 냉소적인 유머로써 팔레스타인은 물론 세상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03 엘리아 슬레이만의 작품

팔레스타인(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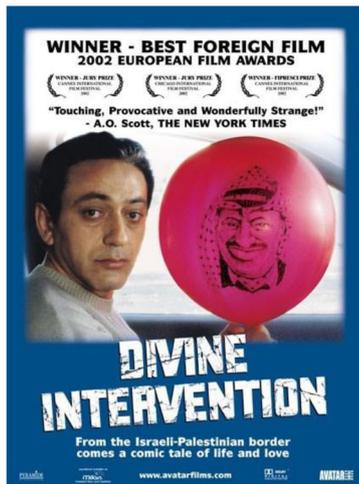


<내용>

팔레스타인 영화의 자존심 엘리아 슬레이만이 7년 만에 내놓은 세 번째 장편.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다룬 수작이다. 이스라엘군이 나자렛을 점령한 1948년부터 현재까지를 네 개의 장으로 구성했고, 특유의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슬레이만 자신의 존재감으로 강렬한 정치성을 담보한다.

03 엘리아 슬레이만의 작품

신의간섭(2002)



<내용>

나사렛, 산타클로스 복장의 남자가 가슴에 칼을 꽂은 채 여러 명의 아랍 아이들에게 쫓기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년의 남자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힘담과 저주를 퍼붓는다. 버스정류장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사내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쓰레기를 남의 집에 던지는 남자, 공병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남자, 주차 문제로 빚어지는 이웃간의 분쟁 등 나사렛의 일상이 된 일화들이 나열된다. 예루살렘, 이곳에 사는 E.S는 라말라에 사는 팔레스타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해묵은 갈등 때문에 이 과묵한 연인은 라말라와 예루살렘 국경 지대인 알람 검문소의 공터에서 만남을 이어간다. 한편 E.S는 병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병원을 왕래하지만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는 운명을 달리한다.

04 두 감독의 비교

나사렛 출신의 팔레스타인 감독

이스라엘 영토의 팔레스타인의 시선

1960년대생으로 이스라엘 국가 건설 과정 이후 팔레스타인의 변화를 직접 체험

현지 촬영을 통한 실제의 반영

04 두 감독의 비교

하니 아부 아사드: 실제와 허구의 교차, 외부자의 시선

엘리아 솔레이만: 감독 자신, 1인칭의 시선, 공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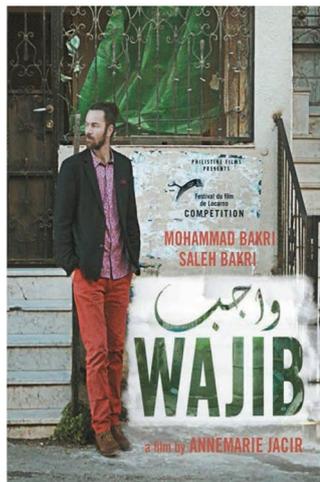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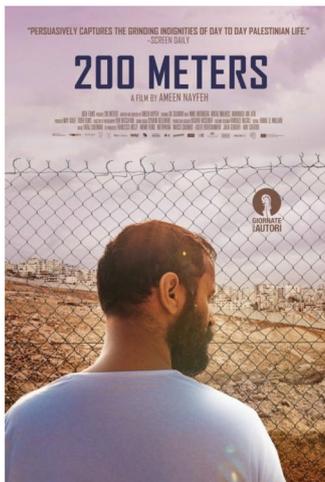
05 영화 속 시선

팔레스타인 대의와 개인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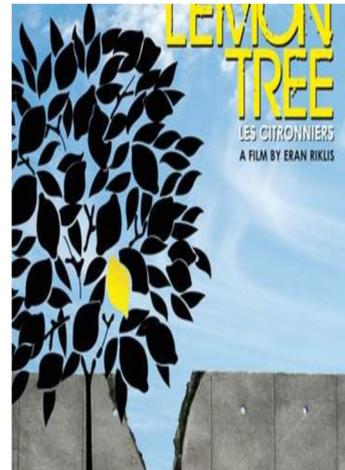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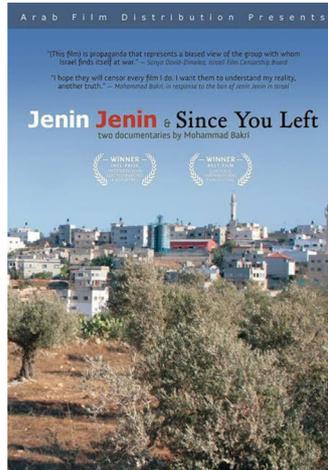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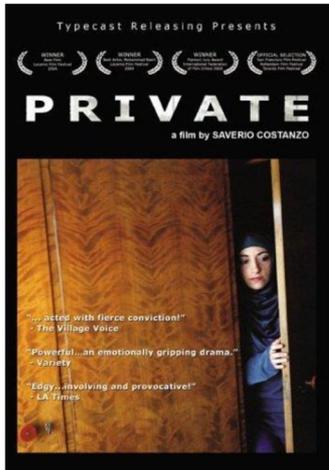
공간적 분리와 묘사의 기법

갈등의 발생과 해결 방식, 결말의 유도

06 팔레스타인 영화



06 팔레스타인 영화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차별 양상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차별 양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이경수

목차

- ❖ 강제 이주와 팔레스타인 난민
- ❖ 나크바와 나크사 이후 유입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태도
- ❖ 시리아 내전 이후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태도
- ❖ 2023년 말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태도
- ❖ 귀환의 불투명성과 수용국 안보의 불안 요소로서의 팔레스타인 난민

강제 이주와 팔레스타인 난민

강제적인 이주로 인한 난민 발생

정치적 요인	정치적 불안정, 전쟁, 박해 등
경제적 요인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 위기, 환경 위기 등
민족-문화적 요인	인종적, 종교적, 부족적 갈등

팔레스타인 난민

- 팔레스타인 난민:

“1946년 6월 1일부터 1948년 5월 15일까지 팔레스타인에 정상적인 거주지가 있었고 1948년 분쟁의 결과로 집과 생계 수단 모두를 잃은 사람”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기구, UNRWA)

- 1967년 나크바로 인한 난민도 UNRWA소관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이주한 경우는 제외됨
- 팔레스타인 난민은 귀환이 가능한 자국 정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으나, 수용국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명목상 더욱 요원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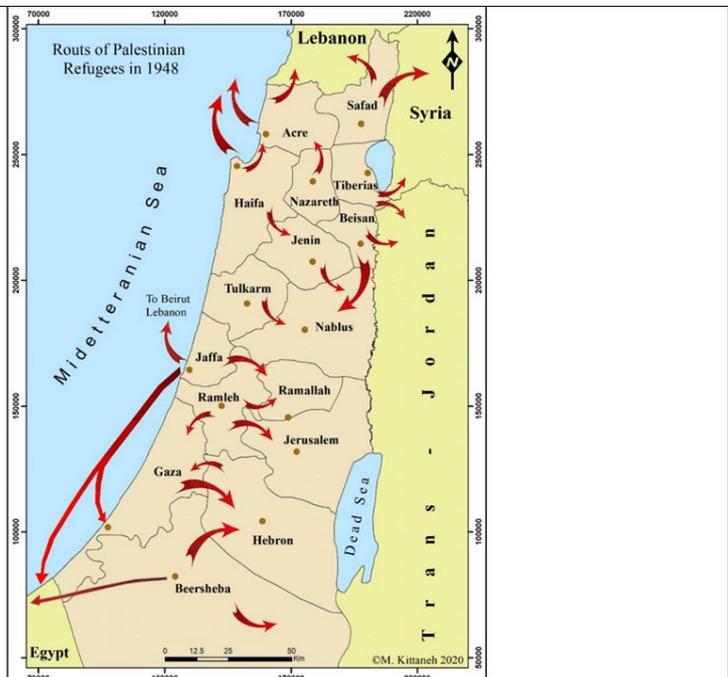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

- 나크바(1947-1949):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선포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78%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선포됨. 이스라엘 영토가 된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무력에 의해 강제로 이주하게 됨.
- 나크사(1967):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구,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을 점령함. 추가로 점령된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됨.
- 시리아 내전(2011~현재): 최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였던 야르무크 캠프(Yarmouk Camp)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지가 내전을 피하지 못하면서 시리아 내 팔레스타인인 중 약 절반인 27만 명 이상이 시리아 국내외로 이동하여 피란민이 됨.

나크바와 나크사 이후 유입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수용국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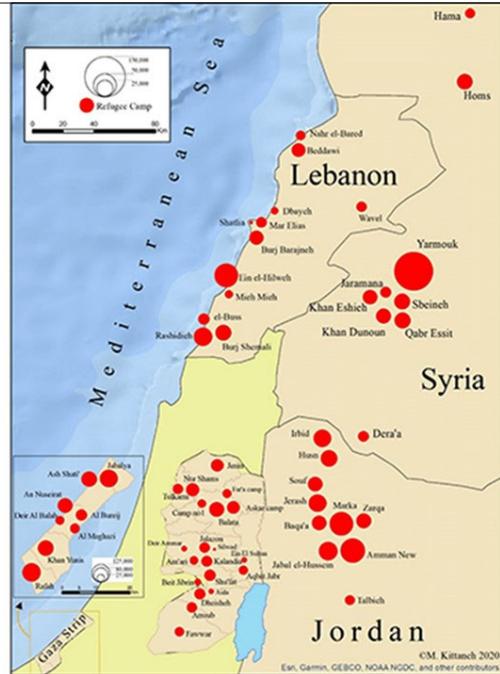
1948년 당시
팔레스타인 난민의
인근 아랍 국가유입
경로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Routs-of-Palestinian-Refugees-in-1948-Created-by-Kittaneh-2020-based-on-a-map_fig1_350893895



팔레스타인과 인근 아랍 국가 내 팔레스타인 난민촌 현황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Palestinian-refugee-Camps-in-Jordan-Lebanon-Palestine-and-Syria-Created-by-Kittaneh_fig2_350893895



요르단

- 나크바 이후 요르단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1948년 5월 15일 이전 유대인이 아니면서 팔레스타인 국적을 소유하고 해당 법안 공포일 현재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1954)
- 요르단 정부는 UN 결의안 제 194조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의 귀환과 보상 받을 권리를 유지한 채 요르단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1970년-1971년 검은 9월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 변화
- 1988년 7월 31일 이후 요르단강 서안지구(요르단의 통제권 밖의 영토)로 이주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시민권 취소
- 시민권을 받은 팔레스타인들은 요르단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나 정부나 군대 등 공공 기관 내 고위직으로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며 고용, 주택 취득,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음

레바논

- 나크바로 인한 난민들 중 기독교인들과 일부 부유한 무슬림들의 경우 시민권 획득
- 법령 319호(1960):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출신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가 누락된 상태로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외국인으로 명시함
- UNRWA 와 같은 국제 기구에 의해 발급된 여권이나 타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됨
- 내전이 끝난 후 정부에서 레바논내 팔레스타인인들이 타국가로 이주하도록 강력히 요구
- 난민촌은 레바논군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치지역으로 둠
- 교육 기회 부족, 직업 선택의 제한, 공공 서비스의 부재 등의 한계를 두어 동화시키지 않음

시리아

- 팔레스타인 아랍인 총관리청(General Administration for Palestine Arab Refugees, GAPAR)를 설립하여 자국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다룸
-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국내 경제활동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동화를 시도함
-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사업체 소유와 같은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시리아 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
- 자국민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이집트

- 1948년 나크바 당시 이집트 정부는 이주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공 부문 및 정부 일자리에 대한 접근, 고등 교육 수준까지 무료 교육 제공 등 예외적인 정책을 추진함 (나세르 정권 당시)
-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이집트 내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에 대한 정책은 급속도로 제한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1978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의해 암살된 사건에 의해 이집트 사회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됨
- 이집트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를 위해 만들어진 UNRWA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음: 이집트 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집트 정부의 결정권 하에 놓여 있음

시리아 내전 이후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수용국의 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상황은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방 안의 코끼리와 같다.” (나딤 후리, 휴먼라이츠 워치)

시리아 내전 중 팔레스타인 난민의 이주

약 10년 간 시리아 주변국으로 이주한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약 12만 명
(요르단: 3만 1천 명, 레바논: 1만 6천 명, 이집트 6천 명, 튀르키예: 8천 명, 가
자 지구: 1천 명, 기타 유럽행)

요르단

- 2012년 4월부터 시리아에서 입국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국경에서 입국 금지 시킴
- 2013년 1월 요르단 정부는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입국 금지 정책을 발표함
- 요르단 시민권을 보유한 시리아 출신 팔레스타인인들의 입국은 허용되나 요르단에서 발급한 서류가 만료된 경우 입국 금지하거나 일부 팔레스타인인의 경우 요르단 시민권을 박탈하고 시리아로 강제 송환함
- 요르단 정부의 경우, 대규모 이주로 인한 '위험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국경 봉쇄 정책을 진행하여 불법 이주한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체포, 구금, 강제 송환 등의 정책을 취함

레바논

- 시리아 내전 이후 난민 유입 초기 레바논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한 시리아에서 피란해 오는 이들의 유입을 허가함.
- 2013년 8월과 201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입국 허가를 해제하고 추가 제한 조치(입국 시 필요한 서류 추가)를 추가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의 육로 입국을 금지함
- 예외적 입국이 허가된 상황에서도 체류 기간 제한 등을 두어 추가 체류의 가능성을 금지함
- 2017년에는 2016년 9월 이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정식으로 입국한 시리아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이후 무료로 무기한 갱신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함: 요건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제한적임

이집트

- 무르시 정권 시기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한 시리아에서 이동한 난민들에 대해 환대하였으나 무르시 축출 이후 강경한 입국 금지 대응으로 태도 변화
- 시리아 내전 이후 이집트로 유입된 팔레스타인 난민은 불법 이민자로 취급됨: 시리아 난민과 함께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시리아로 재송환 되거나, 레바논이나 튀르키예 등으로 추방됨
- 이집트 정부는 시리아 출신 팔레스타인인들을 난민으로 등록하고 임시 거주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함

2023년 말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국가의 태도

- 인근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유입을 강력하게 거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국의 영토로 추방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김
- 2023년 10월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 요르단과 이집트는 가자지구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2023년 10월 요르단 엘시시 대통령: 현재(당시 시점) 전쟁은 민간인들(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려는 의도이며, 이는 지역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
- 하마스와 연관된 전쟁이지만, 하마스를 지지하는 튀르키예와 카타르에서도 난민 수용은 거부하는 입장을 밝힘

귀환의 불투명성과 수용국 안보의 불안 요소 로서의 팔레스타인 난민

- 민족해방운동 기지가 되었던 인근국의 경우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던 역사가 존재
- 대부분의 인근국은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음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강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야 했던 인근국은 이를 또다른 안보적 위협이자 국가적 부담으로 받아들임
- 국가가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장기적인 국제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제2부 2분과: 언어·문학 분과 언어와 문학, 교육에 나타난 이-팔 분쟁에 대한 인식 차이와 대안 모색

[좌장]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 한국중등학교 춘계공동학술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2024. 06.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양희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외국어대학교

✓ 난민 대상 언어 교육 연구의 필요성

- 난민 수용국의 언어 교육 지원은 소통과 이해의 핵심 요소이기에 난민 대상 정착 지원의 여러 가지 방안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난민 대상 언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 난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촉진 시키는 사회적 통합의 촉진제 역할, 난민들의 자립성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 등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난민 대상 언어 교육은 새로운 국가에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최근 국제적으로도 난민 현황이 긴급하고 수용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경우 보충적 수용경로를 모색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튀르키예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대상 정책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난민 정책 방안과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시리아에서 빠져나온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난민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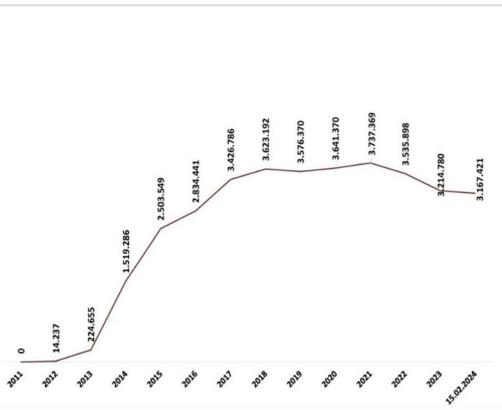
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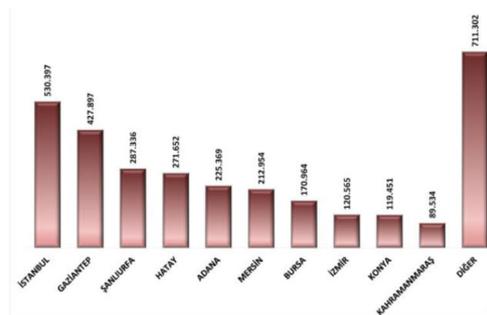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튀르키예에서 시행되는 시리아 난민 대상 정책 가운데 PIKTES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 및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난민 대상 언어 교육 적용의 실제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 난민 유입 초기에 비하여 비교적 시간이 흘렀고, 튀르키예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초기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난민 대응의 전략적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튀르키예는 규모와 기간적 측면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다채롭게 실시해 오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를 안정화시키기까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인지 파악하여 튀르키예 지역 사회에 어떻게 포용시키고 융합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현황



연도별 임시보호 시리아인 현황 (튀르키예 이민청, 2024년 2월 15일 기준)



상위 10개 주 임시보호시리아인 현황 (튀르키예 이민청 2024)

3.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정책

✓ **PIKTES** (Promoting Inclusive Education for Kids in the Turkish Education System) 프로젝트

- 시리아 아동의 튀르키예 교육 시스템 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 1단계 -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2개월
- 2단계 - 2018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진행 예정
- ~현재- 이후에도 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됨 (PIKTES+)



프로젝트의 목표는 튀르키예 내 임시보호 시리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과 사회 통합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는 시리아 어린이의 교육 접근성 보장, 터키어 및 아랍어 교육 통합 지원, 유아 교육 강화, 최신 기술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시스템의 질 향상 등이 포함된다.

3.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정책

✓ **PIKTES +**

- 초기 1단계 (2016.10 - 2019.07) "시리아 아동의 튀르키예 교육시스템 통합 장려 정책 프로젝트"
- 2단계 (2018.12 - 현재) 시리아 아동뿐만이 아닌 **외국인과 튀르키예 각 도시(州)별 지역 사회의 소외 계층 아동까지 포함**

✓ **주요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 난민아동 대상 국공립학교 교육
-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교육 별도 지원
- 난민 대상 교육 시설 확충, 교육 자료 지원
- 직업 및 기술 교육 지원



PIKTES Projesi - PIKTES Project
31 in Turkey
3월 9, 4:45:28
3월 9, 391회 2인 1인 #EuropeDay #AmgözüOkulu #AmudumuzKıyıda
Milli Eğitim Bakanlığı ile işbirliği kapsamında uygulanan "Suriyeli Çocukların Türk Eğitim Sistemine Entegrasyonunun Desteklenmesi Projesi (PIKTES)" için mahallî çocuklara yönelik öğrenme-öğretme süreçleri ve yapılarındaki mevcut sorunların giderilmesi ve eğitim-öğretim ortamının iyileştirilmesi için yapılan çalışmaların tanıtım videosu.

<https://www.youtube.com/watch?v=ZOBkG5wWuSQ>

3.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정책

✓ 튀르키예 교육부 발표

- 2014-2015학년도 시리아 학령기 아동대비 학교 등록 학생 수의 비율 - 30.42%
- PIKTES 프로젝트 실시와 함께 2016-2017년도에는 54.56%로 비교적 상승하였고, 2021-2022년도에는 65% 기록
- 2021-2022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시리아 난민 학생 등록률 75.13%, 중학교 80%, 고등학교는 42.65% (튀르키예 교육부, 2022)로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난민 학생의 이탈률 증가



연도별 튀르키예에서 교육을 받는 시리아 난민 학생 수
(튀르키예 교육부, 2022)

4.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언어 교육

✓ 언어 교육 교재

- 교과서: 시리아 난민 학생들을 위한 별도 터키어 교과서. 체계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별로 구성 (아랍어 교재)
- 워크북 및 연습 문제집: 교과서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해 스스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연습할 수 있게 도움
- 이야기 책 및 PDF 자료
- 멀티미디어 자료: 터키어 교육을 위한 비디오, 오디오 파일 및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 단어(그림) 카드 및 플래시 카드: 기본 어휘와 문법 구조를 배우기 위해 시각적 카드 자료 사용

SURİYELİ ÇOCUKLARIN TÜRK EĞİTİM SİSTEMİNE ENTEGRASYONUNUN DESTEKLENMESİ PROJESİ (PIKTES)

Ders Kitapları

- + Araçça Aile Etkinlik Takvimi
- + Araçça Ders Kitabı
- + Etkinlik içerikli öğretmen el kitabı seti
- + Türkçe aile etkinlik takvimi
- + Türkçe hayat boyu kitabı
- + Salih hikaye seti
- + Yabancı Öğrenciler İçin Türkçe Hikâyeler
- + Yabancı Öğrenciler İçin Türkçe Çalışma Kitabı

<https://piktes.gov.tr/Home/DersKitapları>

4.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언어 교육

시리아 난민 어린이 > 언어 장벽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청소년, 성인

- 난민들의 모국어 교육 (아랍어 교육)
- 난민 대상 교사를 위한 교육
- 시리아 어린이 대상 교육자료 지원 (학용품, 교과서, 보충교재 등)
- 학교 통학서비스 지원, 보충 수업 및 기타 교육 장비 지원
- 지역 학교 및 사회 내 다양한 야외 활동 및 인식 제고 활동 등
- PIKTES 언어(터키어) 시험



<https://piktes.gov.tr/Home/Resimler>

9

4.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언어 교육

✓ PIKTES 언어(터키어) 시험

- 2022년 6월 3일 자 시험에 초·중고 외국인 학생 약 49만명 시험 응시
- 초등학생(40분): 25문항 3지선다
- 중·고등학생(60분): 40문항 4지선다
- 외국어로서 터키어 교육 과정 기반



○ ○ ● ○ ○ ○ ○

TÜRKÇE DİL SINAVI (TDS) GERÇEKLEŞTİ.

PIKTES ölçme ve değerlendirme faaliyetleri kapsamında, İlkokul 3-4, Ortaokul 5-6-7-8 ve Lise 9-10-11-12. sınıflarda bulunan yabancı uyruklu öğrencilerin katılımıyla

3 Haziran 2022 tarihinde "Türkçe Dil Sınavı" gerçekleştirilmiştir. Sınav; ilköğretim için üç seçeneğli 25 soru, ortaokul ve lise kademesi için dört seçeneğli 40 çözümlü sorudan oluşmaktadır. Sorular, Talim ve Terbiye Kurulu Başkanlığınca onaylanan "Türkenin Yabancı Dil Olarak Öğretimi Programı" esas alınarak hazırlanmıştır.

Sınavın süresi ilköğretimdeki öğrenciler için 40 dakika, ortaokul ve lise kademesindeki öğrenciler için 60 dakika olarak uygulanmıştır. Sınav 26 ilde ilköğretim, ortaokul ve lise düzeyinde yaklaşık 490 bin öğrenci katılım sağlanmıştır.

PIKTES kapsamında bulunan il ve ilçelerde gerçekleştirilen sınavda yabancı uyruklu öğrencilerin dilsel gelişimlerinin tespit edilmesi amaçlanmıştır.

Kategori: Haberler

Yayın Tarihi: 4.6.2022

<https://piktes.gov.tr/cms/Haberler/Detay/49>

10

5. 언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시리아 난민 대상 언어 교육 교재 관련 연구

(킬리스, 하타이, 가지안텝 지역의 30여명의 시리아 난민 교육 교사 대상 설문)

터키어 교재의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 교재 사용 학생 수준 또는 연령별 적합하지 않은 난이도 조절 필요
- 개별 보충자료 및 학습자료 제공을 통한 언어적 접근성 강화 필요
- 학습자 흥미도 및 학습 능력 상승을 위한 참여 활동 추가
- 교사용 지도서 제작 및 활용
- 학습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학습자료 비중 확대

(Biçer& Kılıç, 2017)



5. 언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PITKTES 프로그램 관련 관련 연구 (2020-2023 학위논문)

No	Tez No	Yazar	Yıl	Tez Adı (Orijinal/Ceviri)	Tez Türü
1	844479	DENİZ TOĞRUL	2024	PIKTES projesi kapsamında hazırlanan 'Aslı Hikâye Serisi' nin kültürel etkileşim ve değerler eğitimi açısından incelenmesi <i>Investigation of the Aslı Story Series prepared within the scope of PIKTES project in terms of cultural interaction and values education</i>	Yüksek Lisans
2	824170	EYUP AYDIN	2023	Yabancılarla Türkçe öğretiminde kullanılan okuma kitaplarının söz varlığı: PIKTES Yabancı Öğrenciler İçin Türkçe Hikâyeler Seti örneği <i>Vocabulary of reading books used in teaching Turkish to foreigners: PIKTES example of Turkish Stories Set For Foreign Students</i>	Yüksek Lisans
3	840212	SEVİL YAVUZTÜRK	2023	COVID 19 küresel salgını sürecinde Türk Eğitim Sisteminde Çocuklar İçin Kapsayıcı Eğitimin Desteklenmesi Projesi (PIKTES) kapsamında öğretici ve öğrencilerin uzaktan eğitimle Türkçe öğretimine yönelik görüşlerinin incelenmesi <i>Examination of the views of teachers and students on the teaching of Turkish through distance educ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Project on Supporting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Turkish Education System during the COVID-19 global pandemic (PIKTES)</i>	Yüksek Lisans
4	843297	MERVE NASİFOĞLU	2023	PIKTES projesi kapsamında görev yapan sınıf öğretmenlerinin Türkçe öğretimine yönelik görüşlerinin incelenmesi <i>Investigation of the views of classroom teachers working within the scope of PIKTES project on teaching Turkish</i>	Yüksek Lisans
5	729180	ÖMER TURAN	2022	Yabancılarla Türkçe öğretimi kapsamında PIKTES'in değerlendirilmesi: Bursa ili örneği <i>Evaluation of PIKTES within the scope of teaching Turkish to foreigners: The case of Bursa</i>	Yüksek Lisans
6	715993	FADİM NUR BOZ	2022	PIKTES projesinde görev yapan sınıf öğretmenlerinin mesleğine yönelik tutumları, yaşam ve iş doyumlarının incelenmesi <i>Investigation of the attempts of classroom teachers working in the PIKTES project to the profession, and their life and job satisfaction</i>	Yüksek Lisans
7	687560	AYŞE PELİN	2021	Suriyeli Çocukların Türk Eğitim Sisteminde Entegrasyonunun Desteklenmesi Projesi (PIKTES) kapsamında kullanılan Türkçe öğreniyorum kitap seti ile hayat boyu Türkçe kitap setindeki Türkçe okuma metinlerinin değerler eğitimi ve kültür aktarımı açısından incelenmesi <i>Investigating of Turkish reading texts in Türkçe Öğreniyorum and Hayat Boyu Türkçe book sets used within project on Promoting Integration of Syrian Kids into the Turkish Education (PIKTES) in terms of values education and culture transfer</i>	Yüksek Lisans
7	642675	NURULLAH AKÇER	2020	PIKTES'te çalışan rehberlik danışmanlarının ikincil travmatik stres düzeylerinin incelenmesi <i>Examining levels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of guidance consultants employees at PIKTES</i>	Yüksek Lisans

5. 언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PIKTES 프로젝트와 함께 다수의 교사 고용 - 초기에는 교육학, 터키어문학, 터키어교육 전공생이나 공무원 선발 시험(KPSS), 면접 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그러나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아동의 심리 문제 등을 고려해 아랍어 교사 및 심리상담사도 임용되고, 선발된 교사 대상 외국어로써 터키어 교육도 실시(튀르키예 교육부, 2019)
- 튀르키예의 일반적인 초중고 정규교사들에 비해 낮은 급여, 임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 많은 수의 학생 관리, 언어와 문화적 차이, 소통의 어려움, 지식과 경험부족 등의 문제 업무에 대한 부담감 가중(Boz, 2022:39-40)
- 방학 없는 교육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산성 저하, 학생들의 수준으로 인한 교육 목표 도달의 어려움, 학생들의 학업 의욕 부족에서 기인하는 교사 직무만족도 저하.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의 동기 부여와 심리적 안정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 (Küçüküleymanoğlu & Kurt, 2020:27)
- 앞으로의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지원은 현행 교육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교사와 학생에 대한 연구, 교육의 체계적인 연구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13

참고문헌

- Biçer, N. ve Kılıç, B. S. (2017). Suriyeli Öğrencilere Türkçe öğretmek için kullanılan ders kitaplarının öğretmen görüşleri doğrultusunda değerlendirilmesi. *Ana Dili Eğitimi Dergisi*, 5(4), 649-663.
- Boz, F. Nur. (2022). Pikttes Projeinde Görev Yapan Sınıf Öğretmenlerinin Mesleğine Yönelik Tutumları, Yaşam ve İş Doyumlarının İncelenmesi, Yüksek Lisans Tezi, Necmettin Erbakan Üniversitesi Eğitim Bölümleri Enstitüsü
- K. Dora, Zuhul. (2020). International Migrants As A Matter Of Security: Open Door Policy And Syrians In Turkey, *Güvenlik Bilimleri Dergisi*, 9(2), 501-524. <https://doi.org/10.28956/gbd.830065>
- Küçüküleymanoğlu, Rüyam & Aşegül, Kurt. (2020). Suriyeli Öğrenciler İçin Görevlendirilen PICTES Öğretmenlerinin Tükenmişlik Düzeyleri: Bursa Örneği, *Sakarya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Dergisi*; (39), 24-45.
- 튀르키예 거주기반 인구등록시스템(ADNKS), <https://biruni.tuik.gov.tr/medas/?kn=95&locale=tr> (검색일: 2024.02.15.).
- 튀르키예 교육부 (MEB) <https://www.meb.gov.tr/suriyelilerin-mesleki-egitime-erisimi-icin-onemli-bir-adim/haber/23540/tr> (검색일: 2024.02.07).
- 고등교육위원회 학위 논문 검색 (YOK TEZ MERKEZİ) <https://tez.yok.gov.tr/UlusalTezMerkezi/tezSorguSonucYeni.jsp> (검색일: 2024.05.11).

14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 저항문학에 나타난 팔레스타인

홍인자(한국외국어대학교)

들어가며

- 문학은 시대정신 또는 민족정신의 표현이며, 사회에 대해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작가들은 시대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현안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치성향을 바탕으로 현안들을 자신들의 작품에 녹여낸다.
- 이란 저항문학을 집필한 작가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다양한 상징을 통하여 표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이다.

6/4/2024

2

이란 저항문학

- 저항문학은 사회정치학적 활동의 산물로서 사회, 국가 등을 지배하는 세력 또는 이념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문학이다.
- 이란에서는 내.외부의 혼란을 초래한 1980년대 부터 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체제 선전에 문학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 시아파이슬람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시아벨트’구축을 위해 이슬람 성인들과 종교적 상징들을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6/4/2024

3

이란 저항문학에 나타난 팔레스타인

- 께이사르 아민푸르(Gheisar Aminpur), 호세인 에스라필 (Hosein Eslafil), 타헤레 싸퍼르자데(Tahere Safarzadeh), 아흐마드 자레이(Ahmad Zarei), 하미드 사브제바리(Hamid Sabzebari)와 같은 현대 시인들이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작품을 남겼다.
- 작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

6/4/2024

4

1. 무고한 무슬림 형제

- 께이짜르 아민푸르(Gheisar Aminpur)와 같은 온건파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의 슬픔을 노래했다.
-
- 팔레스타인을 ‘올리브가 자라는 팔레스타인’, ‘붉은 장미꽃’, ‘벽 뒤에서 고통 받는 민족’ 등으로 표현하였다.
- 중도파, 보수파 작가들과는 다르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6/4/2024

5

در انتهای کوچه ی شب، زیر پنجره
قومی نشستہ خبرہ بہ تصویر پنجرہ
این سوی شیشہ ، شیون باران و خشم باد
در پشت شیشہ ، بغض گلوگیر پنجرہ
اصرار پشت پنجرہ ی گفتگو بس است
دستی برآوریم بہ تغییر پنجرہ

(아민푸르, 2011, 137)

밤의 골목 끝, 창문아래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민족

창문의 한편에는, 비의 슬픔과 바람의 분노

창문의 다른 편에는, 창문의 소리 없는 슬픔

창문 뒤의 대화는 충분하다

창문을 바꾸기 위하여 손을 들어올리자

6/4/2024

6

2. 이란의 정당성 확보

- 호세인 에스라필 (Hosein Eslafil), 타헤레 사퍼르자데(Tahere Safarzadeh)와 같은 중도파 작가들은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의 비애를 노래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우방에 대한 이란의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 온건파들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 미국,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폭정에 대항했다.

6/4/2024

7

تو در غرب از آزادی می گویی
و سربازانت در جامه صهیونیزم
در شرق، خانه ها را تخریب می کنند
در فلسطین، کودکان، نشان خانه هایشان را از ماهی
ها و صدف ها می پرسند

زیتونزار فلسطین
سایهبان اشغالگران نخواهد بود
و درندگان گرسنه به اجساد مردگان پوزه خواهد
مالید

(에스라필, 2010,88)

너는 서방에서 자유를 외친다
그리고 너의 군대들은 시오니즘의 옷 안에서
동방에서, 터전을 파괴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들 터전의 흔적을
물고기와 조개에게 묻는다

올리브의 땅 팔레스타인은
침략자들의 침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배고픈 맹수들은
너희들의 죽어진 몸통이에 주둥이를 문지를 것이다

6/4/2024

8

راه شما و ما ، خلق فلسطين
راه تمام خلق ها تحت ستم
از معبر شکنجه سلطه
به هم پیوسته است
ما راه را دنبال می کنیم
دنیال این همه تابوت سرخ
برشانه های روشن حق
ما راه را دنبال می کنیم
و فتح با ما خواهد بود

(사퍼르자데, 2005, 36)

당신의 길과 우리의 길, 팔레스타인 국민들이여
모든 국민들의 길은 탐욕아래 있다
제국의 고문을 지나
함께 이어져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르리라
명확한 진실의 어깨 위
붉은 관을 따라
우리는 이 길을 따르리라
그리고 승리하리라

3. 시아파 이데올로기

-아흐마드 자레이(Ahmad Zarei)와 하미드 사브제바리(Hamid Sabzebari)와 같은
원리주의자들은 시아파의 상징들을 인용하여 시아파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노래했다.

- 팔레스타인과 이란 모두 알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팔레스타인을 시아파의 도움으로
해방되어야 할 존재들로 표현하였다.

- 헤즈볼라를 위시한 '시아벨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ما به واحده هستيم و نداريم شکست
ما نمرديم و نميريم که تا ميراييم
گسترش يافته ي آتش عاشورايم
هرچند عشق بنابند وطن ما آنجاست
سنگبردار فلسئين! همه سنگ اندازند

...
گر نخواهند و نخواهند، تو را می خواهم
گر بمانند و نیابند ترا همراهیم

...
بس کن ای خیره! ز فرزند پیمبر کشتن
دست بردار ز توپاوه خیدر کشتن
بوی خیدر ز بس کوه احد می آید
رفته رفته است که اسلام به خود می آید

...
یا علی! قوت اخلاص در بت یادو نه
بیا علی! زور بدالهی خود در او نه
از کران تا کران لشکر حزبالهی
سزوبوشان شگفتی ز شهادت زنده

...
به علی! قبله ی خود را ز شما می گیریم
(آزادمازاد زارعی، 2014، 13)

우리는 하나이며, 피박을 모른다
우리는 죽지 않았고, 죽지 않는 불사이다
아슈라의 불꺼에서 번진 불꽃이다
신의 사랑이 빛나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의 고국이다

...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너를 원한다
오전 오지 않던, 우리는 너와 함께 한다

...
예언자 유순들의 죽음을 발관하는 것을 끝내라!
헤이다르 자순들의 살해를 멈춰라!
요호트 산에서 카이바르전쟁의 향기가 난다
조급씩 조급씩 이슬람이 스스로 다가온다

...
오! 알리여 적을 멸할 힘을 주소서
오! 알리여 '신의 팔인' 당신의 권능을 주소서
끝에서 끝까지 헤즈볼라의 군대가
순교자들로부터 녹색옷의 전사들이 부활한다

...
알리에게 영세로! 우리의 제불러를 당신에게서 받겠습니다.

سینا و طور و غزه را بلعید با هم
ما خفته و او در تهاجم قدس را، هم
فرمان رسید: این خانه از دشمن بگیرید!

...
جانان من! اندوه لبنان کشت ما را
بشکست داغ دیر یاسین پشت ما را
باید به سینه رفت زینجا تا فلسئين

...
جان من بر خیز و بشنو بانگ چاووش
آنک امام ما علم بگرفته بر دوش
مقصد، دیار قدس همپای جلو دار

...
(سابرجهباری، 1989، 181)

씨너와 투르와 가자를 함께 삼켰다
우리는 침묵했고, 그는 코드스를 침략했다
명령이 내려졌다: 이 성소를 적으로 부터 되찾아라

...
우리의 생명이여! 레바논의 슬픔이 우리를 죽이네
여친의 슬픔이 우리의 머리를 부수네
이곳에서 부터 팔레스타인까지 기어서라도 가야 한다

...
우리의 생명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절규를 들어라
우리의 이맘이 깃발을 짊어 지셨듯이
목적지가, 성스러운 코드스가 우리의 앞에 있다

결론

- 팔레스타인은 이란 저항문학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이다.
- ‘팔레스타인’이라는 동일한 소재이지만, 작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 이란 저항문학 작가들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바탕으로 사회 현안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녹여낸다.

6/4/2024

13

참고문헌

دیوان قیصر امینپور، قیصر امینپور، 2011، مروارید، تهران

رد پای صدا، حسین اسرافیلی، 2010، تکا، تهران

دیوان صفارزاده، تاهره صفارزاده، 2005، پگاه، تهران

شیر در قفسه 902، احمد زارعی، 2014، سوره مهر، تهران

سرود درد، حمید سبزواری، 1989، کیهان، تهران

6/4/2024

14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صورة الآخر العربي و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دب العربي العبري

د. هي وون بيك

الباحثة والأستاذة في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جامعة هانوك للدراسات الأجنبية

محتويات العرض

1. المقدمة
2. ثنائية الأنا والآخر في الأدب وتطورها
3. الآخر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دب العربي
4. الآخر العربي في الأدب العبري
5. بعض التساؤلات
6. الخاتمة

ثنائية الأنا والآخر في الأدب

1. إشكالية الثنائية الضدية بين الأنا والآخر في الأد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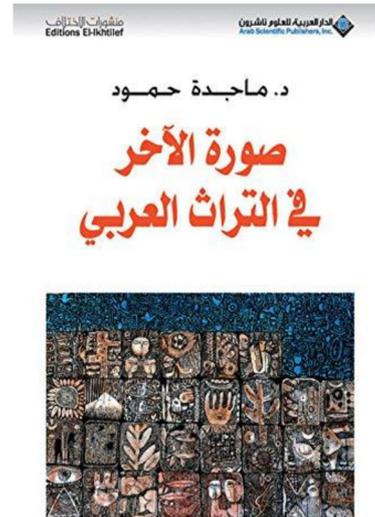


ثمة بعض الأمثلة على ذلك كالآتي:

2. مظاهر مختلفة من العلاقة بين الأنا والآخر في الأدب العربي
مع تطور المراحل الزمنية



- الأنا العربية والآخر العربي
- الأنا العربية والآخر الغربي
- الأنا العربية والآخر الشرقي
- الأنا العربية والآخر الإسرائيلي



صورة الآخر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دب العربي

كيف يتجسد الآخر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دب العربي؟

• (صفاتهما الخارجية والداخلية/ طريقة تصويره في النص)

ماذا يريد أن يقول المؤلف بتجسيد هذا الآخر في النص الأدبي؟ / ما رسالته؟

• (ما رمزيته في الأدب؟)

هل تتغير وتتطور هذه الصور حسب مراحل زمنية مختلفة؟

صورة الآخر العربي في الأدب العبر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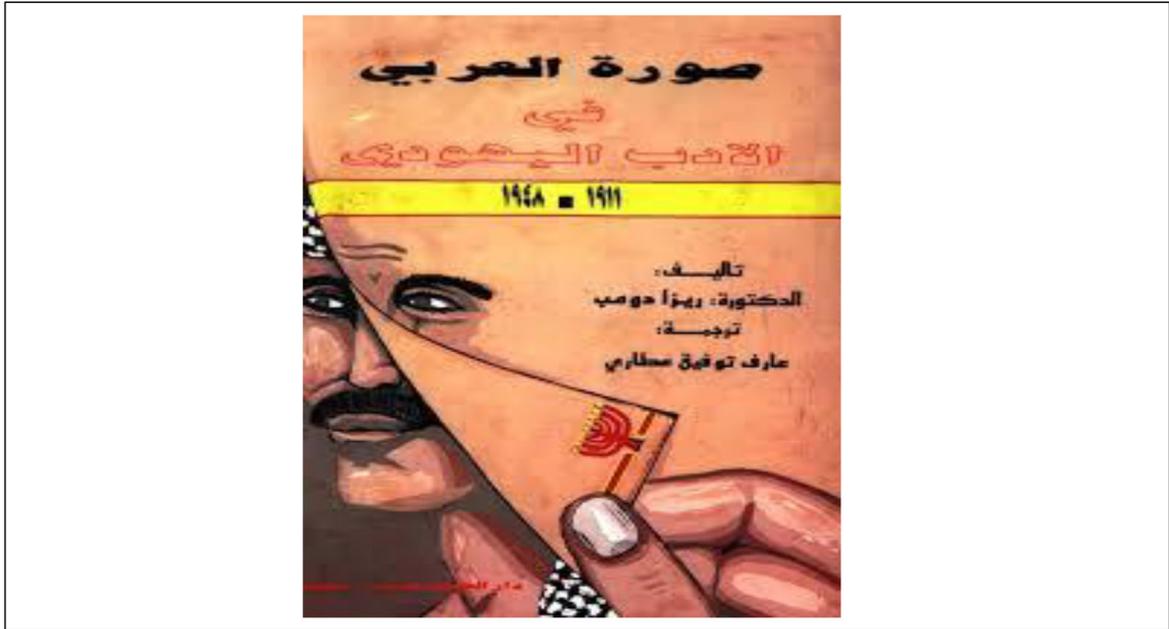
كيف يتجسد الآخر العربي في الأدب العبري؟

• (صفاتهما الخارجية والداخلية/ طريقة تصويره في النص)

ماذا يريد أن يقول المؤلف بتجسيد هذا الآخر في النص الأدبي؟ / ما رسالته؟

• (ما رمزيته في الأدب؟)

هل تتغير وتتطور هذه الصور حسب مراحل زمنية مختلفة؟



ما هي أبرز الأعمال الأدبية التي تظهر فيها صور الآخر العربي والإسرائيلي؟

* الأجناس الأدبية المتنوعة سواء أكانت عربية أم عبري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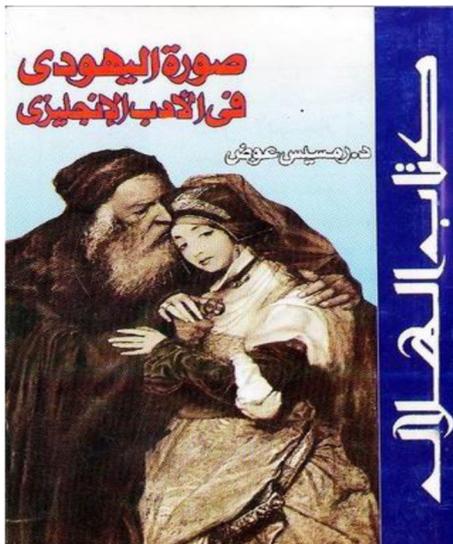
الشعر

الرواية / القصة القصيرة

أدب الرحلات / أدب الأطفال

المسرحية

الدراما



ما صفات الشخصيات التي تجسّد صور الآخر العربي و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نص الأدبي؟

الخائن

المهاجم/ العدو /
العسكري

الضحية /
المتشرد

المتقف / الجاهل

الخاتمة

وصلت الباحثة بعد الدراسة
إلى بعض النقاط المهمة
الجوهرية كالآتي ...

انتهى العرض

شكرا على حسن استماعكم!!!